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이 영 주 교수 지도  
박사학위 청구논문

18세기 프랑스 여성초상화에 나타난  
의복의 장식특성 분석을 통한  
네일아트 디자인 연구

2018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조 한 솔

18세기 프랑스 여성초상화에 나타난  
의복의 장식특성 분석을 통한  
네일아트 디자인 연구

이 영 주 교수 지도

이 논문을 박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4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조 한 솔

# 인 준 서

조한솔의 박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8년 4월

심사위원장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논문개요

네일아트는 기능적인 면과 예술적인 면을 동시에 가지는 미적 표현 수단이자 전반적인 스타일링의 분위기를 이끄는 중요한 요소로써, 소비자들이 원하는 네일 디자인의 요구와 기대는 점점 상승하고 있다. 네일아트에서 디자인은 의복과 함께 어우러져 독자적인 트렌드를 이끌기도 하며, 네일샵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에게는 매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핵심 전략으로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소비자들은 평소의 의복스타일이나 특별한 상황을 염두한 의복에 어울리는 네일 디자인을 요구하고 있어 의복과 접목한 다양한 네일 디자인의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18세기 프랑스 여성초상화에 나타난 의복의 트리밍을 분석하고 이를 접목하여 평면 및 입체 네일 디자인 작품으로 표현하는데 목적이 있다. 초상화 분석을 통한 네일 디자인 연구의 접근 범위를 확장하고 의복을 접목한 네일아트 디자인의 발상과 표현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은 문헌을 이용한 고찰과 실증적 연구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네일아트와 관련하여 이론 및 선행 연구를 고찰하였으며, 분석 대상 및 자료로 활용되는 트리밍, 18세기 의복과 트리밍, 초상화에 대해 이론적으로 고찰하였다. 분석 자료는 18세기에 제작된 프랑스 베르사이유 궁에 소장된 여성초상화 110점을 수집하여 이를 대상으로 이론적 분석 내용을 기준한 18세기 의복 트리밍의 유형에 따라 연구 방법을 구상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네일아트 전문가 집단의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수집한 초상화 중 트리밍 사용이 확인된 97점의 초상화를 전문가 집단의 분석으로 18세기 의복 트리밍의 7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18세기 의복 트리밍의 7가지 유형은 애플리케이션과 코드, 브레이드, 레이스, 리본, 비즈, 코사지와 로제트, 프린지와 테슬이다. 분석 결과 18세기 프랑스 여성초상화에 나타난 트리밍은 유형화된 7가지 트

리밍이 모두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 연구 작품은 각 유형별 특성을 모티브로 평면 네일 디자인과 입체 네일 디자인으로 각각 제작하여, 총 14점의 네일아트 디자인 작품으로 표현하였다.

위 연구에 따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8세기 프랑스 여성초상화에 나타난 트리밍의 유형은 애플리케와 코드, 브레이드, 레이스, 리본, 비즈, 코사지와 로제트, 프린지와 태슬로 분류되었다. 연구 작품의 시각적 모티브는 각 트리밍 유형별 해당 초상화 중 대표 초상화를 선정하여 작품을 제작하였다.

작품 I은 애플리케와 코드를 모티브로 하여 핸드페인팅과 2D 기법 위주로 컬러 젤과 엠보 젤, 네일아트용 실크사를 이용하여 작품을 제작하였다.

작품 II는 브레이드를 모티브로 하여 핸드페인팅과 2D 기법 위주로 컬러 젤과 엠보 젤을 활용하여 제작하였다.

작품 III은 레이스를 모티브로 하여 핸드페인팅과 2D 기법 위주에 컬러 젤과 엠보 젤을 활용하여 작품을 제작하였다.

작품 IV는 리본을 모티브로 하여 평면 네일 디자인 작품은 핸드페인팅 위주로 제작하였고, 입체 네일 디자인 작품은 3D 기법을 통하여 만든 입체 리본 장식물과 여러 색상의 네일 필름을 다양한 리본 끈처럼 폭이 다르게 잘라 배치하여 작품을 제작하였다.

작품 V는 비즈를 모티브로 하여 네일 폴리시 아트 중 마블 기법을 활용하여 평면 네일 디자인을 하였고 다양한 모양의 네일아트용 인조보석을 부착하여 입체 네일 디자인 작품을 제작하였다.

작품 VI은 코사지와 로제트를 모티브로 하여 핸드페인팅, 2D 기법을 활용하였고 컬러 젤과 아크릴 파우더, 네일 파츠를 이용하여 작품을 제작하였다. 특히, 입체 디자인의 굴곡과 볼륨감 부각을 위해 부분 광택으로 마감하였다.

작품 VII은 프린지와 태슬을 모티브로 하여 핸드페인팅, 2D 기법을 활용하

였고, 컬러 젤과 아크릴 파우더, 입체 네일 장식물을 이용하여 작품을 제작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18세기 프랑스 여성초상화에 나타난 트리밍을 응용한 네일아트 작품을 제작함으로써 의복을 접목한 네일아트 디자인 제작이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과거에 사용되었던 트리밍이 현대의 의복에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어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네일아트 디자인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실무적 의의를 가진다. 더불어 초상화를 통한 연구 방법으로 네일 디자인 연구의 접근 범위를 확장하고, 다양한 네일 디자인의 표현방법 및 제작 방법에 기초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

# 목 차

## 논문 개요

<b>I. 서론</b> .....	1
1. 연구의 목적 및 의의 .....	1
2. 연구의 방법 및 내용 .....	4
<b>II. 이론적 고찰</b> .....	7
1. 네일아트 .....	7
1) 네일아트의 개념 .....	7
2) 네일아트의 표현기법 .....	9
3) 네일아트 관련 선행연구 .....	20
2. 의복 트리밍 .....	23
1) 트리밍의 개념 .....	24
2) 트리밍의 유형 .....	28
3. 18세기 프랑스 로코코 복식 .....	38
1) 18세기 로코코 복식 형성 배경 .....	38
2) 18세기 프랑스 여성 의복과 트리밍 .....	42
4. 18세기 프랑스 초상화 .....	59
1) 초상화의 개념 .....	60
2) 18세기 프랑스 초상화와 궁정화가 .....	62
<b>III. 연구 방법</b> .....	73
1. 연구 대상 .....	73

2. 연구 자료 분석 .....	74
3. 연구 방법 .....	85
<b>IV. 연구 결과 .....</b>	<b>87</b>
1. 트리밍 유형 분석 및 선정 .....	87
2. 18세기 프랑스 여성 초상화에 나타난 의복의 장식특성을 응용한 네일아트 디자인 .....	104
1) 디자인 의도 및 제작 방법 .....	104
2) 작품 제작 .....	105
(1) 작품 I .....	106
(2) 작품 II .....	112
(3) 작품 III .....	118
(4) 작품 IV .....	124
(5) 작품 V .....	130
(6) 작품 VI .....	136
(7) 작품 VII .....	142
<b>VI. 결 론 .....</b>	<b>148</b>
1. 연구의 요약 및 결론 .....	148
2. 연구의 제한점과 제언 .....	153

**참 고 문 헌**

**ABSTRACT**

## 표 목 차

<표 1> 연구의 구성도 .....	6
<표 2> 의복과 접목한 네일아트 선행 연구 .....	21
<표 3> 선행 연구에 나타난 트리밍의 유형 .....	26
<표 4> 18세기 여성 의복의 트리밍 .....	53
<표 5> 왕실 인물과 궁정 화가 .....	72
<표 6> 초상화 분석을 위한 전문가 집단 구성원 .....	74
<표 7> 18세기 프랑스 여성초상화의 목록 .....	75
<표 8> 18세기 프랑스 여성초상화 중 궁정화가의 작품 .....	81
<표 9> 18세기 프랑스 여성초상화의 나타난 인원 구성 .....	82
<표 10> 18세기 프랑스 여성초상화의 나타난 구도 .....	82
<표 11> 18세기 프랑스 여성초상화의 나타난 의복 색상 .....	83
<표 12> 18세기 프랑스 여성초상화 나타난 트리밍의 유무 .....	84
<표 13> 연구 문제 1의 연구 절차 .....	85
<표 14> 연구 문제 2의 연구 절차 .....	85
<표 15> 18세기 프랑스 여성초상화 나타난 어플리케와 코드 .....	88
<표 16> 18세기 프랑스 여성초상화 나타난 브레이드 .....	90
<표 17> 18세기 프랑스 여성초상화 나타난 레이스 .....	92
<표 18> 18세기 프랑스 여성초상화 나타난 리본 .....	94
<표 19> 18세기 프랑스 여성초상화 나타난 비즈 .....	96
<표 20> 18세기 프랑스 여성초상화 나타난 코사지와 로제티 .....	97
<표 21> 18세기 프랑스 여성초상화 나타난 프린지와 태슬 .....	99
<표 22> 18세기 프랑스 여성초상화 나타난 의복의 장식 유형화 .....	100
<표 23> 18세기 프랑스 여성초상화 나타난 트리밍별 해당 작품 번호 ..	101

<표 24> 대표 초상화 선별 자료 .....	102
<표 25> 연구 작품의 시각적 모티브를 위한 대표 초상화 .....	103
<표 26> 작품 I의 디자인 정보 .....	107
<표 27> 작품 I의 디자인 이미지 .....	108
<표 28> 작품 I의 디자인 제작 과정 .....	109
<표 29> 작품 II의 디자인 정보 .....	113
<표 30> 작품 II의 디자인 이미지 .....	114
<표 31> 작품 II의 디자인 제작 과정 .....	115
<표 32> 작품 III의 디자인 정보 .....	119
<표 33> 작품 III의 디자인 이미지 .....	120
<표 34> 작품 III의 디자인 제작 과정 .....	121
<표 35> 작품 IV의 디자인 정보 .....	125
<표 36> 작품 IV의 디자인 이미지 .....	126
<표 37> 작품 IV의 디자인 제작 과정 .....	127
<표 38> 작품 V의 디자인 정보 .....	131
<표 39> 작품 V의 디자인 이미지 .....	132
<표 40> 작품 V의 디자인 제작 과정 .....	133
<표 41> 작품 VI의 디자인 정보 .....	137
<표 42> 작품 VI의 디자인 이미지 .....	138
<표 43> 작품 VI의 디자인 제작 과정 .....	139
<표 44> 작품 VII의 디자인 정보 .....	143
<표 45> 작품 VII의 디자인 이미지 .....	144
<표 46> 작품 VII의 디자인 제작 과정 .....	145

## 그림 목 차

<그림 1> 핸드페인팅 I .....	11
<그림 2> 핸드페인팅 II .....	11
<그림 3> 페이즐리 패턴 아트 .....	12
<그림 4> 포크 아트 .....	12
<그림 5> 일반 폴리시 아트 I .....	13
<그림 6> 일반 폴리시 아트 II .....	13
<그림 7> 젤 폴리시 아트 .....	14
<그림 8> 통젤 폴리시 아트 .....	14
<그림 9> 컬러 마블 .....	15
<그림 10> 워터 마블 .....	15
<그림 11> 에어브러시 아트 I .....	16
<그림 12> 에어브러시 아트 II .....	16
<그림 13> 네일 필름 아트 .....	17
<그림 14> 네일 스티커 아트 .....	17
<그림 15> 2D 입체 아트 .....	19
<그림 16> 3D 입체 아트 .....	19
<그림 17> 네일 파츠 아트 .....	20
<그림 18> 땡글 아트 .....	20
<그림 19> 네일아트 분야 학위논문 연구 수 .....	21
<그림 20> 어플리케 I .....	29
<그림 21> 어플리케 II .....	29
<그림 22> 코드 .....	30
<그림 23> 레이스 코드 .....	30

<그림 24> 브레이드 I	31
<그림 25> 브레이드 II	31
<그림 26> 레이스 I	32
<그림 27> 레이스 II	32
<그림 28> 리본 I	33
<그림 29> 리본 II	33
<그림 30> 비즈 I	34
<그림 31> 비즈 II	34
<그림 32> 시퀀 I	35
<그림 33> 시퀀 II	35
<그림 34> 코사지 I	35
<그림 35> 코사지 II	35
<그림 36> 프린지와 태슬 I	36
<그림 37> 프린지와 태슬 II	36
<그림 38> 단추 I	37
<그림 39> 단추 II	37
<그림 40> 로브 볼랑트	44
<그림 41> 로브 아 라 프랑세즈	45
<그림 42> 로브 아 라 폴로네즈	47
<그림 43> 로브 아 라 시르카시엔느	47
<그림 44> 로브 아 라 카라코 I	48
<그림 45> 로브 아 라 카라코 II	48
<그림 46> 로브 아 랑글레즈	49
<그림 47> 로브 아 라 레비트	50
<그림 48> 슈미즈 아 라 렌느	50

<그림 49> 플리스 .....	52
<그림 50> 펠레린 .....	52
<그림 51> 어플리케이션과 코드 I .....	54
<그림 52> 어플리케이션과 코드 II .....	54
<그림 53> 브레이드 I .....	55
<그림 54> 브레이드 II .....	55
<그림 55> 레이스 I .....	56
<그림 56> 레이스 II .....	56
<그림 57> 리본 I .....	57
<그림 58> 리본 II .....	57
<그림 59> 비즈 I .....	57
<그림 60> 비즈 II .....	57
<그림 61> 코사지 .....	58
<그림 62> 로제트 .....	58
<그림 63> 프린지와 태슬 I .....	59
<그림 64> 프린지와 태슬 II .....	59
<그림 65> 아델라이드 공주 .....	65
<그림 66> 앙리에트 공주 .....	65
<그림 67> 티 리아 백작부인의 초상화 .....	66
<그림 68> Portrait of Madame Marie-Henriette Berthelot de Pléneuf .....	66
<그림 69> 풍파두르 부인의 초상 .....	68
<그림 70> 마담 풍파두르 .....	68
<그림 71> 로브 아 파니에를 입은 마리 앙투아네트 왕비 .....	70
<그림 72> 장미를 들고 있는 마리 앙투아네트 .....	70
<그림 73> 두 제자와 자화상 .....	71

<그림 74> 마리 아텔라이드 초상 .....	71
<그림 75-1> 작품 I의 평면 네일 디자인 측면 .....	110
<그림 75-2> 작품 I의 평면 네일 디자인 정면 .....	110
<그림 76-1> 작품 I의 입체 네일 디자인 정면 .....	111
<그림 76-2> 작품 I의 입체 네일 디자인 측면 .....	111
<그림 77-1> 작품 II의 평면 네일 디자인 측면 .....	116
<그림 77-2> 작품 II의 평면 네일 디자인 정면 .....	116
<그림 78-1> 작품 II의 입체 네일 디자인 정면 .....	117
<그림 78-2> 작품 II의 입체 네일 디자인 측면 .....	117
<그림 79-1> 작품 III의 평면 네일 디자인 측면 .....	122
<그림 79-2> 작품 III의 평면 네일 디자인 정면 .....	122
<그림 80-1> 작품 III의 입체 네일 디자인 정면 .....	123
<그림 80-2> 작품 III의 입체 네일 디자인 측면 .....	123
<그림 81-1> 작품 IV의 평면 네일 디자인 측면 .....	128
<그림 81-2> 작품 IV의 평면 네일 디자인 정면 .....	128
<그림 82-1> 작품 IV의 입체 네일 디자인 정면 .....	129
<그림 82-2> 작품 IV의 입체 네일 디자인 측면 .....	129
<그림 83-1> 작품 V의 평면 네일 디자인 측면 .....	134
<그림 83-2> 작품 V의 평면 네일 디자인 정면 .....	134
<그림 84-1> 작품 V의 입체 네일 디자인 정면 .....	135
<그림 84-2> 작품 V의 입체 네일 디자인 측면 .....	135
<그림 85-1> 작품 VI의 평면 네일 디자인 측면 .....	140
<그림 85-2> 작품 VI의 평면 네일 디자인 정면 .....	140
<그림 86-1> 작품 VI의 입체 네일 디자인 정면 .....	141
<그림 86-2> 작품 VI의 입체 네일 디자인 측면 .....	141

<그림 87-1> 작품 VII의 평면 네일 디자인 측면 .....	146
<그림 87-2> 작품 VII의 평면 네일 디자인 정면 .....	146
<그림 88-1> 작품 VII의 입체 네일 디자인 정면 .....	147
<그림 88-2> 작품 VII의 입체 네일 디자인 측면 .....	147

# I. 서 론

## 1. 연구의 목적 및 의의

뷰티 산업의 한 분야인 네일아트(Nail Art)는 손질과 꾸밈을 통해 손톱 및 발톱 외관의 아름다움을 극대화하고 본인만의 개성을 표출하는 표현 방법이자 네일아티스트의 창의적인 디자인 기술과 다양한 감성 표현을 손톱에 담아내는 예술이라 할 수 있다. 과거 일부 계층만 누리던 형태의 범주를 넘어 이제는 토탈 코디네이션의 한 부분으로, 개성이나 장점 표현만이 아닌 기분 전환의 정신적 수단이자 자기 만족감을 높여주는 수단이 되고 있다<sup>1)</sup>. 네일디자인이 토탈 코디네이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적지만 의복과 어우러져 전체적인 분위기의 완성을 이끄는 중요한 요소로서<sup>2)</sup>, 스타일이 표현된 네일디자인은 독자적인 트렌드로 주목받거나 살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에게 매출과 연결되는 경영 전략으로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소비자들은 평소의 의복 스타일 혹은 특별한 상황이나 이미지에 맞춘 의복에 따라 어울리는 네일 디자인을 요구하고 있고<sup>3)</sup>, 외적인 아름다움을 더욱 돋보이게 하기 위한 장식적인 수단으로 네일아트를 활용하고 있어 의복과 접목한 다양한 네일디자인의 접근이 필요하다. 그동안 네일 분야는 학문적으로 창의적 디자인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주제를 통한 네일디자인에 대한 선행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는 있었으나, 의복과 뷰티의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반영하는 의복과 네일을 접목한 선행 연구는 극히 적은 상황이다.

- 
- 1) 이해미루(2018). “네일 미용 서비스 소비자 및 선호 디자인 Q 유형화 연구”, 서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1.
  - 2) 정다희(2017). “벽지의 실내 공간 이미지 유형을 활용한 젤 네일아트 디자인 개발”, 광주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
  - 3) 정은경(2017). “웨딩 이미지에 따른 네일아트 표현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원격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

의복과 네일을 접목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동양의 의복으로 접근하여 강해숙(2015)<sup>4)</sup>은 한·일 예복 문양을 활용한 네일디자인 연구를 하였고, 김기현(2013)<sup>5)</sup>은 일본 기모노의 문양을 네일디자인 연구에 접목하였다. 또한, 이순영(2014)<sup>6)</sup>은 한국의 전통 문양을 모티브로 웨딩네일아트에 접목하여 연구하였다. 김도현(2012)<sup>7)</sup>은 패션 컬렉션에 나타난 트렌드 이미지별로 네일아트 디자인을 연구하였고, 윤희주(2017)<sup>8)</sup>는 패션이미지에 따른 네일아트 디자인 연구를 하였다. 남궁수(2014)<sup>9)</sup>는 패션 소재를 이용한 네일아트 디자인 연구를 하였다. 이와 같이 동양 의복이나 한국 전통 문양을 활용한 연구는 존재하나 서양 의복과 네일디자인을 접목한 연구가 미비한 것을 알 수 있다. 특정 문양이나 한 가지의 모티브에 국한된 네일디자인 연구보다는 여러 모티브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향으로의 네일디자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여성 소비자가 주를 이루며 부착형 장식물 사용이 많은 네일아트와 다양한 모티브를 이끌어 수 있는 서양 의복과의 연결성에 비중을 두고 접근하였을 때, 18세기 프랑스 여성 의복이 서양 의복 역사상 가장 화려하였고 극대화된 여성미를 가지는 동시에 의복의 아름다움을 부각하기 위해 다채로운 장식 사용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연구의 가치를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18세기 프랑스 의복은 섬세함과 화려함이 절정에 이른 로코

- 
- 4) 강해숙(2015). “근세 한·일 예복에 나타난 문양을 활용한 네일 디자인 연구”, 경성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5) 김기현(2013). “기모노 문양을 활용한 네일아트 디자인 연구: 작품 제작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6) 이순영(2014). “한국 전통문양 모티브를 적용한 웨딩네일아트 선호도에 관한 연구: UV Polish Gel을 적용하여”, 조선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7) 김도현(2012). “패션컬렉션지에 나타난 이미지별 네일디자인 연구”,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8) 윤희주(2017). “패션이미지에 따른 네일아트 디자인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라이프스타일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9) 남궁수(2014). “패션 소재를 이용한 네일아트 디자인: 젤 네일아트를 중심으로”, 가천대학교 스포츠문화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코 예술사조의 특징을 뚜렷하게 담아내며, 과거의 의복 형태와 장식이 주는 독특함으로 현대의 다방면적인 디자인 영역에 많은 모티브로 사용되고 있다<sup>10)</sup>. 18세기 프랑스는 로코코 예술사조의 주요 배경이었으며, 여성들이 주축이 된 살롱문화의 사교성과 개인의 취향 존중의 영향이 여성 의복에 고스란히 표현됨과 더불어 화려한 장식요소를 나타나게 하였다<sup>11)</sup>.

위와 같은 18세기 의복의 화려함은 초상화로써 현재까지 남아 정교하고 화려한 18세기 프랑스 여성 의복과 장식의 특징을 세밀하게 보여주고 있다. 의복 관련 연구에서 초상화는 의복의 색상, 소재, 의복 장식을 파악할 수 있는 시대적 대표성을 가지는 대상으로써 활용도가 높은 시대적 자료이다. 18세기 초상화에 나타난 화려한 의복은 프랑스 베르사이유 궁전 일대를 배경으로 한 왕실 인물들의 위엄을 대변하듯이 절정의 세밀함으로 표현되었다. 의복에 사용된 작은 의복 장식의 형태와 문양, 색상 하나도 놓치지 않고 초상화에 정교하게 표현되어 있어, 의복을 접목한 네일디자인의 모티브를 도출하기에 분석 자료로써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18세기 프랑스 여성초상화를 통해 의복의 범위에 포함되는 의복 장식의 특성을 네일아트에 접목하여 평면 및 입체 네일디자인 작품으로 표현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하여 초상화 분석을 통한 뷰티 디자인의 접근 범위를 확장하고 의복과 접목한 네일아트의 디자인 발상과 네일 산업계와 교육계에서 모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네일디자인 표현 및 제작방법을 제시하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

10) 안현주(1995). “로코코 복식을 응용한 현대의 남성예복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40-41.

11) 임지영(2008). “현대패션에 나타난 과시형복식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37.

## 2. 연구의 방법와 내용

본 연구는 문헌을 이용한 이론적 고찰과 초상화 수집을 통한 분석으로 네일아트 디자인 작품을 제작하였다. 18세기 프랑스 여성초상화에 나타난 의복의 트리밍 분석을 통한 네일아트 디자인 연구의 근거를 위한 이론적 배경 설정은 네일아트, 의복 트리밍, 18세기 프랑스 여성 의복 및 트리밍, 초상화에 관한 선행 연구, 국내·외 단행본을 위주로 하였다. 또한, 실증적 분석 자료로 활용되는 초상화는 베르사이유 궁 공식홈페이지를 통하여 수집하였으며, 초상화의 범위는 18세기로 루이 14세가 서거한 직후인 1715년부터 프랑스 혁명 전인 1789년까지의 여성초상화를 대상으로 하였다. 수집된 초상화는 의류학과 교수 및 미용학과 교수, 경력 10년 이상의 네일 실무진을 포함한 총 8명의 전문가 집단의 도움을 받아 트리밍의 유형별로 분석하였다. 분석 내용을 통한 네일디자인 연구 작품은 평면과 입체 네일 디자인 작품으로 각각 제작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구성도는 <표 1>과 같다. 본 연구는 총 5장으로 서론, 이론적 배경, 연구 방법, 분석 결과,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 방법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I 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목적 및 의의, 방법과 내용, 구성 체계를 중심으로 본 연구의 전반적인 방향을 기술하였다.

II 장은 이론적 배경으로서 선행 연구, 국내·외 단행본, 정기 간행물, 포털 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네일아트와 표현기법에 대해 고찰하고 네일아트 선행 연구를 통해 연구 동향을 파악하였다. 기존에 연구된 의복과 네일아트를 집목한 네일디자인 연구를 살펴보고, 연구 주제와 연관된 키워드 검색을 통해 본 연구의 희소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트리밍 관련 선행 연구를 통하여 트리밍을 유형화하고, 연구 작품의 모티브 도출을 위한 18세기 여성 의

복 및 트리밍, 18세기 초상화를 고찰하여 이론적 기초를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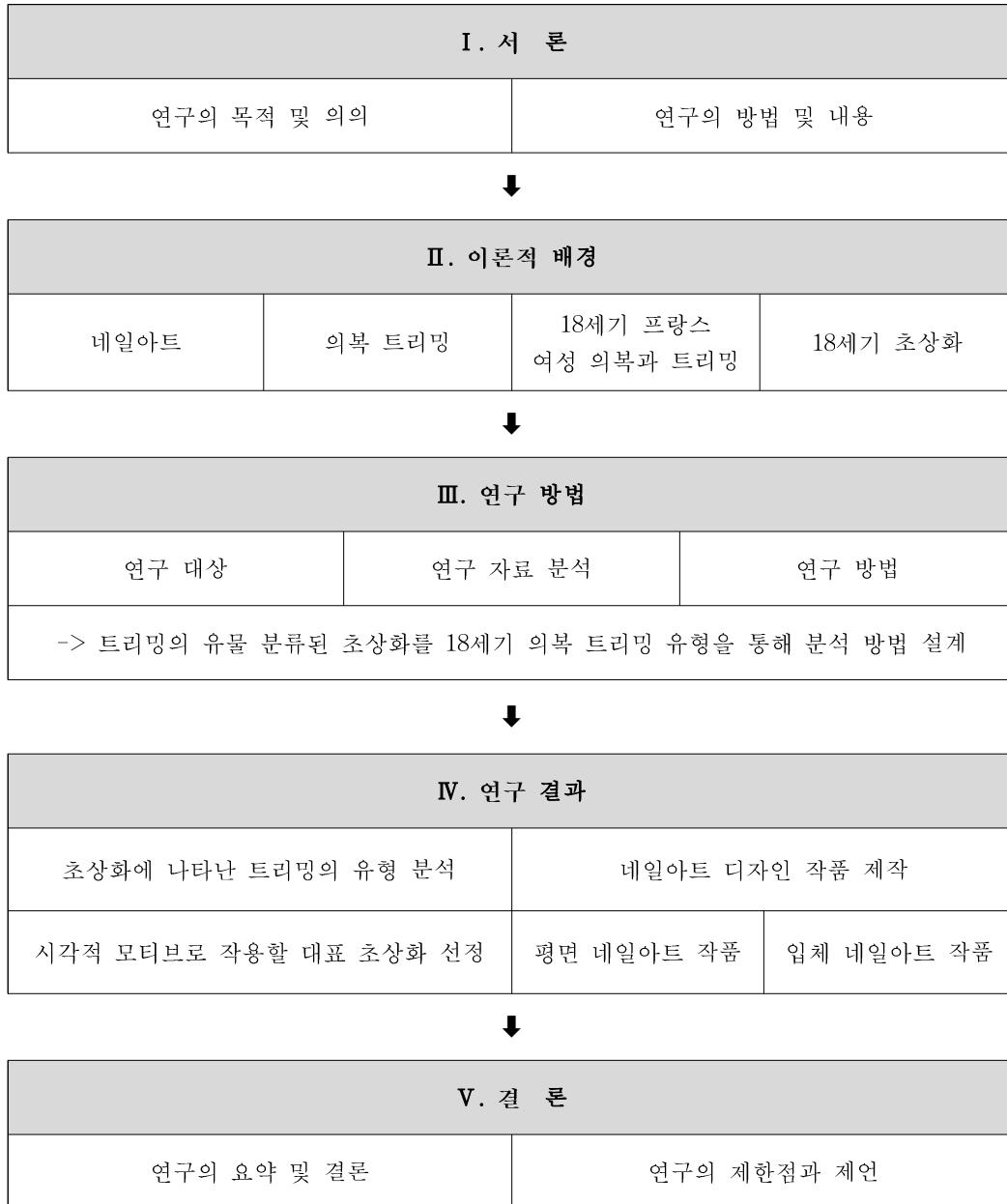
Ⅲ장은 연구 방법의 설계로, 수집된 18세기 여성초상화 전체를 화가, 인원, 구도, 드레스의 주요 색상으로 파악하였고 실증적 연구를 위해 트리밍의 유무로 재분류하였다. 트리밍이 확인된 여성초상화는 트리밍 선행 연구를 통해 유형화된 18세기 트리밍을 기준으로 18세기 프랑스 여성초상화에 나타난 트리밍 분석 및 선정과 작품 제작에 대한 연구 방법을 설정하였다.

Ⅳ장은 분석 결과로 전문가 집단의 도움을 받아 18세기 프랑스 여성초상화에 나타난 트리밍을 분류하여 결과로 제시하였다. 또한, 분석 결과에 따라 연구 작품의 모티브로 활용되는 트리밍의 유형별 대표 초상화를 도출하였다. 더불어 분석 결과로 선정된 대표 초상화를 통해 18세기 프랑스 여성초상화에 나타난 트리밍의 유형별 평면 네일디자인 작품과 입체 네일 디자인 작품을 각각 제작하였다.

V장은 결론으로 본 연구의 시사점과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프랑스 베르사이유 궁에 소장된 18세기 여성초상화 110점 중 트리밍의 사용이 보이는 97점의 초상화를 대상으로, 트리밍의 선행 연구를 통해 유형화된 10가지의 트리밍 중 18세기 여성 의복에서 사용되었던 7가지의 트리밍으로 분석하였다. 18세기 프랑스 여성초상화의 수집은 2017년 9월 1일에서 2017년 10월 31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전문가 집단의 분석 및 인터뷰는 2017년 11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 진행되었다.

<표 1> 연구의 구성도



## Ⅱ. 이론적 배경

본 장에서는 18세기 프랑스 여성초상화에 나타난 의복의 트리밍을 활용한 네일아트 디자인을 하기 위한 기본 개념을 이해하기 위하여 네일아트의 개념과 표현기법을 중심으로, 트리밍의 개념과 유형을 고찰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실질적인 네일디자인 모티브로 작용하는 18세기 프랑스 여성 의복과 분석 대상인 18세기 프랑스 초상화에 대한 고찰도 함께 정리하였다.

### 1. 네일아트

#### 1) 네일아트의 개념

네일은 일반적으로 손톱 및 발톱 모두를 지칭하는 의미이며, 해부학적 범위로 접근하였을 때 손가락 및 발가락 끝쪽에 딱딱한 단백질 판(板)의 형태로 위치하는 네일 플레이트(Nail Plate)<sup>12)</sup>의 의미로도 볼 수 있다. 그동안 네일아트는 기능적인 측면에 예술성이 공존하며 네일 표면의 아름다움을 극대화하는 뷰티의 한 분야로 정착하였다. 하지만 일반인들에게는 여전히 네일 관리 개념의 매니큐어라는 명칭과 혼용되며, 시술 범위와 관리의 범주 안에서 용어가 혼선되는 경향을 보였다. 통상적으로 알려진 매니큐어의 의미역시도 일반인들이나 여러 대중 매체에서 손톱 위에 바르는 컬러링 제품의 명칭으로 사용되는 것도 흔한 경우이다.

네일 관리(Nail Care)의 측면에서는 크게 매니큐어와 페디큐어로 구분<sup>13)</sup>

12) 김미원(2010). “네일아트 대회가 네일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네일아트 기능인의 기술성과 예술성을 중심으로”, 서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4.

13) 설은희(2015). “네일 이상증에 대한 보정법의 효과성 연구”, 영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11.

할 수 있다. 우선, 매니큐어(Manicure)는 라틴어에서 유래된 용어로 손을 뜻하는 마누스(Manus)와 관리라는 의미의 큐라(Cura)가 합성된 단어로, 손톱과 손톱 주변의 전체적인 관리<sup>14)</sup>를 의미하는 것이다. 페디큐어(Pedicure) 역시 발을 뜻하는 라틴어 페디스(Pedis)와 큐라가 합성된 단어로, 발톱과 발톱 주변의 전체적인 관리<sup>15)</sup>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네일 관리의 범위는 네일 소독, 네일 길이와 모양 정리, 네일 주변의 각질 제거, 네일 폴리시(Nail polish)<sup>16)</sup> 바르기에 이른다. 이로써 네일을 다듬고 유지하며, 건강하게 보호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네일 관리의 총괄적인 의미라 할 수 있다.

네일아트는 네일 관리의 마지막 단계인 네일 폴리시를 바르는 과정에서 발전하여 추가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것으로, 고객의 성별, 연령, 목적, 개성 표현, 미적 욕구에 의해 실현되거나 생략될 수 있다. 네일아트를 크게 네일 관리의 범주 안으로 볼 수도 있지만, 개인적인 취향과 목적을 충족하며 기술성과 예술성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네일아트는 네일 관리의 본질적인 개념과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네일아트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김미원(2010)은 네일아트는 기술과 기능적 디자인을 포함하여 예술적 감성을 통해 네일의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행위<sup>17)</sup>로 보았고, 강해숙(2015)은 네일 재료를 활용하여 네일 디자인으로써 개성을 표현하는 예술 행위<sup>18)</sup>로 보았다. 더불어 편수명(2012)은 네일 관리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자기만족의 중요한 수단이자 개성 표현의 창조적 조형예술<sup>19)</sup>로 정리하였다. 또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14) 편수명(2012). “한국 전통소재를 이용한 네일아트의 전통성과 심미성에 관한 소비자 반응”, 조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9.

15) 강해숙(2015). 전계서, p.39.

16) 네일 폴리시(Nail polish)는 네일 에나멜(Nail enamel), 네일 래커(Nail lacquer), 네일 컬러(Nail color)라고도 하며, 손톱에 아름다운 색상을 부여하기 위해 바르는 유색의 화장제이다. (출처: 조슬아, 김수현, 김유정, 이경미(2013). 「네일아트美학」, 서울: 구민사, p.96.)

17) 김미원(2010). 전계서, pp.4-5.

18) 강해숙(2015). 전계서, pp.39-40.

Standards)<sup>20)</sup>에서는 2014년도에 네일 분야를 직무능력으로 구분하여 능력 단위로 개발하였고, 네일 관리와 네일아트 기법 등을 교육계와 산업계가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학습 모듈로 개정을 거듭하여 체계화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자는 네일아트를 네일 관리가 시술된 이후 외적 이미지의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고 미적 욕구 및 개성 표현을 충족하기 위한 기능적인 디자인 기술에 아티스트 감각의 예술성이 융합된 실용 예술로 보고, 네일아트 표현기법을 다음과 같이 접근하였다.

## 2) 네일아트의 표현기법

네일아트에 사용되는 재료와 도구들의 끊임없는 발달은 네일아트의 예술성을 높이는데 기여하였다<sup>21)</sup>. 또한, 효과적인 네일아트 기법의 실현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네일 디자인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다양한 분위기의 미적 표현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동안 네일아트의 표현범위는 네일 재료의 영향을 크게 받았으며, 기법의 분류에서도 사용재료에 비중을 두어 기법의 실현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네일 제품 시장의 확대와 네일아트 재료의 제품력 향상은 각각 사용하던 네일아트 재료의 혼용을 이끌어내며, 더욱 발전된 융합 네일 디자인을 이루게 하였다.

한편, 네일아트는 두 가지의 측면이 공존한다. 하나는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한 실용성을 추구하는 것과 또 하나는 순수 예술 측면에서 네일아트 작품으로써 예술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sup>22)</sup>. 하지만 추구하

---

19) 편수명(2012). 전계서, pp.9-10.

20) 국가직무능력표준은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기술·태도 등의 내용을 국가가 체계화한 것으로, 각 능력단위에 맞는 NCS 학습모듈을 개발하여 교육훈련기관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출처: NCS. [www.ncs.go.kr](http://www.ncs.go.kr) (검색일자: 2018. 4. 10))

21) 조미자(2011). “네일아트의 조형성과 오브제 확장에 관한 연구”, 광주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45.

22) 김미원(2010). 전계서, p.5.

는 예술성에 대한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네일아트에 사용되는 재료와 기법은 양측 모두 같은 범주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네일디자인 전개 시 필요한 평면 네일아트 기법과 입체 네일아트 기법을 중심으로 정리하였고, 네일의 길이를 연장하는 기법은 제외하였다. 또한, 국가직무능력표준에서 개발한 학습 모듈의 평면 네일아트와 입체 네일아트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네일아트 표현기법을 분류하였다.

### (1) 평면 네일아트 기법

평면 네일아트 기법은 네일 표면 위에 별도의 볼륨감이 없이, 동일한 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기법이다. 평면 네일아트 기법의 종류는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물감을 이용하여 직접적으로 그려내는 핸드페인팅 기법, 압축공기를 만드는 기기 사용이 필요한 네일 에어브러시 기법, 네일 폴리시를 이용하는 네일 폴리시 아트 기법,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평면 장식품을 활용하는 기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 ① 핸드페인팅

핸드페인팅(Hand painting)은 네일아트의 가장 기본적인 평면 기법으로, 아트용 브러시를 사용하여 손으로 직접 그려내는 기법<sup>23)</sup>을 통칭한다. <그림 1>, <그림 2>와 같이 표현하고자 하는 디자인을 그림으로 나타내려는 의도를 가지며 네일 일러스트레이션(Nail Illustration), 플랫 아트(Flat art)<sup>24)</sup>라고 부른다. 주로 사용되는 네일 재료로는 상온에서 건조되는 아크릴 물감이 있

---

23) 편수명(2012). 전계서, p.11.

24) 김미원(2010). 전계서, p.51.

다. 아크릴 물감은 뛰어난 내수성과 채색이 마른 후에는 물에 지워지지 않는 특성으로 핸드페인팅 네일 디자인에 적합한<sup>25)</sup> 재료이다.



<그림 1> 핸드페인팅 I

출처 : KOREA NAIL SALON TREND 3,  
2014, p.136, 조한솔 작



<그림 2> 핸드페인팅 II

출처 : KOREA NAIL SALON TREND 2,  
2011, p.24, 최선미 작

핸드페인팅은 기초적인 점, 선, 면을 이용한 디자인부터 원스트록(One stroke)<sup>26)</sup>, 세필, 수채화 디자인까지 다양하게 표현<sup>27)</sup>할 수 있다. 풍경, 꽃, 기하학적 무늬 등 구체적인 디자인에 따라 <그림 3>과 같이 핸드페인팅 기법의 네일아트 명칭이 다르게 파생되어 불리기도 한다. 특히, <그림 4>의 포크 아트(Folk art)<sup>28)</sup> 또는 톨 페인팅(Tole painting)으로도 불리는 아트는 유럽과 미국에서 시작한 민속 장식 공예의 한 기법으로 출발하여 네일아트에 도입되었다. 브러시 양 끝에 각각 다른 색상의 물감을 바른 후, 그라데이

25) 이명희(2008). “Nailpia에 게재된 Nail 작품 연구”, 용인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8.

26) 브러시를 이용하여 한 획으로 그어 표현하는 디자인으로, 베이직 스트로크(Basic stroke)라고도 한다. (출처: 권계희(2013). “포크아트 기법을 응용한 살롱 네일아트 디자인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원격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38.)

27) 국가직무능력표준. [www.ncs.go.kr](http://www.ncs.go.kr) (검색일자: 2018. 4. 11.)

28) 김학순(2013). “오리엔탈리즘을 모티브로 한 핸드페인팅과 젤 혼용 네일 테크닉 연구”,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27.

션 하여 그리는<sup>29)</sup> 특유의 브러시 기법 때문에 독자적인 아트 방법으로 분류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아크릴 물감을 주재료로 사용하는 포크 아트 역시도 손으로 직접 그리는 기본적인 평면 아트 기법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에 핸드 페인팅의 한 분야로써 큰 범주 안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3> 페이즐리 패턴 아트

출처 : KOREA NAIL SALON TREND 3,  
2014, p.198, 김미아 작



<그림 4> 포크 아트

출처 : NAIL UP KOREA Vol.5  
2009, p.79, 이형선 작

## ② 네일 폴리시 아트

네일 폴리시 아트(Nail polish art)는 유색의 네일 폴리시류를 사용하여 디자인 작업을 하는 아트 기법으로, 주로 사용되는 네일 재료는 일반 네일 폴리시, 젤 네일 폴리시, 통젤 네일 폴리시로 분류할 수 있다<sup>30)</sup>. 일반 네일 폴리시는 내장형 브러시를 가지고 있으며, 상온에서 자연 건조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림 5>와 <그림 6>이 일반 네일 폴리시를 이용한 네일아트

29) 김선희, 홍인선(2013). “네일아트 표현기법의 종류와 네일아트 샵 이용 실태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화장품미용학회*, 3(1), p.61.

30) 국가직무능력표준. [www.ncs.go.kr](http://www.ncs.go.kr) (검색일자: 2018. 4. 11.)

이다.



<그림 5> 일반 폴리시 아트 I

출처 : 봉숭아손톱 작품집 Vol.8  
2011, p.21, 김미원 작



<그림 6> 일반 폴리시 아트 II

출처 : KOREA NAIL SALON TREND 2,  
2011, p.93, 한민희 작

젤 네일 폴리시(Gel nail polish)와 통젤 네일 폴리시는 젤 네일 디자인을 하기 위한 네일 재료로 발색력과 젤의 점성, 내장형 브러시의 유무에 따라 구분한다. 우선, 네일 재료의 젤(Gel)은 분자나 원자보다 입자가 큰 콜로이드(Colloid)가 용액 속에서 반고체 상태로 응집되어 있는 것을 말하며<sup>31)</sup>, 젤 램프(Gel lamp)<sup>32)</sup>의 빛에 노출하여 광중합개시제(photo initiator)의 반응을 일으켜 단단하게 굳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sup>33)</sup>. 젤 네일 폴리시는 젤의 점성을 묽게 하여 병 용기에 담은 형태로, 내장형 브러시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고, 통젤 네일 폴리시는 안료의 배합을 더욱 높여 통 타입식의 용기에 담은 형태로 별도의 브러시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 특징이다<sup>34)</sup>. <그림

31) 김학순(2013). 전계서, p.33.

32) 젤 네일 경화를 위해 사용되는 젤 램프는 UV(자외선)램프와 LED램프로 분류한다. (출처: 김태영(2017). “젤 네일 제거 방법에 따른 손톱 주변 피부와 손톱의 손상도 비교”, 성신여자대학교 뷰티융합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9.)

33) 김미원(2016). “젤 네일의 트리트먼트 매뉴얼 개발과 적용 효과에 관한 연구”, 한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17.

7>은 병 용기에 담긴 젤 네일 폴리시를 이용한 네일아트이고, <그림 8>은 통젤 네일 폴리시를 이용한 네일아트이다.



<그림 7> 젤 폴리시 아트 I

출처 : [https://www.instagram.com/diami\\_sangmi\\_seo](https://www.instagram.com/diami_sangmi_seo)

/diami\_sangmi\_seo

(검색일자: 2018. 4. 12.)



<그림 8> 통젤 폴리시 아트 II

출처 : [https://www.instagram.com/diami\\_mikyung](https://www.instagram.com/diami_mikyung)

/diami\_mikyung

(검색일자: 2018. 4. 12.)

네일 폴리시 아트의 대표적인 기법으로는 마블이 있다. 마블(Marble)은 두 가지 이상의 색상이 섞여 물결 모양, 회오리 모양, 꽃 모양 등을 연출하는 방법이다<sup>35)</sup>. 일반 폴리시를 사용하는 마블 아트는 마블 툴(Marble Tool)을 이용하여 직접적으로 색들을 혼합하는 <그림 9>의 컬러 마블(Color marble)과 물 위에 떨어뜨려 퍼짐 현상을 이용하는 <그림 10>의 워터 마블(Water marble)<sup>36)</sup>로 구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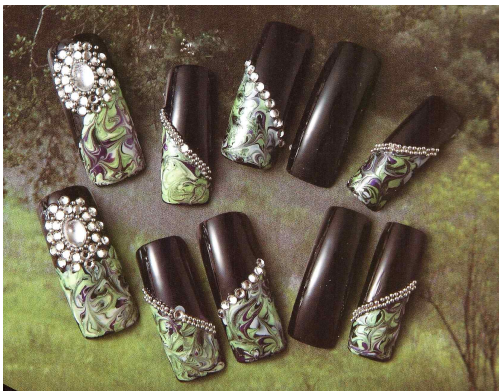
젤 네일 폴리시를 사용하는 젤 마블(Gel marble)은 색 대비를 이용하거나 브러시의 움직임으로 인한 효과를 통해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sup>37)</sup>할 수 있

34) 도윤희(2016). “UV젤 네일 기술이 손톱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원격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27-28.

35) 김영옥, 김신희, 정연자(2013). 「The Nail Art」, 서울: 예림, p.208.

36) 김학순(2013). 전개서, p.44.

다. 또한, 투명한 클리어젤이나 베이스젤 위에 컬러 젤을 떨어뜨려 자연스럽게 퍼지는 현상을 이용해 블러(Blur)효과나 대리석과 같은 느낌을 표현할 수 있다. 젤 네일 폴리시는 일반 네일 폴리시와는 달리 상온에서 굳지 않는 특성으로, 마블 외에 보다 더 직접적인 디자인을 연출 할 수 있고 통젤 네일 폴리시는 흐르지 않는 제형과 선명한 발색력으로 세밀한 디자인까지도 표현할 수 있다.



<그림 9> 컬러 마블

출처 : KOREA NAIL SALON TREND 1,  
2008, p.96, 김연우 작



<그림 10> 워터 마블

출처 : KOREA NAIL SALON TREND 1,  
2008, p.97, 이주영 작

### ③ 네일 에어브러시

네일 에어브러시(Nail Airbrush) 기법은 공기를 압축해주는 기기인 컴프레서(Compressor)와 물감을 분사시키는 에어브러시 건(Airbrush Gun)을 사용하여 표현하는 방법으로, 다른 기법에 비해 단시간 내에 디자인이 완성된다는 장점이 있는 아트 기법이다<sup>38)</sup>. 압축공기에 의한 물감 분무는 자연스러

37) 김은숙(2015). “스칸디나비안 텍스타일을 응용한 젤 네일아트 디자인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 21(3), p.187.

38) 박은주(2014). 「네일 디자인」, 서울: 청담미디어, p.172.

운 화면도색, 섬세한 선의 표현, 매끄러운 그라데이션 등을 쉽게 이루어지게 한다<sup>39)</sup>. 또한, 간단한 디자인부터 <그림 11>과 같이 스텐실 제작을 통한 반복 디자인 혹은 <그림 12>와 같은 여러 번 겹치는 디자인까지도 두께감 없이 표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림 11> 에어브러시 아트 I

출처 : KOREA NAIL SALON TREND 1,  
2008, p.28, 최원영 作



<그림 12> 에어브러시 아트 II

출처 : NAIL DESIGN ADVANCE  
2011, p.116, 조화정 作

#### ④ 평면 장식물 아트

평면 장식물 아트는 손톱 위에 평면으로 접착할 수 있는 네일 장식물을 활용하여 디자인하는 방법으로, 종류에는 네일 전용 필름, 네일 스티커 등이 있다<sup>40)</sup>. 네일 필름(Nail Film)은 매우 얇은 홀로그램 호일 필름<sup>41)</sup>으로써 손톱 위의 전체 혹은 부분적으로 부착하여 연출할 수 있는 평면 장식물이다. 별도의 네일 접착제(Nail Glue)를 사용하여 부착할 수도 있고, 젤과 함께 사

39) 최선미, 박영선(2010). “에어브러쉬를 이용한 네일아트 표현기법에 관한 연구: 초현실주의 표현을 중심으로”, *한국의상디자인학회, 한국의상디자인학회 학술대회*, p.129.

40) 국가직무능력표준. [www.ncs.go.kr](http://www.ncs.go.kr) (검색일자: 2018. 4. 11.)

41) 다이아미. <http://diamishop.com> (검색일자: 2018. 4. 12.)

용하면 별도의 접착제 없이 <그림 13>과 같이 미러(Mirror)효과, 메탈(Metal)효과, 유리 조각 느낌의 디자인 표현이 가능하다. 네일 스티커(Nail sticker)는 한 면에 디자인이 인쇄되어 있고, 다른 한 면에는 접착제가 붙어 있어 <그림 14>와 같이 그대로 떼어 팁에 부착하여 디자인하면 된다. 종류에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부착식 스티커와 물에 불려서 사용하는 워터 데칼(Water decal) 스티커로 구분한다. 평면 장식물 아트는 장식물의 사용법 숙지만으로도 충분히 네일 디자인을 연출할 수 있고, 두께감이 크지 않아 다른 재료와의 혼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림 13> 네일 필름 아트  
출처 : [www.daimishop.com](http://www.daimishop.com)

(검색일자: 2018. 4. 12.)



<그림 14> 네일 스티커 아트  
출처 : [https://www.instagram.com/handodo\\_y](https://www.instagram.com/handodo_y)

(검색일자: 2018. 5. 2.)

## (2) 입체 네일아트 기법

입체 네일아트 기법은 젤과 아크릴을 활용하여 디자인에 볼륨감을 주거나 조형물을 만들어서 표현하는 아트 기법이다. 입체 네일아트의 종류로는 2D 입체기법, 3D 입체기법,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입체 장식물을 활용하는 기

법으로 구분 할 수 있다.

### ① 2D 입체아트

2D(Two-Dimension) 입체아트는 아크릴(Acrylic)<sup>42)</sup> 제품이나 젤을 이용하여 울퉁불퉁한 느낌의 반 입체적인 디자인을 표현하는 기법<sup>43)</sup>이다. <그림 15>와 같이 네일 표면 위에서 직접 2D 입체 디자인을 만들 수도 있고, 네일 표면의 능선에 맞추어 제작하여 부착할 수도 있다. 3D 입체아트와의 차이점은 네일 위에 디자인의 한쪽 면이 밀착을 한다는 점에서 네일 표면과 틈이 없게 디자인이 된다는 점이다. 디자인의 굴곡과 볼륨감에 따라 입체감의 차이를 보이는 아트 기법이다.

### ② 3D 입체아트

3D(Three-Dimension) 입체아트는 가는 철사(Wire)와 같은 뼈대를 넣어 아크릴이나 젤을 덧대어 원하는 디자인의 조형물을 만들어 표현하는 기법이다. <그림 16>과 같이 창작성과 예술성이 돋보이는 아트 방법으로 실제 모양과 흡사하게 디자인을 연출<sup>44)</sup>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양한 재료의 혼용과 정교한 작업을 동반함으로써 네일 대회, 네일 쇼에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sup>45)</sup>. 3D 입체아트는 디자인에 따라 크기와 모양이 다르고 접착 면이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네일 표면에 부착 시, 접착제 선정과 적절한 접착 방

---

42) 아크릴 제품은 액체 아크릴 리퀴드(Acrylic Liquid)와 아크릴 파우더(Acrylic powder)의 적절한 혼합으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리퀴드와 파우더의 적절한 배합에 의한 볼을 이용하여 여러 모양을 만들 수 있다. (출처: 김영옥, 김신희, 정연자(2013). 「The Nail Art」, 서울: 예림, pp.141-143.)

43) 강해숙(2015). 전계서, p.44.

44) 주란(2003). “여대생의 얼굴화장과 손톱화장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원격향장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6.

45) 남궁수(2014). 전계서, p.27.

법을 필요로 한다.



<그림 15> 2D 입체 아트

출처 : [https://www.instagram.com/coco\\_star\\_nail](https://www.instagram.com/coco_star_nail)  
(검색일자: 2018. 5. 26.)



<그림 16> 3D 입체 아트

출처 : <https://nailbees.com/crazy-nail-designs>  
(검색일자: 2018. 5. 30.)

### ③ 입체 장식물 아트

입체 장식물 아트는 네일 표면 위에 기성품으로 시판되는 2D, 3D 입체 장식물을 활용하여 디자인하는 방법으로 인조보석, 네일파츠, 땡글 등이 있다. 인조보석은 라인스톤(Rhine stone)이라고도 명칭하며, 빛깔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크기와 색상의 큐빅을 말한다. 평면 디자인과 입체 디자인 모두 응용이 가능하며, 화려함과 고급스러움을 연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네일 파츠(Nail parts)는 <그림 17>과 같이 도형·리본·나비·꽃 등 다양한 모양으로 제작된 입체 네일 장식물이다. 땡글(Dangle)은 네일아트용 고리의 일종으로, 네일에 작은 구멍을 내어 걸어서 사용하는 장식물이다. <그림 18>과 같이 네일 표면에 부착된 파츠 장식이나 인조보석에 걸어서 연출할 수도 있다. 입체 장식물은 네일 디자인의 화려하고 세련된 느낌을 주는 아

트 기법이지만, 생산된 기성품을 그대로 사용해야 하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어 재료 자체의 변형<sup>46)</sup>은 불가능하다.



<그림 17> 네일 파츠 아트

출처 : KOREA NAIL SALON TREND 3,  
2014, p.215, 성민정 作



<그림 18> 뎅글 아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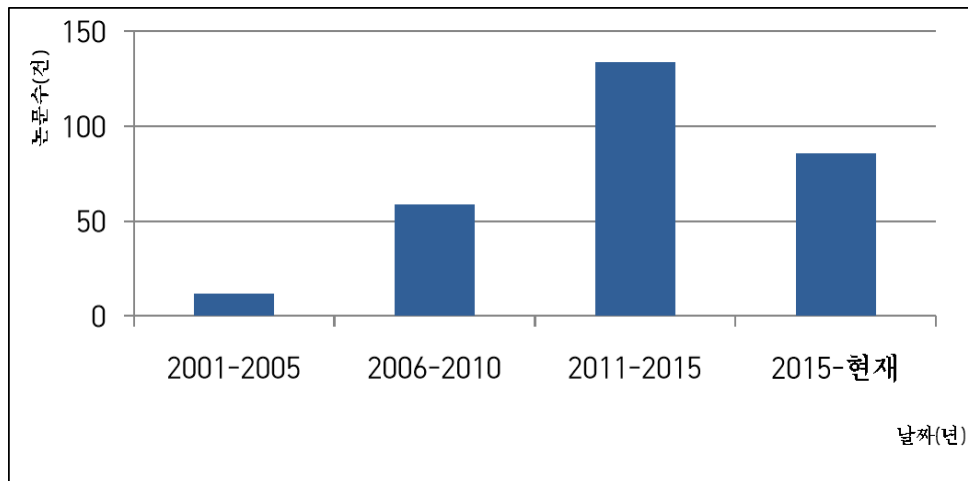
출처 : [http://www.instagram.com/bsa\\_yumvely](http://www.instagram.com/bsa_yumvely)  
(검색일자: 2018. 4. 15.)

### 3) 네일아트 관련 선행연구

네일아트 연구 논문은 1999년 미용학교와 미용학원 등에서 네일 전문 교육 연구가 이루어졌으며<sup>47)</sup>, 2000년대부터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에 의하면 <그림 19>와 같이 2011년에서 2015년 사이에 가장 많은 연구가 시행되었고 이후로도 꾸준히 네일아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중 국내 네일아트 디자인에 대한 연구는 전체 네일 관련 연구의 50% 이상을 차지하며 가장 활발하게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의복과 접목한 네일아트 디자인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46) 편수명(2012). 전게서, p.12.

47) 이승용(2012). “네일아트의 미적 특성과 입체 디자인 작품 연구”, 대구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4.



<그림 19> 네일아트 분야 학위논문 연구 수  
(출처 : <http://www.riss.kr>)

다음 <표 2>는 의복과 접목한 네일아트 분야의 선행 연구를 정리한 표이다.

<표 2> 의복과 접목한 네일아트 선행 연구 (2000년부터 2018년까지)

연구 년도	저 자	제 목
2012	김도현	패션컬렉션지에 나타난 이미지별 네일디자인 연구
2013	김기현	기모노 문양을 활용한 네일아트 디자인 연구
2013	이현경	바로크 양식이 표현된 2013 F/W 패션트렌드를 반영한 네일아트 디자인 개발
2014	김묘현	샤넬의 패션 스타일을 모티브로 한 네일 디자인 연구
2014	남궁수	패션 소재를 이용한 네일아트 디자인
2014	이순영	한국 전통문양 모티브를 적용한 웨딩네일아트 선호도에 관한 연구
2015	강해숙	근세 한·일 예복에 나타난 문양을 활용한 네일 디자인 연구

2015	김미경	Dries Van Noten의 2014 F/W Paris collection에 나타난 지오메트릭 패턴을 적용한 네일 디자인 선호도 연구
2017	윤희주	패션이미지에 따른 네일아트 디자인 연구
2017	조양현	2017년 패션 트렌드에 따른 네일 디자인 연구

의복을 접목한 네일아트 디자인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패션 이미지를 활용하거나 패션 컬렉션의 트렌드 혹은 특정 디자이너의 스타일을 반영하여 접목한 연구가 있다. 김도현(2012)은 패션 컬렉션에서 나타난 의상 이미지를 분석하여 사용빈도가 높은 6가지 패션 이미지로 네일아트 디자인을 연구<sup>48)</sup>하였고, 윤희주(2017)는 선행 연구 고찰을 통해 빈도가 높은 5가지 패션 이미지로 네일아트 디자인을 연구<sup>49)</sup>하였다. 조양현(2017)은 4대 패션 컬렉션의 특징을 분석하여 10가지의 패션 트렌드 키워드를 도출하여 네일아트 디자인을 연구하였다. 특정 디자이너의 스타일을 분석한 네일아트 디자인 연구에는 샤넬 패션 스타일을 접목한<sup>50)</sup> 김묘현(2014)의 연구와 드리스 반 노트 패션 스타일의 지오메트릭 패턴을 접목한<sup>51)</sup> 김미경(2015)의 연구가 있다. 또한, 이현경(2013)은 돌체 앤 가바나의 2013 F/W 패션컬렉션에서 보여진 바로크 양식의 특징을 접목하여 네일아트 디자인<sup>52)</sup>을 연구하였다. 의복에 사용되는 소재로 접근한 남궁수(2014)는 7가지의 패션 소재를 분석하고 이를 응용한 네일아트 디자인 연구<sup>53)</sup>를 하였다.

동양의 의복으로 접근하여 네일아트 디자인에 접목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

48) 김도현(2012). 전계서, pp.27-30.

49) 윤희주(2017). 전계서, pp.52-53.

50) 김묘현(2014). “샤넬의 패션 스타일을 모티브로 한 네일 디자인 연구 : 2008~2014 컬렉션을 중심으로”, 동명대학교 복지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63.

51) 김미경(2015). “Dries Van Noten의 2014 F/W Paris collection에 나타난 지오메트릭 패턴을 적용한 네일 디자인 선호도 연구”, *한국미용예술경영학회지*, 9(2), p.17.

52) 이현경(2013). “바로크 양식이 표현된 2013 F/W 패션트렌드를 반영한 네일아트 디자인 개발”, 가천대학교 스포츠문화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53.

53) 남궁수(2014). 전계서, p.3.

면, 이순영(2014)은 한국 전통 혼례복에 사용되거나 결혼식의 상징성에 부합하는 한국 전통문양 4가지를 도출 후 웨딩 네일아트 디자인으로 접목하여 선호도를 연구<sup>54)</sup>하였고, 김기현(2013)은 일본의 전통 의복인 기모노에 사용된 문양을 활용하여 네일아트 디자인<sup>55)</sup>을 연구하였다. 강해숙(2015)은 한·일 궁중 예복을 비교하여 한국 조선시대의 활옷과 일본 에도시대의 우치카케에 나타난 문양을 통해 네일아트 디자인 연구에 접목<sup>56)</sup>하였다.

이와 같이, 의복과 접목된 네일아트 디자인 관련 연구는 패션 컬렉션을 중심으로 이미지별 혹은 특정 패션 디자이너의 스타일을 활용한 연구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의복 소재를 접목하거나 전통 동양 의복을 접목한 연구는 나타났으나 서양 의복을 접목한 연구는 미비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디자인으로 활용되는 모티브가 중요한 네일아트 디자인 연구에서는 디자인 접목이 비교적 쉬운 문양을 활용한 네일아트 작품 표현이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 2. 의복 트리밍

의복은 한 시대의 미적 기준을 바탕으로 특유의 양식을 형성하며 의복의 장식 또한 그 시대의 정신 및 사상, 감정, 미적 가치를 함께 표현한다<sup>57)</sup>. 또한, 의복 장식은 의복의 실용적인 면을 보완해주며 장식으로써 미적 표현의 수단으로 의복의 가치와 개성을 더욱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sup>58)</sup>. 의복에서 장식은 장신구로 장식하는 방법과 의복이 구성되는 과정 혹은 구성이 끝난 후

---

54) 이순영(2014). 전계서, pp.31-32.

55) 김기현(2013). 전계서, p.67.

56) 강해숙(2015). 전계서, pp.4-5.

57) 손효림(2017). “여성 복식 장식에 관한 연구: 18세기부터 20세기까지”, 부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8-9.

58) 이순홍(2003). “서양 복식사에 나타난 의상장식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학회*, 11(1), p.23.

에 덧붙여지는 방법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sup>59)</sup>. 전자는 모자, 장갑, 신발, 가방 등의 부속품으로 장식하는 방법을 의미하며 후자는 의복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 의복을 장식할 목적으로 사용되는<sup>60)</sup> 디테일과 트리밍을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는 의복 장식을 후자의 개념으로 접근하여, 의복 장식의 한 종류이자 논문 주제에 모티브가 되는 트리밍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 1) 트리밍의 개념

트리밍(Trimming)은 ‘장식하다’, ‘다듬다’ 등의 뜻으로 복식에서는 의복을 정비하기 위하여 장식하는 전문용어<sup>61)</sup>로 알려져 있다. 완성된 의복에 미적인 목적을 위해 세부 장식을 별도로 만들거나 이미 제작된 장식을 필요에 따라 원하는 위치에 부착하는 형태를 의미한다<sup>62)</sup>. 이는 형태적인 측면에서 시각적인 쾌감을 주고, 심리적인 측면에서는 공포와 불안감에 대한 보호 수단으로 적용되며 상징적 측면으로써는 부와 명예의 과시를 담고 있다<sup>63)</sup>. 간혹, 의복 장식 기법 중 디테일(Detail)을 트리밍과 같은 의미로 혼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디테일은 봉제과정에서 원단으로 만들어져 의복의 봉제선에 장식되는 반면에 트리밍은 만들어진 장식을 의복에 부착하는 점<sup>64)</sup>에서 확연한 방법의 차이가 있다. 트리밍은 전체적인 의복의 구성상 반드시 필요한 요소는 아니지만 의복 디자인의 미적 표현을 돕고 덧붙이는 효과<sup>65)</sup>로 인한

---

59) 이은영(2003). 「복식 의장학」, 서울: 교문사, p.271.

60) 이순홍(2003). 전계서, p.23.

61) 두산백과. [www.doopedia.co.kr](http://www.doopedia.co.kr) (검색일자: 2018.04.08.)

62) 손효림(2017). 전계서, p.11.

63) 이경옥(2009). “부착 장식 기법에 의한 패션 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5.

64) 유송옥(1995). 「복식 의장학」, 서울: 수학사, pp.85-116. (박수연(2010). “로코코시대 복식의 트리밍을 응용한 아동 예복 디자인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4. 재인용)

65) 송부희(2007). “근세복식에 나타난 장식변천 및 의복의 음·양 이미지와 장식과의 연관성”,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5.

긍정적 변화를 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트리밍은 대체적으로 독특한 재질로써 옷감과 재질대비를 이루며<sup>66)</sup>, 시대적인 특징을 담아 다양한 형태와 종류로 의복에 사용되고 있다.

다음은 선행 연구들을 통해 트리밍의 종류를 구분하였다. 이순홍(2003)은 트리밍을 복식 장식으로 접근하여 크게 구조적인 장식과 응용장식으로 구분하였다. 응용장식은 형태에 따라 다시 세 분류로 구분하는데, 직선적 장식에는 태슬·프린지·코드 등이 있고, 곡선적 장식에는 자수·레이스·루싱·스팽글 등으로 분류하였고, 마지막으로는 이 둘을 조합한 혼합적 장식으로 트리밍을 구분<sup>67)</sup>하였다. 조정문(2006)은 복식에 장식적 디자인의 유형으로 디테일과 트리밍을 구분하였고, 트리밍의 종류로는 브레이브, 프린징과 태슬, 스팅글과 비드, 모피, 리본, 레이스, 코사지와 로제티 등으로 분류<sup>68)</sup>하였다. 이경옥(2009)은 부착 장식으로 트리밍을 칭하며, 동일(유사)재료 부착과 이질 재료 부착으로 트리밍을 구분하였다. 동일(유사)재료 부착으로는 패치워크와 애플리케이션이 있고, 이질재료 부착으로는 비즈, 시퀸, 테이프, 브레이드, 파이핑, 스테드, 단추, 모피 등으로 분류<sup>69)</sup>하였다. 박수연(2010)은 장식의 성격에 따라 트리밍을 별도로 의복에 첨부되는 장식으로 구분하였다. 트리밍의 종류로는 프린징, 태슬, 코사지와 로제티, 스팅글과 비드, 브레이드, 리본 등으로 분류<sup>70)</sup>하였다. 차혜인(2012)은 장식의 구조 형태에 따라 구분하여 봉제에 의한 장식, 부착에 의한 장식, 혼합적 장식으로 분류하였다. 봉제에 의한 장식은 다시 소재 표면의 변형, 소재와 소재의 결합으로 세분화하였고, 부착에 의한 장식은 고정적 부착, 유동적 부착, 기타 부착으로 구분하였

66) 이은영(2003). 전계서, p.278.

67) 이순홍(2003). 전계서, pp.23-25.

68) 조정문(2006). “로코코시대의 여성복식을 응용한 의상디자인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37-39.

69) 이경옥(2009). “부착 장식 기법에 의한 패션 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5-17.

70) 박수연(2010). “로코코시대 복식의 트리밍을 응용한 아동 예복 디자인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24-27.

다. 또한 혼합적 장식은 혼합 재료 비딩, 원단 모티프 부착, 기타 혼합적 장식  
 식으로 분류<sup>71)</sup>하였다. 손효림(2017)은 트리밍을 주름 장식, 봉제 장식, 부착  
 장식의 세 유형으로 나누어 분류하였다. 주름 장식에는 개더, 플리츠, 드레  
 이프가 있고, 봉제 장식에는 평면 자수, 입체 자수가 있으며 부착 장식으로  
 는 리본, 브레이드, 프린지, 버튼, 시퀀과 비즈, 깃털과 모피로 분류<sup>72)</sup>하였다.  
 다음 <표 3>은 트리밍의 유형 분류에 관한 위의 선행연구 내용을 정리한  
 표이다.

<표 3> 선행연구에 나타난 트리밍의 유형

연구자	분류 기준	트리밍의 유형	
이순홍 (2003)	구조 및 형태	구조적 장식	네크라인, 칼라, 소매, 커프스, 단추, 주머니
		응용적 장식	직선적 장식 - 슬릿, 밴드트리밍, 태슬, 프린지, 코드, 퀴팅, 브레이드, 핀턱, 파이핑, 바인딩, 패치워크, 플리츠, 파고팅, 퍼, 직선형 레이스
			곡선적 장식 - 드레이프, 대강, 자수, 레이스, 프릴, 루싱 플 라운스, 보우, 스팅글, 러플, 스켈럽, 에뮬렛, 개더, 셔링, 추상적 무늬의 퀴팅, 페플럼, 단추
혼합적 장식 - 자수 + 밴드트리밍, 프릴 + 바인딩, 레이스 + 바인딩			
조정문 (2006)	장식적 디자인의 유형	트리밍	브레이드, 프린징과 태슬, 스팅글과 비즈, 모피, 리본, 레이스, 코사쥐와 로제티, 단추, 어플리케

71) 차혜인(2012). “1990년대 이후 복식에 나타난 장식 유형과 기법 분석: 벨플린의 시형식을  
 바탕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32-74.

72) 손효림(2017). 전계서, p.46.

이경옥 (2009)	부착 장식 기법	동일 (유사) 재료 부착	패치워크, 아플리케
		이질 재료 부착	비즈, 시퀀(스팽글), 테이프, 브레이드, 파이핑, 스타드 장식, 단추, 모피, 깃털
박수연 (2010)	장식의 성격	트리밍	프린팅, 테슬, 코사지와 로제티, 스팅글과 비즈, 브레이드, 리본, 레이스, 단추, 아플리케, 코드(자수)
차혜인 (2012)	장식유형 및 방법	봉제에 의한 장식	소재 자체 표면 변형 - 주름, 턱·핀턱, 오리가미, 꼬집기, 서링·개더·스모킹, 퀼팅·코딩, 자수, 장식 스티치, 프린트, 슬래쉬, 펀칭, 컷워크, 원단끝처리
			소재와 소재의 결합 - 패치워크, 니트, 레이스, 모피, 워빙, 바인딩·파이핑, 프릴·리플·플라운스·루시, 패고팅, 레이스 업, 지퍼
		부착에 의한 장식	고정적 부착 - 비즈, 스팅글, 기타 아크릴, 크리스탈, 스타드, 아일렛, 핫픽스, 거울·동전, 옷핀·걸고리·단추, 링, 리본, 견장·엠블럼, 금속 주조, 와이어, 브레이드, 기타 테이프 장 식, 아플리케
			유동적 부착 - 깃털, 타슬, 프린팅
			기타 부착 - 테이프, 니트사, 코드사, 체인
		혼합적 장식	혼합 재료 비딩
원단 모티프 부착			
기타 혼합적 장식			
손효림 (2017)	장식유형 및 방법	주름 장식	개더, 플리츠, 드레이프
		봉제 장식	평면 자수, 입체 자수
		부착 장식	리본, 브레이드, 프린지, 버튼, 시퀀과 비즈, 깃털과 퍼

위의 선행 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자는 기성품과 같은 형태로 이미 만들어져 있는 의복 장식을 부착한다는 개념에서 트리밍을 아플리케, 코드, 브레이드, 레이스, 리본, 비즈, 시퀸, 코사지, 프린지와 태슬, 단추로 분류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 2) 트리밍의 유형

### (1) 아플리케

아플리케(Appliqué)는 프랑스어로 ‘~에 붙이다, ~에 달다’라는 뜻으로, 어원은 라틴어 ‘applicare’에 있다<sup>73)</sup>. <그림 20>과 <그림 21>과 같이 주로 바닥 천 위에 다른 무늬의 천이나 가죽 등을 적당한 형태로 잘라서 덧대어 깎거나 붙이는 형태의 의복 트리밍이다<sup>74)</sup>. 초기의 아플리케는 오래되고 낡은 천을 덧거나 보강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sup>75)</sup>되었으나 이후 미적인 용도의 의복 장식으로 발전하였다. 아플리케의 종류로는 기본 아플리케(Standard appliqué)와 반대로 여러 겹의 천을 겹쳐 맨 위쪽 천을 패턴대로 잘라내 잘린 부분을 통해 뒤에 겹쳐있는 다른 천이 드러나도록 하는 리버스 아플리케(Reverse appliqué), 비치는 소재의 얇은 천을 덧대어 표현하는 섀도우 아플리케(Shadow appliqué) 등이 있다<sup>76)</sup>. 아플리케에 사용되는 천들은 서로 색감과 균형이 조화롭게 어울리는지 고려해야 하며, 아플리케 용도로 모체가 되는 천은 신축성이 적고 두께가 얇지 않는 것이 좋다<sup>77)</sup>. 또한 다양한 색상의 실이나 금은사 등으로 주로 장식하는 아플리케 자수도 미적 효과

73) 조규화, 이희승(2004). 「패션미학」, 서울: 수확사, p.358.

74) 두산백과. [www.doopedia.co.kr](http://www.doopedia.co.kr) (검색일자: 2018. 4. 15.)

75) 조규화, 이희승(2004). 전계서, p.358.

76) 이경옥(2009). 전계서, p.9.

77) 두산백과. [www.doopedia.co.kr](http://www.doopedia.co.kr) (검색일자: 2018. 4. 15.)

가 뛰어나며 코드 트리밍과 유사하다.



<그림 20> 아플리케 I

출처 : <https://www.google.com>

(검색일자: 2018. 4. 13.)



<그림 21> 아플리케 II

출처 : <https://www.google.com>

(검색일자: 2018. 4. 13.)

## (2) 코드

코드(Cord)는 <그림 22>와 같이 단단하게 꼬아진 실을 말하는 것<sup>78)</sup>으로, 다채로운 색상과 굵기의 실을 이용하여 꽃무늬나 다양한 문양 등을 마치 그림을 그린 듯 표현<sup>79)</sup>하는 트리밍이다. 코드 트리밍은 직물 표면에 입체적인 효과나 텍스처를 부여하기 위해 코드사를 직물 표면에 부착하는 방식<sup>80)</sup>으로 장식한다. 코드는 의복의 트리밍으로 가는 끈을 사용했던 것을 시작으로 현대에 들어와서는 <그림 23>과 같은 레이스 코드나 퀼팅(Quilting) 코드, 툴레이스(Tulle lace)<sup>81)</sup> 코드 등과 병용<sup>82)</sup>하여 폭넓게 쓰이고 있다.

78) 정인희(2012). 「패션장식」, 경기: 교문사, p.3.

79) 박수연(2010). 전계서, p.27.

80) 정인희(2012). 전계서, p.3.

81) 툴지의 위에 무늬를 넣은 레이스로 드레시한 분위기를 지니고 있어 각테일 드레스나 이브닝 드레스에 주로 사용된다. (출처: Naver. [www.naver.com](http://www.naver.com) (검색일자: 2018. 4. 13))

82) Naver. [www.naver.com](http://www.naver.com) (검색일자: 2018. 4. 13)



<그림 22> 코드

출처 : <https://www.google.com>

(검색일자: 2018. 4. 13.)



<그림 23> 레이스 코드

출처 : <http://www.pinterest.co.kr>

(검색일자: 2018. 4. 13.)

### (3) 브레이드

브레이드(braid)는 촘촘하게 짜거나 좁게 엮어 만든 끈을 말하며 모양, 넓이, 색상 등 다양하다<sup>83)</sup>. 브레이드의 종류는 둥근형, 평형, 주머니형 등 다양하며 톱니 형태의 브레이드는 우븐 브레이드(Woven braid)<sup>84)</sup>라고 칭한다. 주로 <그림 24>, <그림 25>와 같이 옷깃(collor), 네크라인, 앞단, 포켓 둘레 등 의복의 구성 선을 따라 외곽 부분을 둘러 주어 장식한다<sup>85)</sup>. 브레이드는 재질감이 독특하여 재질대비를 이루기 때문에 대부분 유사 색상으로 의복에 사용하나 강한 강조를 표현하고자 할 때는 대비 색상을 사용하기도 한다<sup>86)</sup>. 현대의 브레이드는 수트의 가장자리 장식<sup>87)</sup>에도 많이 사용된다.

83) 이경희(2002). 「패션 디자인 발상」, 서울: 교문사, p.59.

84) 조규화, 이희승(2004). 전계서, p.359.

85) 조정문(2006). 전계서, p.37.

86) 이은영(2003). 전계서, p.278.

87) 이경희(2002). 전계서, p.59.



<그림 24> 브레이드 I

출처 : <http://www.pinterest.co.kr>

(검색일자: 2018. 4. 13.)



<그림 25> 브레이드 II

출처 : <http://www.pinterest.co.kr>

(검색일자: 2018. 4. 13.)

#### (4) 레이스

레이스(Lace)는 <그림 26>과 같이 얇은 실 같은 것을 그물코에 엮어내며 무늬를 형성<sup>88)</sup>해 나가는 가벼운 반투명의 의복 소재이다. 레이스 트리밍은 레이스 천이나 혹은 천에서 윤곽선이 또렷한 무늬를 오려내어 원하는 부위에 붙여 장식하거나<sup>89)</sup> <그림 27>과 같이 의복 끝단에 둘러 포인트를 주는 방식<sup>90)</sup>으로 사용한다.

88) 박수연(2010). 전계서, p.27.

89) 이경희(2002). 전계서, p.60.

90) 코하스 소잉스토리 사업부(2011). 「소잉 부자재 가이드 BOOK」, 광주: 코하스 소잉스토리 사업부, p.77.



<그림 26> 레이스 I

출처 : <http://www.doopedia.co.kr>

(검색일자: 2018. 4. 13.)



<그림 27> 레이스 II

출처 : <https://www.pinterest.co.kr>

(검색일자: 2018. 4. 13.)

## (5) 리본

리본(Ribbon)은 실크, 비단, 화학섬유, 공단직, 벨벳 등의 직물로 만들어진 좁은 띠의 형태<sup>91)</sup>로, 가장자리 테두리가 꼬여 있어 풀리지 않도록 되어 있는<sup>92)</sup> 의복 장식이다. 리본 트리밍은 <그림 28>, <그림 29>와 같이 끈의 굵기와 너비, 색상 조화, 소재의 종류, 매듭의 당김 정도에 따라 입체적 표현과 시각적 효과가 다양하다<sup>93)</sup>. 또한, 옷을 여미기 위한 기능적인 용도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의복 장식으로써 부착하는 위치에 따라 시선을 집중하는 효과가 있으며, 의복에서 여성미를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더욱 부각시키는 장점이 있다.

91) 두산백과. [www.doopedia.co.kr](http://www.doopedia.co.kr) (검색일자: 2018. 4. 13.)

92) 조정문(2006). 전계서, p.37.

93) 민소정(2007). “빅토리아 시대 패션 스타일을 응용한 여아 드레스 디자인 연구: 실크리본자수기법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42.



<그림 28> 리본 I

출처 : <https://www.pinterest.co.kr>

(검색일자: 2018. 4. 13.)



<그림 29> 리본 II

출처 : <https://www.pinterest.co.kr>

(검색일자: 2018. 4. 13.)

## (6) 비즈

비즈(Beads)는 <그림 30>과 같이 실췌는 구멍이 있는 유리 혹은 도자기 재질의 장식용 작은 구슬<sup>94)</sup>을 의미한다. 비즈는 장식 분야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고, 정교한 수작업을 요한다. 또한 비즈 표면의 광택 효과나 다채로운 색상들을 조합하여 부착하면 <그림 31>과 같은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으며, 장식을 넘어 색다른 느낌의 디자인으로써 역할을 하기도 한다<sup>95)</sup>.

94) Naver. [www.naver.com](http://www.naver.com) (검색일자: 2018. 4. 13)

95) 이경옥(2009). 전계서, p.11.



<그림 30> 비즈 I

출처 : <https://www.pinterest.co.kr>

(검색일자: 2018. 4. 13.)



<그림 31> 비즈 II

출처 : <https://www.pinterest.co.kr>

(검색일자: 2018. 4. 13.)

## (7) 시퀸

시퀸(Sequin)은 <그림 32>, <그림 33>과 같이 원형의 작은 금속 장식으로 광택이 화려하고 보는 각도에 따라 색상이 달라 보이는 의복 장식이다<sup>96</sup>). 시퀸 트리밍은 영어로 스팅글(Spangle)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납작한 평면 모양부터 약간의 굴곡이 있는 모양이나 꽃 모양, 잎 모양, 조개 모양 등 여러 형태와 색채가 있다<sup>97</sup>). 시퀸도 비즈와 같은 방식으로 의복에 꿰어 장식할 수 있다.

## (8) 코스지

코스지(Corsage)는 <그림 34>, <그림 35>와 같이 레이스나 직물 등을 이용하여 꽃송이 모양으로 만든 것을 의복에 부착하여 장식<sup>98</sup>)하는 것이다.

96) 이경희(2002). 전계서, p.61.

97) 이경옥(2009). 전계서, p.12.

네크라인, 팔목, 허리 등에 장식하거나 의복에 부착하는 용도로는 작고 가벼운 소재로 제작하여 장식한다.



<그림 32> 시퀸 I

출처 : <https://www.pinterest.co.kr>  
(검색일자: 2018. 4. 13.)



<그림 33> 시퀸 II

출처 : <https://www.pinterest.co.kr>  
(검색일자: 2018. 4. 13.)



<그림 34> 코사지 I

출처 : <http://vladikana.gallery.ru>  
(검색일자: 2018. 4. 13.)



<그림 35> 코사지 II

출처 : <http://vestidoslindosatelier.tumblr.com>  
(검색일자: 2018. 4. 13.)

---

98) 관결순, 이지현, 노윤선(2007). “로코코 양식을 응용한 패션디자인 연구”, *한국디자인학회, 한국디자인학회 국제학술대회 논문집*, p.230.

### (9) 프린지와 태슬

프린지(Fringe)는 <그림 36>과 같이 천의 가장자리에 부착하는 장식 술을 지칭하며, 바탕 천의 가장자리가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의복 트리밍이다<sup>99)</sup>. 태슬(Tassel) 역시 장식 술이라는 의미<sup>100)</sup>로 프린지와 비슷한 의복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프린지와 태슬은 여성 의복 중 어깨에 걸치는 술 혹은 스톨이나 케이프 끝에 방울 모양의 털실로 장식할 수 있으며, <그림 37>과 같이 가죽에 직접 절개를 넣거나 울을 빼는 방식<sup>101)</sup>으로 장식하기도 한다.



<그림 36> 프린지와 태슬 I

출처 : <https://www.pinterest.co.kr>

(검색일자: 2018. 4. 13.)



<그림 37> 프린지와 태슬 II

출처 : <https://www.google.com>

(검색일자: 2018. 4. 13.)

99) 두산백과. [www.doopedia.co.kr](http://www.doopedia.co.kr) (검색일자: 2018. 4. 15.)

100) NAVER. [www.naver.com](http://www.naver.com) (검색일자: 2018. 4. 15.)

101) 조정문(2006). 전계서, p.37.

## (10) 단추

단추(Button)는 트여 있는 의복을 여미거나 푸는 것을 손쉽게 하기 위한 기능적인 목적이 큰 의복 장식을 의미한다. 하지만 트리밍의 측면으로 단추를 보면, <그림 38>, <그림 39>와 같이 단순히 의복을 장식하기 위해 덧붙인 형태로 볼 수 있다. 단추의 어원은 게르만어 ‘boton’이나 라틴어 ‘bottar’에 있으며<sup>102)</sup>, 고대에는 사용이 흔하지 않았으나 13세기경부터 고가의 재료로 만든 단추를 사용해 지위나 신분을 상징하는 수단으로 쓰였다<sup>103)</sup>. 현대에는 단추의 재료가 플라스틱, 금속, 조개 껍질과 같은 어패류, 돌, 목재 등으로 광범위하게 대량 생산되고 있어<sup>104)</sup> 다양한 형태의 단추 사용을 볼 수 있다.



<그림 38> 단추 I

출처 : <https://www.pinterest.co.kr>

(검색일자: 2018. 4. 13.)



<그림 39> 단추 II

출처 : <https://www.pinterest.co.kr>

(검색일자: 2018. 4. 13.)

102) 유송옥, 김경실, 간호섭(2006). 「패션디자인」, 서울: 수학사, p.126.

103) 이경옥(2009). 전개서, p.15.

104) 유송옥, 김경실, 간호섭(2006). 전개서, p.127.

### 3. 18세기 프랑스 로코코 복식

18세기 로코코 복식은 고급스러운 궁정복 형태의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경향을 띠고 있다<sup>105)</sup>. 유행의 흐름도 왕의 정부와 왕비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베르사이유 궁전은 프랑스 로코코 복식을 지배하는 독보적인 위치에 있었다<sup>106)</sup>. 전반적인 프랑스 로코코 여성 의복을 살펴보면, 궁정의 향락적인 생활상이 그대로 반영되어 점점 더 곡선미를 극대화하고 장식의 범위를 확대하여 여성적인 분위기를 더욱 강조하였다.

본 연구의 시대적 초점이 18세기 프랑스에 맞추어져 있으며, 의복의 트리밍을 분석을 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써 활용도가 더 높은 쪽에 비중을 두어 장식적 요소가 풍부한 여성 의복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로코코 여성 의복의 종류로는 크게 로브와 외투로 구분하였다. 또한, 앞서 의복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의복 장식인 트리밍에 대한 개념과 유형의 고찰을 통해 18세기 프랑스 여성 의복에 사용된 트리밍의 유형 구분을 돕는 방향으로 정리하였다.

#### 1) 18세기 프랑스 로코코 복식 형성 배경

18세기 초 프랑스 사회는 이전 시대인 루이 14세의 절대 왕권 통치로 인한 영향이 이어지면서 여전히 웅장한 호화로움을 간직하고 있었다. 프랑스는 유럽 전역에 문화도시로서의 독보적인 존재로 군림하며 예술전파에 영향력 있는 중심국가였지만, 당시 전쟁으로 인한 막대한 자원 손실과 재정 위기를 맞이하면서 절대 왕권의 틀이 무너지고 귀족사회의 몰락과 함께 새로운 문화 양식의 변모를 보이기 시작하였다<sup>107)</sup>. 새로운 양식은 17세기 바로

105) 배수정, 백정현, 오현아(2016). 「현대 패션과 서양복식문화사」, 서울: 수학사, p.194.

106) 정보윤(2007). “18세기를 배경으로 한 영화 「Farinelli」의 복식연구: 카스트라토(Castrato)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9.

107) 정홍숙(2009). 「서양복식문화사」, 경기: 교문사, p.234.

크 예술의 엄격하고 형식적인 규칙에서 벗어나 점점 감성적인 방향으로 쾌락을 추구하게 하였고<sup>108)</sup>, 인간의 내재된 감정들을 자유롭게 표출하면서 18세기 로코코 예술양식을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sup>109)</sup>. 이러한 정신은 그들의 생활감정을 만족시키며 가장 구체적인 발현의 대상으로 실내장식과 복식 등에 반영하였고, 호사스러운 과도한 장식과 치장으로 공백을 채우는 쾌락적 욕구 충족을 모든 생활영역으로 넓혀가고자 하였다<sup>110)</sup>. 이와 같은 사회·문화적 분위기는 18세기 중엽 루이 15세의 통치 시기부터 더 뚜렷하게 정착하며 확립되었고 일명 로코코 예술 양식의 황금기라 할 수 있다.

로코코(Rococo)의 어원은 프랑스어 로카이유(Rocaille)와 코키유(Coquille)로부터 유래된 용어이다. 정원에 사용된 조개무늬 장식이나 작은 돌의 곡선을 의미하는 뜻으로, 우아하고 여성적인 선의 감각과 귀족적이고 반자연적인 공미<sup>111)</sup>를 세련되고 섬세한 감성으로 표출한 특색있는 예술 양식이다.

로코코 예술 양식의 발달에는 프랑스 살롱문화의 영향을 들 수 있다. 살롱(Salon)은 궁정 생활을 기반으로 하는 귀족과 17세기 상공업의 발달로 부를 축적하게 된 부르주아 계급이 모인 사교생활의 장(場)으로<sup>112)</sup>, 이곳에서 교류하며 소규모의 안락함과 개인적 욕구 표출의 자유로움을 즐겼다<sup>113)</sup>.

살롱을 중심으로 형성된 문화는 실내장식의 발달을 가져오게 하였고, 실질적인 용도보다는 장식적인 면에 치중하게 되었다. 이로 인한 로코코의 특

108) 조정미(2013). “관능미를 주제로 한 도자조형 연구: 로코코 시대의 여성복식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9.

109) 박소정(2016). “로코코 양식을 응용한 아트 메이크업 일러스트레이션 연구”, 한국일러스트레이션학회, 48, p.39.

110) 정홍숙(2009). 전개서, pp.234-235.

111) 신화영(2006). “로코코 양식을 응용한 직물 디자인 연구: 파티 구두 제작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3.

112) 한원영(2010). “로코코 시대 인물화에 나타난 메이크업 특성과 색채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6.

113) 김연주(2009). “마리 앙투아네트 복식을 통해 본 로코코 복식의 조형성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9.

색이 곳곳에 나타나며, 조개 모양의 무늬와 부드러운 곡선이 자유로이 교차하도록 장식하였다<sup>114)</sup>. 실내장식에 표현된 유연한 곡선의 모티프는 로코코 예술양식의 장식적 가치를 높이며<sup>115)</sup>, 꽃, 꽃바구니, 리본, 레이스 등의 섬세함이 모든 생활공간에 나타났<sup>116)</sup>. 또한 여성을 중심으로 더욱 발달하며, 세련되고 우아한 분위기와 더불어 유희나 쾌락에 몰두한 사치스러움으로 18세기를 대표하는 로코코 예술 양식의 정착<sup>117)</sup>을 이루게 하였다.

시대별로 복식은 왕비나 수 많은 정부들에 의해서 조금씩 영향을 받았지만, 로코코 복식사에서 가장 영향력이 컸던 주요 인물은 마담 폼파두르(Madame de Pompadour, 1721-1764)와 마리 앙투아네트(Marie Antoinette, 1755-1793)이다. 프랑스 로코코 복식의 선두자였던 그녀들의 복식은 곧 사교계의 유행으로 이어졌고, 그 영향력이 유럽 전역으로 파급되었다<sup>118)</sup>.

먼저 루이 15세의 정부인 폼파두르 부인은 부르주아 출신으로 미모와 지성을 겸비하였고, 예술적 안목 또한 대단하여 베르사이유 궁전의 실내장식에도 관여하며 많은 취향과 감각을 투영하였다<sup>119)</sup>. 그녀의 예술적 영향력은 여러 분야로 확대되면서 18세기 중반의 프랑스 예술과 복식의 표본이 되었다. 마담 폼파두르의 복식은 관능적이고 여성스러움을 강조하며 섬세한 곡선과 함께 프릴, 러플, 꽃, 리본, 깃털, 레이스 등의 장식미를 돋보였다<sup>120)</sup>. 또한 코르셋으로 허리는 조이고 스커트는 부풀리는 실루엣을 통해 실용성보다는 의상의 예술성과 아름다움을 중요시하며 본인 스스로를 하나의 예술품처럼 표현하였다<sup>121)</sup>. 이후 루이 16세의 왕비인 마리 앙투아네트는 이전의

114) 신화영(2006). 전계서, pp.3-4.

115) 배수정, 백정현, 오현아(2016). 전계서, p.192.

116) 한지선(2012). “18세기 로코코 시대의 여성 미용문화 분석을 통한 미용작품 연구”, 성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3.

117) 이선화(2003). “바로크와 로코코시대 플로럴 패턴의 조형성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14-15.

118) 신혜순(2016). 「서양 패션의 변천사」, 경기: 교문사, p.143.

119) 정홍숙(2009). 전계서, p.236.

120) 김영옥, 안수경, 조신현(2010). 「서양복식문화의 현대적 이해」, 서울: 경춘사, p.182.

마담 폰파두르가 유행시킨 복식보다 더한 사치와 허영을 복식에 투영한 인물로, 여성 복식사상 가장 지나친 정도의 사치스러움과 화려한 경향을 보이게 되었다<sup>122)</sup>. 마리 앙투아네트의 복식은 상체 부위가 계속해서 몸에 딱 끼는 형태로 지속되었고, 허리 아래의 스커트는 그녀의 미적욕구에서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거창하게 부풀려진 규모를 자랑했다<sup>123)</sup>. 이는 스커트 속 파니에(panier)<sup>124)</sup>의 사용과 의복 표면에 프랑스 왕가를 상징하는 백합 문양, 리본, 레이스, 담비털, 자수 등을 주로 장식하며 크기를 더욱 크고 화려하게 만들었고, 심지어 머리장식에도 의복에 사용된 장식과 유사한 소재 및 색상으로 왕실의 호사스러움을 내세워<sup>125)</sup> 표현하였다.

한편으로 복식에 세련된 예술성이 돋보일 수 있었던 것은, 당시 농업의 발달로 인한 경제적 발전이 대외적으로 안정되며 그들의 생활양식을 풍족하게 만들었기에 복식문화쪽으로 관심이 집중될 수 있었다<sup>126)</sup>. 복식과 더불어 뷰티 분야까지 더욱 정성을 들였고, 이것이 개인의 문화 척도로 작용하였다. 또한 직물공업의 발달로 시작된 산업혁명이 18세기 로코코 복식의 장식적 화려함과 다채로운 색상의 발현을 이루었다. 직기 및 직조의 기계화는 로코코 복식에서 다양한 리본과 레이스 사용을 증대시켰고, 의복 생산량을 가속화시켰다<sup>127)</sup>. 의복의 색채는 뉴턴(Issac Newton, 1642-1727)이 발견한 빛의 3원색을 토대로 마이어(Johann Tobias Mayer, 1723-1762)가 색상혼합원칙을 세우면서 가시적인 91가지의 명암과 9,381가지의 색상을 얻게 되었다<sup>128)</sup>.

121) 최현애(2014). “Rococo시대의 여성복의 모티브로 한 Wearable Sculpture”,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7.

122) 김연주(2009). 전계서, pp.25-26.

123) 정광숙(2003), “복식 확대현상의 미적가치”,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52.

124) 18세기 로코코 시대에 스커트의 양 옆을 부풀리기 위해 철사·고래뼈를 이용한 바구니 모양의 받침대. (출처: 필리프 페로 저, 이재한 역(2007). 「부르주아 사회와 패션」, 서울: 현실문화연구, p.46.)

125) 신혜순(2016). 전계서, p.145.

126) 정광숙(2009). 전계서, p.239.

127) 최현애(2014). 전계서, p.8.

128) 신화영(2006). 전계서, p.5.

이로 인한 로코코 색채는 여성적인 파스텔톤으로 은은한 장미색, 푸른색, 녹색과 옅은 노란색 계통, 겨자색, 베이지 색상이 유행하였고, 의복의 배색과 문양에 있어서 다양한 색상<sup>129)</sup>을 선보였다.

아름다운 여성미와 화려한 색상, 섬세한 장식의 화려함으로 이뤄진 로코코 복식은 프랑스 혁명 전까지 18세기 프랑스 의복의 전반을 지배하였고, 루이 16세 중엽부터 원숙한 로코코 예술 양식의 정점을 이룬 뒤 서서히 시대 예술로 마감하게 된다. 하지만 세계 각지로 퍼져 독자적인 양식으로 발전한 뒤 현대에 이르기까지 로코코 복식은 여전히 섬세한 장식의 화려함, 부드러운 여성미를 기조로 하는 복식 예술의 대명사로 인식하게 되었다.

## 2) 18세기 프랑스 여성 의복과 트리밍

### (1) 로브

로브(Robe)는 18세기 프랑스 로코코 복식을 대표하는 여성 의복 중 하나이다. 로브 개념의 복식은 이전 시대부터 계속 사용되었으나, 일반적으로 여성의 드레스를 가운(Gown) 혹은 로브라고 부르기 시작한 시기는 16세기경부터이다<sup>130)</sup>. 18세기는 로브가 복식사상 가장 아름답고 호화스럽게 제작되었던 시기로<sup>131)</sup>, 로코코 로브의 전형적인 모습은 가슴을 깊게 판 네크라인과 3~4겹의 층으로 이루어진 소매, 크게 부풀린 스커트<sup>132)</sup>에서 찾을 수 있다.

로코코 초기의 로브는 색 가운(sack gown), 만투아(mantua) 혹은 와토

---

129) 이미소(2014). “로코코시대 여성복식과 현대 여성복식에 나타난 로코코 이미지의 색채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6.

130) 김시아(2010). “로코코 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의상 연구: 「마리 앙투아네트」와 「공작 부인」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1.

131) 정홍숙(2009). 전게서, p.244.

132) 배수정, 백정현, 오현아(2016). 전게서, p.200.

가운(watteau gown)이라 불리는 형태<sup>133)</sup>로 등장하였다. 특히 프랑스 의복의 와토 가운은 화가 와토의 회화에서 많이 볼 수 있어 붙여진 명칭으로, 로브 뒤쪽에 풍성하게 잡혀있는 주름 형태도 와토 주름(Watteau pleats)이라 칭하였다. 이러한 뚜렷한 특징의 와토 가운은 로브의 구성방식과 형태에 따라 더욱더 명칭이 다양하게 발전<sup>134)</sup>하였다.

### ① 로브 블랑트

로브 블랑트(Robe Volante)는 루이 14세의 정부인 마담 몽테스팡(Marquise de Montespan, 1641-1707)이 임부복 용도로 입으면서 유행한 18세기 대표적 로브의 한 종류이다. 또한 고대극 중 아드리엔느 역할을 맡았던 배우가 착용하여, 당시 아드리엔느 가운(Adrienne gown)<sup>135)</sup>으로도 불렸다. <그림 40>과 같이 풍성한 와토 주름의 사용이 특징인 로브 형태로, 허리선이 없이 길게 바닥까지 늘어진 형태로 걸을 때마다 아름답고 유연하게 너울거렸다<sup>136)</sup>. 로브 블랑트는 로코코 초기에 단정하지 않다는 이유로 실내복으로 써는 부적합하다는 평을 받았으나, 앞은 꼭 맞고 뒤 목둘레와 양쪽 어깨로부터 생겨난 와토 주름이 넓게 퍼지면서 너울거리는 모습이 여성적인 아름다움으로 대두되어 환영받게<sup>137)</sup> 되었다. 로브 블랑트의 앞 목을 넓게 파는 경우가 많았으나 중장년층의 여성들은 목에 얇은 실크나 울 스카프를 둘러서 착용<sup>138)</sup>하였다.

---

133) 정보윤(2007). 전계서, p.30.

134) 한지선(2012). 전계서, p.9.

135) 신혜순(2016). 전계서, p.146.

136) 정홍숙(2009), 전계서, p.246.

137) 김시아(2010). 전계서, p.12.

138) 김영옥, 안수경, 조신현(2010). p.184.



<그림 40> 로브 볼랑트

출처 : <http://madparis.fr>

(검색일자: 2018.04.06.)

## ② 로브 아 라 프랑세즈

로브 아 라 프랑세즈(Robe à la française)는 로브 볼랑트의 변형이자 와토 가운데의 궁정복 형태로, <그림 41>과 같이 로브 중 가장 화려하게 장식된 의복이다<sup>139)</sup>. 기본구성은 상체는 코르셋을 입어 몸에 꼭 맞도록 하였고, 스커트는 파니에 두블(Panier double)을 안쪽에 입어 양 옆으로 넓게 퍼지는 형태를 취하며 뒤쪽은 풍성한 와토 주름으로 마무리<sup>140)</sup> 하였다. 로브 아 라 프랑세즈는 마담 폰과두르가 즐겨 착용하여 가장 발전된 모습을 보이며 로코코 복식을 대표하는 의복으로 자리잡았다. 특히 넓게 파여진 네모난 네크라인과 여러 크기의 리본, 꽃, 조화, 레이스, 줄 장식, 플라운스, 진주 등을

139) 배수정, 백정현, 오현아(2016). 전계서, p.201.

140) 한지선(2012). 전계서, p.11.

장식하여 의복 자체만으로 하나의 예술품처럼 만드는 롱파두르 스타일<sup>141)</sup>을 구현하였다.

이와 같이 화려한 로브 아 라 프랑세즈는 1774년을 정점으로 하여 프랑스 혁명 이전까지 궁정에서 사용되었고, 궁정의 공복(公服), 무도회복으로 활용<sup>142)</sup>되었다. 이후 1770년대 후반부터는 좀 더 편하고 간소한 형태의 로브들이 등장<sup>143)</sup>하기 시작하였다.



<그림 41> 로브 아 라 프랑세즈

출처 : <http://mantuamaker.tumblr.com>

(검색일자: 2018.04.06.)

141) 정홍숙(2009). 전계서, p.247.

142) 김시아, 최정욱(2012). “로코코 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의상 비교 분석 - 「마리 앙투아네트」와 「공작부인」을 중심으로”, 한국디자인지식학회, 디자인지식저널 24, p.192.

143) 신혜순(2016). 전계서, p.147.

### ③ 로브 아 라 폴로네즈

로브 아 라 폴로네즈(Robe à la Polonaise)는 18세기 후반의 대표적인 로브의 형태로써, 1770년경 폴란드의 민족 의복에서 영향을 받아 1776년부터 1786년까지 유행<sup>144)</sup>하였다. <그림 42>와 같이 기본 구성은 오버스커트 부분에 커다란 퍼프(Puff)가 총 세 개로 이루어진 형태로, 스커트의 자락을 두 곳에서 걷어 올려 뒤 중심과 양 옆쪽에 주름과 함께 볼륨이 형성되는 모습이다<sup>145)</sup>. 오버스커트 밑바닥에 바느질된 틀을 통해 커튼처럼 끈으로 묶어 올려 원하는 높이로 옷자락을 조절<sup>146)</sup>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로브 아 라 폴로네즈는 활동성에 있어서 로브 아 라 프랑세즈보다 스커트의 길이도 약간 짧으며 통도 좁아 훨씬 간편하였고<sup>147)</sup>, 커튼과 같은 멋스럽고 우아한 주름으로 여성들에게 각광을 받았다.

### ④ 로브 아 라 시르카시엔느

로브 아 라 시르카시엔느(Robe à la Circassienne)는 로브 아 라 폴로네즈와 비슷한 형태로, 발목이 많이 보이는 짧은 길이<sup>148)</sup>가 특징이다. 중세 이래 여자 다리의 일부가 드러난 적이 없었으나 유럽 역사상 처음으로 다리를 보인<sup>149)</sup> 의복 형태이다. 로브 아 라 시르카시엔느도 로브 아 라 폴로네즈와 같은 세 개의 퍼프 형태가 있으나 <그림 43>에 보이는 바와 같이 길이가 짧고 뒤 중심에 엉덩이 버팀대를 사용<sup>150)</sup>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144) 김시아(2010). 전계서, p.15.

145) 정보윤(2007). 전계서, p.33.

146) 정홍숙(2009). 전계서, p.248.

147) 한지선(2012). 전계서, p.11.

148) 김영옥, 안수경, 조신현(2010). p.184.

149) 정보윤(2007). 전계서, p.34.

150) 김시아(2010). 전계서, p.15.



<그림 42> 로브 아 라 폴로네즈  
출처 : <http://mantuamaker.tumblr.com>  
(검색일자 : 2018.04.06.)



<그림 43> 로브 아 라 시르카시엔느  
출처 : 서양복식문화사, 2009, p.247.

## ⑤ 로브 아 라 카라코

로브 아 라 카라코(Robe à la Caraco)는 루이 16세 말경에 유행하였던 의복으로 원래 영국식 재킷으로 부인용 승마복<sup>151)</sup>에서 유래되었다. <그림 44>, <그림 45>와 같이 기본 구성은 투피스형 로브의 일종으로 상체 부분은 붙거나 허리선에 짧은 스커트 자락 형태의 페블럼이 여러 장 붙어 있으며, 마치 엉덩이를 부풀린 룡 드레스에 재킷을 걸친 것 같은 형태<sup>152)</sup>를 이룬다.

로브 아 라 카라코는 목둘레가 깊은 U자형으로 파여 있어 얇은 천으로 만든 피슈 칼라(Col fichu)<sup>153)</sup>를 만들어 가슴을 가리도록 디자인하였으며, 가

151) 한지선(2012). 전계서, p.12.

152) 정홍숙(2009). 전계서, p.248.

슴 중앙에 큰 리본이나 꽃 장식<sup>154)</sup>을 한 것이 특징적이다. 이는 1790년대 중반까지 유행<sup>155)</sup>하였던 로브이다.



<그림 44> 로브 아 라 카라코 I  
출처 : <http://costumeholic.blogspot.kr>  
(검색일자 : 2018.04.06.)



<그림 45> 로브 아 라 카라코 II  
출처 : <https://www.metmuseum.org>  
(검색일자 : 2018.04.06.)

## ⑥ 로브 아 랑글레즈

로브 아 랑글레즈(Robe à L'anglaise)는 1778년경에 나타난 로브의 형태로 드레스의 상체 부분은 몸에 꼭 맞아 가슴을 강조하였고, 스커트의 길이는 폭이 넓고 길었다<sup>156)</sup>. 깊은 사각형으로 앞 목둘레선을 뒀으며, 로브 아 라 카라코처럼 얇은 천으로 만든 피슈를 목 앞쪽에 불룩하게 장식<sup>157)</sup>하였

153) 피슈 칼라는 뒤쪽은 삼각형이고, 앞쪽은 V넥과 같이 되어 있는 커다란 칼라로, 18-19세기 여성이 애용한 데서 온 패션 명칭이다. (출처: [www.naver.com](http://www.naver.com) (검색일자: 2018.04.06.))

154) 정보윤(2007). 전계서, p.34.

155) 한지선(2012). 전계서, pp.12-13.

156) 배수정, 백정현, 오현아(2016). 전계서, p.203.

다. <그림 46>과 같이 로브 아 랑글레즈는 파니에 없이 착용할 수 있어 간편하였고, 프랑스 혁명 이후에도 계속 애용<sup>158)</sup>되었던 로브이다.



<그림 46> 로브 아 랑글레즈

출처 : <https://www.metmuseum.org>

(검색일자: 2018.04.06.)

### ⑦ 로브 아 라 레비트

로브 아 라 레비트(Robe à la Lévite)는 영국의 라이딩 코트(riding coat)의 영향을 받아 마리 앙투아네트가 임신 중 입었던 임부복 형태가 일반인들에게 유행<sup>159)</sup>하게 되었다. <그림 47>과 같이 넥라인은 깊게 파여 작은 러플 장식으로 치장하였고, 엉덩이 쪽에 주름이 잡히면서 앞보다 약간 길어진<sup>160)</sup> 형태이다.

157) 고애란(2017). 「서양의 복식문화와 역사」, 경기: 교문사, p.237.

158) 김시아(2010). 전계서, p.18.

159) 정보윤(2007). 전계서, p.35.

## ⑧ 슈미즈 아 라 렌느

슈미즈 아 라 렌느(Chemise à la Reine)는 1780년대에 유행하였으며 마리 앙투아네트가 처음으로 입기 시작한 로브이다. <그림 48>에 보여지는 것처럼 18세기에 화려한 장식적인 로브들과는 다르게 단순하고 소박한 형태를 띠는 것<sup>161)</sup>이 특징이다. 코르셋이나 파니에를 착용하지 않고, 넓은 천을 허리선에 주름 잡아 두르며 뒤쪽으로 큰 리본을 묶어 자연스럽게 늘어트렸다<sup>162)</sup>. 슈미즈 아 라 렌느는 주로 가벼운 실크나 얇게 비치는 소재를 사용하였으나 소매는 풍성하고 네크라인 주변은 작은 리플<sup>163)</sup>로 세워 달았다.



<그림 47> 로브 아 라 레비트

출처 : <http://www.mimicofmodes.com>

(검색일자 : 2018.04.06.)



<그림 48> 슈미즈 아 라 렌느

출처 : <https://caddamsbetraktelser.wordpress.com>

(검색일자 : 2018.04.06.)

160) 정홍숙(2009). 전계서, p.249.

161) 고애란(2017). 전계서, p.240.

162) 김시아(2010). 전계서, p.18.

163) 배수정, 백정현, 오현아(2016). 전계서, p.204.

## (2) 외투

로코코 여성 복식의 방한용 외투(Outer Wrap)는 로브 위에 입을 수 있는 망토형이나 케이프형 혹은 솔 형태의 의복을 착용하였다. 외투의 길이는 허리선이나 엉덩이까지 내려오는 정도이거나 스커트의 길이와 비슷하게<sup>164)</sup> 제작되었다.

가장 대표적인 로코코 여성 복식의 외투로는 플리스와 펠레린이 있다.

### ① 플리스

플리스(Pelisse)는 <그림 49>와 같이 망토 형태의 외투로, 앞쪽에 달린 단추나 끈으로 윗부분만 여밀 수 있었다. 또한 방한을 위해 플리스 속에 모피를 덧대기도 하였다<sup>165)</sup>. 내피의 소재로 추운 날씨에는 벨벳이나 모직물을 선호하였고, 따뜻한 날씨에는 가벼운 소재의 실크 등이 사용되었다. 플리스의 길이는 허리부터 종아리 길이까지 다양하게 제작<sup>166)</sup>되었다.

### ② 펠레린

펠레린(Pèlerine)은 후드가 달린 망토 형태의 외투로, 엉덩이를 덮거나 바닥까지 닿는 길이로 만들어졌다. 펠레린도 플리스와 마찬가지로 내부 전체 또는 가장자리를 모피로 장식했으며 앞 여밈은 리본으로 맬 수 있는 형태이다. 펠레린은 <그림 50>과 같이 손을 내놓을 수 있는 트임이 양쪽에 있다는 것이<sup>167)</sup> 플리스와 다른 점이다.

164) 배수정, 백정현, 오현아(2016). 전계서, pp.204-205.

165) 신혜순(2016). 전계서, p.149.

166) 김시아, 최정욱(2012). 전계서, p.193.

167) 정홍숙(2009). 전계서, p.251.



<그림 49> 플리스

출처 : <https://www.wikiart.org>

(검색일자 : 2018.04.06.)



<그림 50> 펠레린

출처 : [www.pinterest.co.kr](http://www.pinterest.co.kr)

(검색일자 : 2018.04.06.)

### (3) 트리밍

로코코 여성 의복의 로브와 외투를 살펴보면, 의복의 장식 기법인 디테일과 트리밍을 모두 찾아볼 수 있다. 특히, 로코코 로브의 상징적 소매 형태인 앙가장트(engageantes)는 로코코 여성 의복에서 빠질 수 없는 장식 요소이나 의복의 실루엣을 결정짓는 장식 요소이기에 디테일로 구분할 수 있다.

다음은 18세기 로코코 여성 의복에 주로 사용되었던 트리밍을 위주로 내용을 정리하였다. 로코코 여성 의복의 트리밍으로는 아플리케와 코드, 브레이드, 레이스, 리본, 비즈, 코사지와 로제트, 프린지와 태슬로 구분되며 이를 표로 살펴보면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18세기 여성 의복의 트리밍

종 류	트리밍 형태	특 징
아플리케와 코드		<p>천 위에 제작되어 의복에 부착하는 형태로, 꽃과 꽃잎 등 연속적인 무늬를 주로 사용함</p>
브레이드		<p>끈의 형태 혹은 천의 형태 모두 나타나며, 꽃 무늬 장식을 천에 꿰어낸 브레이드 자수도 확인할 수 있음</p>
레이스		<p>넥라인이나 스커트의 밑단, 가슴 장식 쪽에 부분적으로 사용함</p>
리본		<p>가슴에 크게 부착하거나 가슴에서 허리선까지 칸칸이 작아지는 크기별 리본 장식을 사용함</p>
비즈		<p>화려함을 극대화하는 장식으로 다른 트리밍과 조화를 이루면서 사용하거나 어떤 형상을 나타내듯이 부착하여 사용함</p>
코사지와 로제트		<p>작은 꽃들을 모아 꽃다발 형태로 부착하기도 하고 꽃 줄과 함께 둘러서 사용함</p>
프린지와 태슬		<p>의복의 끝자락이나 가장자리를 두르는 끈 장식의 형태로 사용되며 부분적으로 사용함</p>

(이미지 출처: <https://www.pinterest.co.kr> (검색일자: 2018. 4. 15.))

## (1) 아플리케와 코드

로코코 여성 의복에서 아플리케와 코드는 <그림 51>, <그림 52>와 같이 천 위에 제작되어 의복에 부착하는 장식 형태로 사용되었다. 로코코 여성 의복에서 주로 사용된 아플리케나 코드 자수를 살펴보면, 주로 면적 전체에 꽃과 꽃잎 등 연속적인 무늬<sup>168)</sup>를 주로 수 놓았다.



<그림 51> 아플리케와 코드 I  
출처 : <https://www.pinterest.co.kr>  
(검색일자: 2018. 4. 15.)



<그림 52> 아플리케와 코드 II  
출처 : <https://www.pinterest.co.kr>  
(검색일자: 2018. 4. 15.)

## (2) 브레이드

로코코 여성 의복에서는 끈의 형태 혹은 천의 형태의 브레이드가 모두 나

---

168) 이지현(2006). “로코코 시대의 장식요소를 응용한 의상디자인”, 한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39-40.

타난다. <그림 53>과 같이 선의 형태가 유연하며 테두리 장식, 매듭끈, 단처리<sup>169)</sup>등에 주로 사용한다. 또한, 브레이드를 천에 꿰어 꽃무늬 등의 장식으로 만든 <그림 54>과 같은 브레이드 자수<sup>170)</sup> 사용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3> 브레이드 I

출처 : <https://www.bellebridalmagazine.com>

(검색일자: 2018. 4. 15.)



<그림 54> 브레이드 II

출처 : <https://www.pinterest.co.kr>

(검색일자: 2018. 4. 15.)

### (3) 레이스

레이스는 로코코 여성 의복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재이며 특히 양가장트 소매에서 겹겹의 레이스를 사용하지만, <그림 55>, <그림 56>와 같이 네크라인이나 스커트의 밑단, 앞쪽 가슴 장식 쪽의 부분적으로 들어간 트리밍 레이스를 확인할 수 있다.

169) 이경옥(2009). 전계서, p.14.

170) 두산백과. [www.doopedia.co.kr](http://www.doopedia.co.kr) (검색일자: 2018. 4. 15.)



<그림 55> 레이스 I

출처 : <https://www.pinterest.co.kr>

(검색일자: 2018. 4. 15.)



<그림 56> 레이스 II

출처 : <https://www.pinterest.co.kr>

(검색일자: 2018. 4. 15.)

#### (4) 리본

로코코 여성 의복에서의 리본 장식은 가슴에 크게 부착하여 여성으로서의 성적 매력을 표현하기도 하고, <그림 57>, <그림 58>과 같이 스토마커의 가슴 중심에서 허리선까지 칸칸이 작아지는 리본을 크기별로 장식하여 허리를 시각적으로 더 가늘어 보이게 하는 효과<sup>171)</sup>를 주기도 한다.

#### (5) 비즈

로코코 여성 의복에서 비즈는 <그림 59>와 같이 화려함을 극대화하는 의

171) 이지현(2006). 전계서, p.34.

복 장식으로, 단독적으로 장식하거나 다른 트리밍과 함께 조화를 이루며 사용하기도 한다. 또한, <그림 60>과 같이 어떠한 형상을 나타내듯이 부착하여 장식하였다.



<그림 57> 리본 I

출처 : <https://www.pinterest.co.kr>  
(검색일자: 2018. 4. 15.)



<그림 58> 리본 II

출처 : <https://www.pinterest.co.kr>  
(검색일자: 2018. 4. 15.)



<그림 59> 비즈 I

출처 : <https://www.pinterest.co.kr>  
(검색일자: 2018. 4. 15.)



<그림 60> 비즈 II

출처 : <https://www.pinterest.co.kr>  
(검색일자: 2018. 4. 15.)

## (6) 코사지와 로제트

로코코 여성 의복에서 코사지와 로제트는 생화 혹은 조화로 사용되었다. 생화로 만든 코사지나 로제트는 의복 뿐만 아니라 헤어 장식으로도 발전하는 형태를 보였다. <그림 61>의 코사지(Corsage)와 <그림 62>의 로제트(Rosette)는 꽃을 모티브로 표현한<sup>172)</sup> 트리밍이다. 로제트는 꽃 장식 중에서도 장미 장식을 의미하는 것으로<sup>173)</sup>, 손으로 만든 장미 모양의 의복 장식인 로즈버드(Rosebud)와도 비슷한 의미로 사용된다<sup>174)</sup>. 또한, 코사지와 로제트는 작은 꽃들을 모아 꽃다발의 형태로 의복에 부착하여 장식하거나 꽃 봉우리에 연결된 꽃 줄을 함께 두르는 것도 로코코 여성 의복만의 유행<sup>175)</sup>이 되었다.



<그림 61> 코사지

출처 : <https://www.pinterest.co.kr>

(검색일자: 2018. 4. 15.)



<그림 62> 로제트

출처 : <http://whattheywore.tumblr.com>

(검색일자: 2018. 4. 15.)

172) 조정문(2006). 전계서, p.37.

173) 박수연(2010). 전계서, p.26.

174) 이경희(2002). 전계서, p.61.

175) 이지현(2006). 전계서, p.43.

#### (7) 프린지와 태슬

프린지와 태슬 트리밍은 로코코 여성 의복에서 <그림 63>과 같이 의복의 끝자락에 작은 크기의 형태로 부착하거나 <그림 64>와 같이 부분적으로 가장자리를 두르는 끈 장식의 형태로 사용되었다.



<그림 63> 프린지와 태슬 I

출처 : <http://www.frenchweddingstyle.com>

(검색일자: 2018. 4. 15.)



<그림 64> 프린지와 태슬 II

출처 : <https://www.museodelprado.es>

(검색일자: 2018. 4. 15.)

#### 4. 18세기 프랑스 초상화

18세기 프랑스 초상화는 18세기 여성 의복, 의복 장식, 색상, 디테일 등을 현대에도 확인할 수 있는 시대적 자료이자 다음 장의 연구 방법에 대한 분석 자료로써 사용되므로 본 장에서는 초상화의 이해를 돕는 방향으로 정리하였다.

## 1) 초상화의 개념

초상화(Portrait)는 어느 특정 인물의 얼굴이나 모습을 그린 그림<sup>176)</sup>을 뜻하며 그 주체가 단독인 경우가 일반적이거나 인물을 중심으로 표현된 집단초상화, 종교화, 누드화, 풍속화 같은 형태의 인물화도 넓은 의미로 포함<sup>177)</sup>된다. 초상화의 어원은 16세기 프랑스어 동사인 ‘초상화를 그리다(portraire)’에 유래된 명사형<sup>178)</sup>으로, 추상적인 예술보다 실제와 닮은 인물 묘사에 가까운 의미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초상화는 사진 발명 이전에 실존 인물의 역사적 기록으로 남아 있는 시각예술로써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sup>179)</sup>.

오늘날 흔히 사용하고 있는 초상화의 의미는 프랑스의 앙드레 펠리비앙(André Felibien, 1619-1695)에 의해 사실적 묘사를 토대로 한 그림 속 주체가 인간 중심인 회화의 한 장르로 정착하게 된 것이다<sup>180)</sup>. 개인의 특징을 회화로 표현한 최초의 초상화는 프랑스의 왕이자 별칭인 선량왕으로 더 익숙한 장 2세(Jean II, 1319-1364)의 초상화로, 1350년경에 독립적으로 그려진 측면 초상화로 알려져 있다<sup>181)</sup>. 왕족이나 귀족들은 초상화를 통해 후손들에게 존경심을 갖도록 하는 목적으로 사용하였고, 르네상스 시대에는 정략결혼을 위한 수단으로써 초상화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또한, 자신의 존재감을 알리고 본인이 누렸던 명예와 삶을 영원히 남기고자 하는 인간적 욕망의 산물로 초상화를 이용하였다<sup>182)</sup>. 르네상스 시대부터 초상화는 가문의 명

176) 두산백과. [http://www.doopedia.co.kr/doopedia/master/master.do?\\_method=view&MAS\\_IDX=101013000745240](http://www.doopedia.co.kr/doopedia/master/master.do?_method=view&MAS_IDX=101013000745240) (검색일자: 2018. 2. 23.)

177) 이숙연(2005). “이탈리아 르네상스 회화에 나타난 Make-Up의 특성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4-15.

178) 박성은(2008). 「플랑드르 사실주의 회화」,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p198.

179) 김정혜(2014). “얼굴의 시대적 이상미: 르네상스부터 낭만주의까지 초상화의 얼굴비례와 메이크업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20.

180) 박성은(2008). 전계서, p.198.

181) 박영신(2007). 「고딕 회화」, 서울: 재원, p.151.

182) 홍미정(2014). “영국 초상화에 표현된 바로크·로코코 복식과 네오 바로크·로코코 패션의 미적특성 비교”,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13-14.

예를 알리거나 세상에 대한 권력 과시, 공간 장식을 위한 아름다움 등 인간이 가지는 여러 개인적 욕망들을 충족시키며 역할의 변천을 거듭해왔다<sup>183)</sup>. 이후 바로크 시대 초상화에서도 루이 14세의 절대 왕권이 그대로 그림에 드러나며 프랑스 왕실을 상징하는 백합문양, 모피 의상, 장식 구두, 부풀린 가발 등을 통해 왕의 화려함과 권력을 최고의 방식으로 이미지화 하였다<sup>184)</sup>.

초상을 그린다는 것은 상대방의 얼굴을 읽어내는 행위이자 나와 남과의 관계를 전제로 하는 사회적인 성격에서 출발하는 것이다<sup>185)</sup>. 초상화는 더 나아가 외적인 이미지 표현을 넘어 표정 및 자세, 배경을 통해 인물의 내면 세계<sup>186)</sup>까지 나타내고자 하였다. 인물의 크기, 신체의 각도(측면, 정면, 사면), 시선 처리 하나에도 성격과 인품, 사회적 신분 및 직업까지 담아내고 있다. 이러한 초상화가 가진 성격은 역사적 자료로 충분한 가치가 있으며, 사진의 형태로 남아 있지 않거나 현존한 상태를 보기 어려운 시대적 상황과 소통할 수 있는 최적의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물론 그리는 자와 주체가 되는 주인공 사이에 미묘한 사회적 관계가 반영<sup>187)</sup>되어 있으며, 화가에 따라 미화되거나 과장되는 면도 배제할 수 없다. 초상화 안에서 인물 자체 외에 표현된 고급스러운 보석류, 사회적 지위나 직위를 유추할 수 있는 상징적 물건들이 개인의 욕구 충족을 위한 부와 명예, 권력 과시로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초상화는 그 당시의 사상, 철학, 정치, 문화 등 시대의 관심사와 시대성이 함께 표현되기에<sup>188)</sup> 역사적 의미가 있으며, 당시에 유행을 이끌던 의복과 장신구, 뷰티 및 미세한 심리상태<sup>189)</sup>도 전하고 있어 의복연구 및 뷰

183) 고종희(2004). 「르네상스의 초상화 또는 인간의 빛과 그늘」, 파주: 한길아트, p.8.

184) 이은기, 김미정(2006). 「서양미술사」, 서울: 미진사, p.307.

185) 이주은(2006). “빅토리안 회화의 인물상을 통해 본 근대 영국 사회의 특성”,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26.

186) 최재경(2014). “패션에 나타난 우아미의 사회적 규범과 미적취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59.

187) 이숙연(2005). 전개서, p.15.

188) 박서림(2014). “초상화 제작기법에 대한 연구: 문희공 신개 신영정 제작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12.

189) 김경하(2004). “르네상스 시대 인물화에 나타난 메이크업의 특성”, 대구대학교 디자인대학

티연구에 중요한 회화적 자료로 사용되고 있다.

초상화는 특정 국가 및 지역의 그림이 아닌 동·서양 어디서나 다양하게 제작되어 남겨진 예술로써, 초상화를 활발하게 부흥시킨 나라는 프랑스이다. 특히, 18세기 프랑스는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가 초상화의 유행으로 그 수요가 증대했던 시기<sup>190)</sup>로 알려져 있다. 당시 베르사이유 궁전을 중심으로 한 궁정 문화의 화려함과 매혹적인 여성적 자태를 섬세하게 표현한 특징<sup>191)</sup>을 가지며 발달하였다. 여성이 주가 되는 살롱문화가 유행하여, 여성 초상화가 더욱 발전하는 계기<sup>192)</sup>를 만들었고 이 시기에 수많은 초상화 작품을 남기게 되었다.

프랑스는 초상화의 어원과 용어를 정립한 나라이자 로코코 시대라고 칭하는 18세기에 독보적 위치로 군림하며 유럽 예술 문화를 주도하였다. 로코코 시대의 초상화는 여성미가 돋보이는 시대상과 화려한 장식 문화가 발달하였고, 이를 가장 잘 보존하고 있는 회화 형태의 역사적 산물이라 할 수 있다.

## 2) 18세기 프랑스 초상화와 궁정화가

18세기 초반 프랑스는 루이 14세 서거 이후, 어린 나이의 루이 15세를 대신하는 필립 오를레앙의 섭정기(1715-1723)<sup>193)</sup>를 맞이한다. 섭정기의 시작은 여러 가지 사회적 변화를 일으키며 로코코 가공의 탄생 시기<sup>194)</sup>로 간주할 수 있다. 특히, 권력이 다수의 귀족층으로 분산되어 시작된 로코코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 프랑스에서 가장 화려하게 나타나며 집중<sup>195)</sup>되어 있다.

---

원, 석사학위논문, p.9.

190) 제르맹 바쟁 저. 김미정 역(1998). 「바로크와 로코코」, 서울: 시공아트, p.187.

191) 환원영(2010). 전개서, pp.8-9.

192) 김주애(2011). “초상화에 표현된 마리 앙뜨와네트 여왕 복식의 상징적 의미”, *한국디자인 문화학회*, 17, p.145.

193) 제르맹 바쟁 저. 김미정 역(1998). 전개서. p.173.

194) 토마스 R.호프만 저. 안상원 역(2008). 「어떻게 이해할까? 로코코」, 서울: 미술문화, p.7.

195) 김영숙(2007). 「루브르와 오르세의 명화 산책」, 서울: 마로니에북스, p.148.

다음은 18세기에 활동한 많은 화가들 가운데 왕실 인물 초상화와 연관성이 높고, 논문의 핵심 시기인 루이 15세의 친정기부터 루이 16세까지 궁정 화가로서 역할이 큰 인물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 중 와토는 논문의 주요 자료로 활용되는 베르사이유 궁 박물관에 소장된 초상화 작품은 없지만, 18세기 초반에 가장 큰 활동을 하며 로코코 회화 발전의 시초가 되는 인물로 의의가 있다고 사료되어 궁정화가들과 함께 정리하였다.

### (1) 장 앙투안 와토

18세기 로코코의 대표적 화가인 장 앙투안 와토(Jean-Antoine Watteau, 1684-1721)는 화려한 왕실문화의 궁정 풍속을 비롯하여 상류층에서 보여주는 서정적이고 우아함을 표현하는 화풍<sup>196)</sup>을 전개하며 프랑스 로코코의 회화 정서를 확립하였다. 18세기 초 8년간의 섭정기에 가장 왕성한 활동을 보인 와토는 신혼 귀족들의 향락적인 사회적 분위기에 영향을 받으며, ‘우아한 축제(Fete Galante)’ 장르의 작품화를 이루었다. 1714-1717년 사이에 90점이 넘는 작품 중 50점 이상이 ‘우아한 축제’ 주제와 연관되어 있고, 양식적으로도 작품의 완숙한 발전을 보여주었다<sup>197)</sup>. ‘사랑의 연화’라고도 불리며, 야외에서 우아하게 차려입은 남녀 인물들이 나누는 사랑의 속삭임, 여가생활, 낭만적인 장면들을 담고 있는 것<sup>198)</sup>이 와토풀 작품의 특징이다. 그의 아카데미 입회작으로도 유명한 <키테라섬의 순례(L'embarquement pour L'ile de Cythere)>는 ‘우아한 축제’ 주제를 가장 잘 표현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와토는 전체적인 분위기를 담은 풍속화 작품을 주로 작업하였고, 풍경과 함께 어울리는 다양한 인물들을 표현함으로써 장르를 더욱 부각시켰다. 와토의

196) 박소정(2016). 전계서, p.41.

197) 나소연(2002). “와토의 <키테라섬의 순례>”,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4.

198) 박희숙(2011). “연극에 매료되었던 화가 『장 앙투안 와토』”, *고시계* 56(10), p.73.

‘우아한 축제’는 귀족들의 과시와 이상향에 대한 동경을 풍경과 인물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였다<sup>199)</sup>. 또한 다른 장르의 회화에서 많은 비증을 여인에게 두며<sup>200)</sup> 여성 주체의 살롱문화에 초상화 수요를 더욱 증가시켰다.

## (2) 장 마르크 나티에

18세기 중기이자 친정을 시작한 루이 15세 시기(1723-1774)의 대표적인 화가인 장 마르크 나티에(Jean-Marc Nattier, 1685-1766)는 프랑스 궁정으로부터 루벤스 연작 <마리 드 메디시스의 생애(La vie de Marie de Medici)>의 모사를 의뢰<sup>201)</sup>받으면서부터 유명세를 누리기 시작하였다.

미술가 집안에서 태어난 나티에는 활동 초반, 1718년에 역사화로 아카데미에 입성하게 되었으나 1720년대 이후부터는 초상화에 전념<sup>202)</sup>하였다. 로코코풍의 우아하고 고상한 부인 초상화의 대표 화가로, 루이 15세의 궁정에서 공주나 귀부인들의 우아하고 아름다운 모습<sup>203)</sup>들을 그렸다. 왕실의 공식 초상화를 주로 담당하면서 세심한 표현으로 인정을 받았고, 모델을 신화 속의 인물로 표현하는 초상화는 18세기 당시 크게 유행하였다. 장 마르크 나티에의 여러 작품 중 루이 15세의 넷째 딸인 아델라이드 드 프랑스(Marie Adélaïde de France, 1732-1800) 공주와 둘째 딸인 앙리에트 드 프랑스(Marie Henriette de France, 1727-1752) 공주의 초상화를 보면 이러한 표현 방식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통상적으로 불려지는 초상화의 이름으로도 알 수 있듯이, <그림 65>은 아델라이드 공주를 사냥의 여신 다이아나의 모

199) 황혜전(2005). “장 앙트완느 와토의 <키테라 섬의 순례>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p.22.

200) 김광우(2006). 「프랑스 미술 500년: 모방에서 창조로」, 서울: 미술문화, p.96.

201) 류경화, 김양희(2014). “18세기 회화에 나타난 프랑스 궁정 여성복식의 색채 연구”, *한국패션디자인학회*, 14, p.87.

202) NAVER.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65664&cid=42636&categoryId=42636> (검색일자: 2018.2.28.)

203) 두산백과. <http://www.doopedia.co.kr> (검색일자: 2018.2.28.)

습으로 표현함으로써 대담하고 확고한 성격을 나타내고자 했고, <그림 66>는 앙리에트 공주를 아름다운 미모와 온화한 여성미를 나타내는 꽃의 여신 플로라로 표현하였다. 이러한 방식의 초상화에는 신격화 표현과 함께 의뢰인의 사회적 신분을 나타낼 수 있는 장식품이 등장하는 경우가 많이 볼 수 있다.



<그림 65> 아멜라이드 공주

출처 : 프랑스 베르사이유 궁 박물관  
(검색일자 : 2018.03.01.)



<그림 66> 앙리에트 공주

출처 : 프랑스 베르사이유 궁 박물관  
(검색일자 : 2018.03.01.)

나티에만의 또 다른 특성으로는 블루 계열의 컬러 사용을 꼽을 수 있다. 나티에가 즐겨 사용하던 서늘한 파란색은 화가 이름을 그대로 붙여 ‘나티에 컬러’로 알려져 있다. 현재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지만, 나티에가 남긴 초상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색상이다. <그림 67>은 나티에 컬러가 가장 아름답게 표현된 작품으로, 1750년에 그려진 <티 리아 백작부인 초상화>이다<sup>204</sup>. 나티에는 초상화 작품에서 깨끗하면서도 차가운 느낌의 색상을 즐겨 사용하였는데, 은빛이 도는 파란색, 창백한 느낌의 Pale톤 회색 등을 주로 사용<sup>205</sup>하였다. <그림 68>을 살펴보면, 이와 같은 색감을 찾아볼 수 있다.

204) NAVER. <https://blog.naver.com/cbh3cbh3/221126261550> (검색일자: 2018.3.21.)

푸른색과 회색, 녹색 그리고 분홍색 계열의 색상들을 혼합하여 사용하며, 피부 표현 시 약간 번지는 듯한 느낌의 터치를 사용했다는 점이 특징<sup>206)</sup>적인 화가로 구분된다.



<그림 67> 티 리아 백작부인의 초상화

출처 : 런던 윌레스 컬렉션  
(검색일자 : 2018.03.23.)



<그림 68> Portrait of Madame Marie-Henriette Berthelot de Pléneuf

출처 : 프랑스 베르사이유 궁 박물관  
(검색일자 : 2018.03.01.)

### (3) 프랑수아 부세

프랑수아 부세(François Boucher, 1703-1770)는 레이스 디자이너 출신의 아버지에게 미술을 배우며, 18세기 로코코 양식의 취향과 유행을 가장 완벽

205) Donald Posner(1996). The 'Duchesse de Velours' and Her Daughter: A Masterpiece by Nattier and Its Historical Context, *Metropolitan Museum Journal*, 31, p.131.

206) 지앤씨미디어 학술팀, 편집부(2010). 「프랑스 국립 베르사이유 특별전」, 경기: 지앤씨미디어, p.192.

하게 그림으로 반영<sup>207)</sup>한 화가이다. 루이 15세의 수석 화가로 임명받아 미묘한 색채사용과 품위 있는 형태, 뛰어난 기교를 특징<sup>208)</sup>으로 왕실의 우아함과 세련미를 작품에 드러내었다. 또한 그는 루이 15세의 정부인 마담 폰파두르의 남다른 총애와 후원 속에 작품 활동을 한 것으로 유명하다.

1745년에 후작 부인 지위를 받은 폰파두르는 루이 15세의 공식 정부를 넘어 새로운 사상의 후견인으로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자 했다<sup>209)</sup>. 궁정에서의 입지를 공식화하며, 본인의 대·내외적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부각함과 동시에 사회적 입지를 드러내는데 예술 작품을 크게 활용하였다<sup>210)</sup>. 초상화는 그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물의 대표라 할 수 있다. <그림 69>는 폰파두르 부인이 이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의뢰하여 1758년에 제작된 부세의 대표작 <폰파두르 부인의 초상(Portrait of the Marquise de Pompadour)>이다. 부세는 폰파두르 부인의 의중을 가장 잘 담아내어 그녀의 아낌없는 찬사를 받은 화가이다. 화가로서 막강한 후원자를 얻는다는 것이 부와 명성을 누리는 한편, 자신의 예술 세계를 후원자의 취향과 요구에 맞추어야 한다는 위험 부담도 따른다<sup>211)</sup>. 하지만 부세에게 폰파두르 부인은 그의 예술 세계에 매혹된 최고의 후원자로 작품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였다. 그는 폰파두르 부인의 초상화를 통해 화려함, 장식성, 관능미를 담아내며<sup>212)</sup> 귀족적 취향의 경쾌함과 평화로움을 작품에 표현하였다. <그림 70>과 같이 장식이 많은 세련된 치장과 여신처럼 장밋빛으로 미화된 얼굴 묘사 역시 당시의 회화적 예술 양식을 보여주고 있다<sup>213)</sup>. 18세기 중반에 두드러

207) NAVER.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571204&cid=58862&categoryId=58878>  
(검색일자: 2018.3.22.)

208) 김광우(2006). 전계서. p.101.

209) 이은기, 김미정(2006). 전계서, p.315.

210) 박소은(2016). “18세기 프랑스 귀족과 예술 후원: 프랑수아 부세의 사랑의 신화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7.

211) 백찬욱(2010). “로코코 성립과정과 중국에 대한 인식부족: 부세의 창조 시기 그림들의 경우”, *동양인문학*, 17, p.412.

212) 박소정(2016). 전계서. p.41.

213) 이은기, 김미정(2006). 전계서, p.315.

진 활동을 보인 부세는 퐁파두르 부인의 초상화를 여러 점 남겼지만, 초상화가로서 작품 활동에 집중하지는 않았다. 부세가 작업한 초상화는 수량적으로 많지 않아 베르사이유 궁에 소장품으로 남아 있지 않다. 하지만 궁정화가로서 퐁파두르 후작 부인의 후원을 받은 주요 화가였으며, 본인의 초상화 작품 중 절반 이상을 퐁파두르 부인 초상화에 집중하였다. 또, 루이 15세 시기에 영향력이 큰 퐁파두르 부인과의 회화적 관계와 더불어 18세기 중반 왕실의 분위기, 프랑스 로코코 양식의 완벽한 취향을 표현한 궁정화가로서의 의미 있게 살펴볼 수 있다.



<그림 69> 퐁파두르 부인의 초상  
출처 : 뮌헨 알테 피나코텍 미술관  
(검색일자 : 2018.03.01.)



<그림 70> 마담 퐁파두르  
출처 : 런던 윌리스 컬렉션 미술관  
(검색일자 : 2018.03.01.)

#### (4) 엘리자베스 루이즈 비제-르 브뤽

엘리자베스 루이즈 비제-르 브뤽(Elisabeth-Louise Vigee-Le BRUN,

1755-1842)은 18세기 후반에 활동한 여성 화가 중 가장 유명한 인물이다. 루이 16세의 왕비인 마리 앙투와네트의 총애를 받으며, 프랑스 왕실 궁정 화가이자 공식 초상화가로 활동하였다<sup>214</sup>). 그녀는 1779년에 마리 앙투아네트의 공식 초상화가로 임명되어 베르사이유 궁에서 여왕의 초상화를 전속으로 담당하였다. 특히, 친구처럼 가깝게 지내며 여왕의 걸모습으로 보이는 사치스러움이 아닌 인간적이고 쾌활한 성격을 드러내는 그림을 그렸다고 평가받고 있다<sup>215</sup>). 비제 르 브룅이 눈 앞에서 왕비를 실제 모델로 하여 그린 첫 작품은 1778년에 제작된 <로브 아 파니에를 입은 마리 앙투아네트 왕비(Le reine Marie-Antoinette en robe a paniers)>이다. <그림 71>를 살펴보면 실내건축물을 배경으로 하여, 우아함과 성숙미가 느껴지는 풍성한 흰색 공단 드레스와 방석 위의 왕관이 놓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왕비의 공식 초상화로 내세우기에 충분한 위엄을 갖추었다는 찬사를 받으며, 실제 왕비가 무척 좋아하고 아꼈던 초상화로 알려져 있다. 또한, 당시 궁정 화가들에게 ‘교본’처럼 여겨진 수작으로 호평받으며, 이후 많은 모사에 의한 복제품을 남겼다<sup>216</sup>). <그림 72> 속에서는 다양한 곡선이 돋보이는 레이스와 리본 장식의 드레스, 높고 화려한 헤어스타일, 섬세한 얼굴 표현을 통해 18세기 로코코 양식 특유의 복식과 미용이<sup>217</sup>) 표현되었다. 그녀는 초상화 작품만 600여 점 이상 그린 다작 활동을 보여주었고<sup>218</sup>), 마리 앙투아네트 왕비의 전폭적인 지지와 후원 속에 1783년, 마침내 초상화가로서 프랑스 왕립 회화·조각 아카데미에 입회<sup>219</sup>)하게 된다.

214) 박소정(2016). 전계서, p.41.

215) 류경화, 김양희(2014). 전계서, p.91.

216) 지앤씨미디어 학술팀, 편집부(2010). 전계서, p.149.

217) 박소정(2016). 전계서, p.41.

218) 두산백과. [http://www.doopedia.co.kr/doopedia/master/master.do?\\_method=view&MAS\\_IDX=101013000999764](http://www.doopedia.co.kr/doopedia/master/master.do?_method=view&MAS_IDX=101013000999764) (검색일자: 2018. 3. 24.)

219) 윤민주(2015). 전계서, p.18.



<그림 71> 로브 아 파니에를 입은  
 마리 앙투아네트 왕비  
 출처 : 프랑스 베르사이유 궁 박물관  
 (검색일자 : 2018.03.24.)



<그림 72> 장미를 들고 있는  
 마리 앙투아네트 왕비  
 출처 : 프랑스 베르사이유 궁 박물관  
 (검색일자 : 2018.03.24.)

### (5) 아델라이드 라비유 귀아르

아델라이드 라비유 귀아르(Adélaïde Labille-Guiard, 1749-1803)는 프랑스 파리 출생으로 프랑수아 엘리 뱅상(François-Elie Vincent)에게 사사받으며, 그의 아들 프랑수아 안드레(François-André)와 함께 미니어처 초상화와 유화를 배우기 시작하였다<sup>220</sup>). 라비유 귀아르에게 화가로서 입지를 다지게 한 건 1785년에 열린 아카데미 살롱 전시회에 출품한 <그림 73>의 <두 제자와 함께 있는 자화상(Self-Portrait with Two Pupils)>으로 여성 화가로서의 명성을 확고히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sup>221</sup>). 이후, 라비유 귀아르는

220) Arten Company. <https://www.artencompany.com/product/untitled-24> (검색일자: 2018. 3. 28.)

마리 앙투아네트 왕비보다는 루이 16세의 고모인 마리 아델라이드(Marie Adélaïde de France)와 왕가 부인들의 초상화를 그리는 공식 궁정화가로 임명되었고<sup>222)</sup>, 정부 후원금을 지원받으며 여러 점의 왕실 초상화를 작업하였다. 그녀가 궁정 초상화가로 그린 유명한 초상화 중 <그림 74>는 마담 아델라이드를 주인공으로 하고 있으며, 왕자나 왕비보다 비교적 낮은 존재감으로 후손이 없는 공주의 스스로 영예로운 지위가 드러나도록<sup>223)</sup> 담아내었다.



<그림 73> 두 제자와 자화상  
출처 : 뉴욕 메트로폴리탄 뮤지엄  
(검색일자 : 2018.03.28.)



<그림 74> 마리 아델라이드 초상  
출처 : 프랑스 베르사이유 궁 박물관  
(검색일자 : 2018.03.31.)

18세기 프랑스 초상화는 인물을 표현함에 있어서 얼굴, 의복, 장신구 심지어

221) 휘트니 채드워 저, 김이순 역(2006). 「여성, 미술, 사회: 중세부터 현대까지 여성 미술의 역사」, 서울: 시공아트, p.209.

222) 상계서, p.206.

223) 브리짓 킨 저, 박찬원 역(2017).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라: 미술사가 놓친 위대한 여성 예술가 15인」, 과주: 아트박스, p.91-95.

어 인물 외의 배경, 소품까지도 의미를 담아 세밀하고 섬세하게 잘 표현하고 있다. 18세기 회화 스타일의 포문을 연 초기 화가였던 와토를 시작으로 중기에서 말기까지 활동하였던 4명의 궁정 초상화가들을 통해 이와 같은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당시 18세기 프랑스 미술계에서 공식적으로 궁정의 임명과 총애를 받는다는 것이 예술 분야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표 5>를 살펴보면, 특정 왕실 인물과 궁정화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왕실 인물의 초상화를 통해 인정받는다는 것은 막강한 예술적 권력을 동시에 얻게 하였고, 이들이 남긴 작품들은 왕조의 계승과 더불어 여전히 프랑스의 역사로 남아 있다. 18세기의 주요 배경이었던 프랑스 베르사이유 궁은 많은 예술 작품들이 보존되어 있고, 프랑스 왕족들의 초상화를 가장 많이 찾아볼 수 있는 역사적 거점으로 남아 있다.

<표 5> 왕실 인물과 궁정 화가

왕실 인물	궁정 화가
루이 15세와 공주들	장 마르크 나티에
마담 폰파두르	프랑수아 부세 / 장 앙투안 와토
마리 앙투아네트	비 제르 브뤽
루이 16세의 고모	라비유 귀아르

### Ⅲ. 연구 방법

18세기 프랑스 여성초상화에 나타난 의복의 장식 특성을 분석을 통한 네일아트 디자인 연구를 위한 연구대상, 연구 자료 분석, 연구 방법은 아래와 같다.

#### 1. 연구대상

프랑스에 소재한 베르사이유 궁에 소장된 18세기 초상화를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베르사이유 궁 공식 홈페이지(<http://www.chateauversailles.fr>)를 이용하여 2017년 9월 1일에서 2017년 10월 31일까지 초상화의 이미지를 110점 수집하였고, 이미지의 번호는 시기별로 먼저 제작된 순서로 순차적으로 부여하였다.

18세기의 시기는 1701년부터 1800년까지로 구분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로코코 예술사조의 특징이 뚜렷한 의복을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어 루이 14세의 서거 후인 1715년부터 프랑스 혁명이 발발한 1789년까지를 기준하였다. 세부적으로는 초기, 중기, 후기로 구분하여 초기는 루이 15세의 섭정기인 1715년부터 1723년까지, 중기는 루이 15세의 친정기인 1723년부터 1774년까지, 후기는 루이 16세의 시대인 1774년부터 1789년까지로 구분<sup>224)</sup>하였다.

초상화는 여성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의복이 상반신 이상 보이는 회화(painting) 형태의 작품을 위주로 수집하였다.

---

224) 이나경(2014). “로코코 시대 헤어스타일의 조형적 특성을 응용한 현대 업스타일 디자인 연구”,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4.

## 2. 연구 자료 분석





















수집한 베르사이유 궁에 소장된 110점의 18세기 프랑스 여성초상화에 대하여 먼저 화가, 인원, 구도, 의복의 주요 색상, 트리밍의 유무로 분류하였다. 초상화의 분류는 <표 6>과 같이 의류학과 교수 및 뷰티학과 교수, 네일아트 실무진을 포함한 총 8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전문가 집단의 분석은 2017년 11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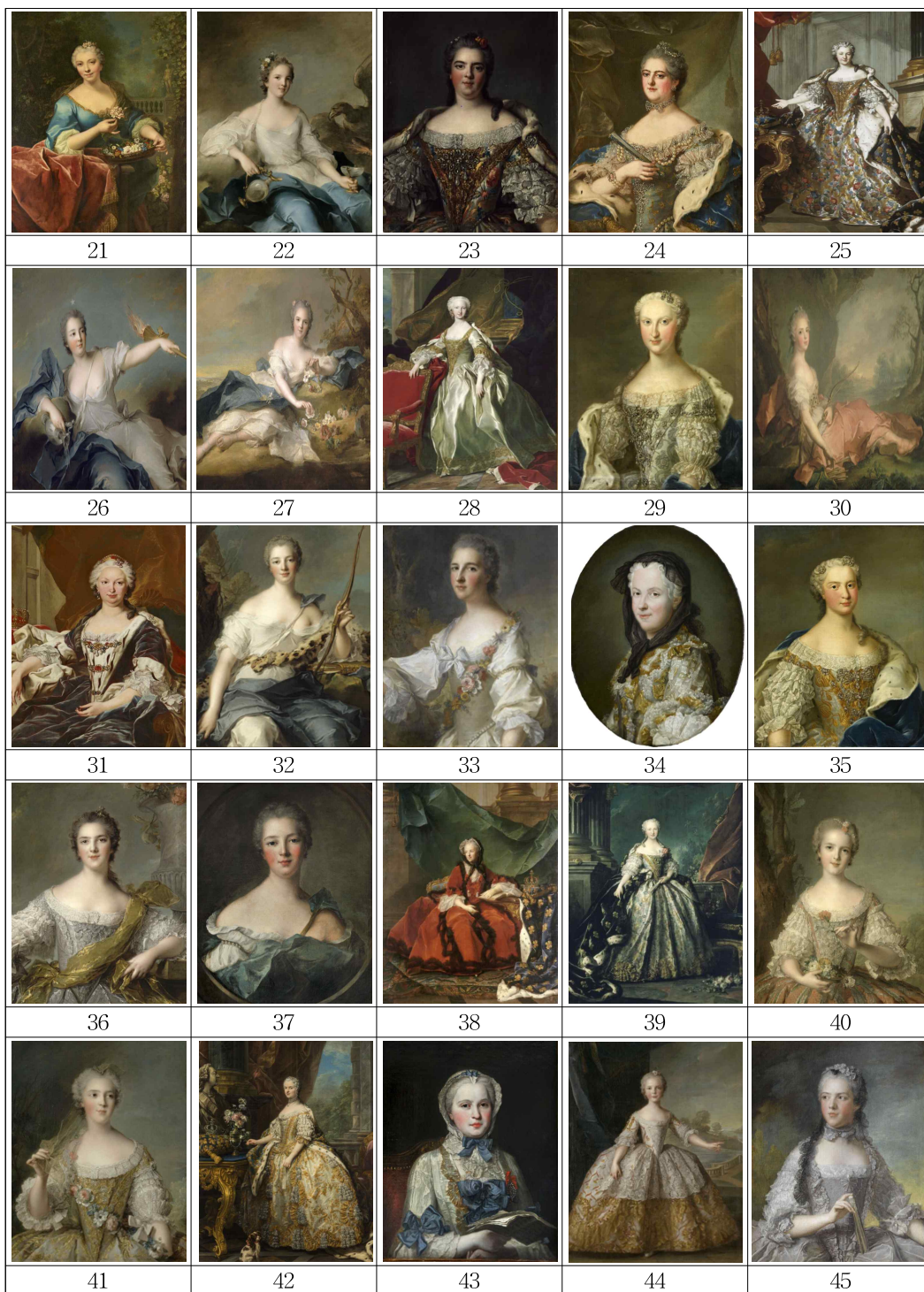
<표 6> 초상화 분석을 위한 전문가 집단 구성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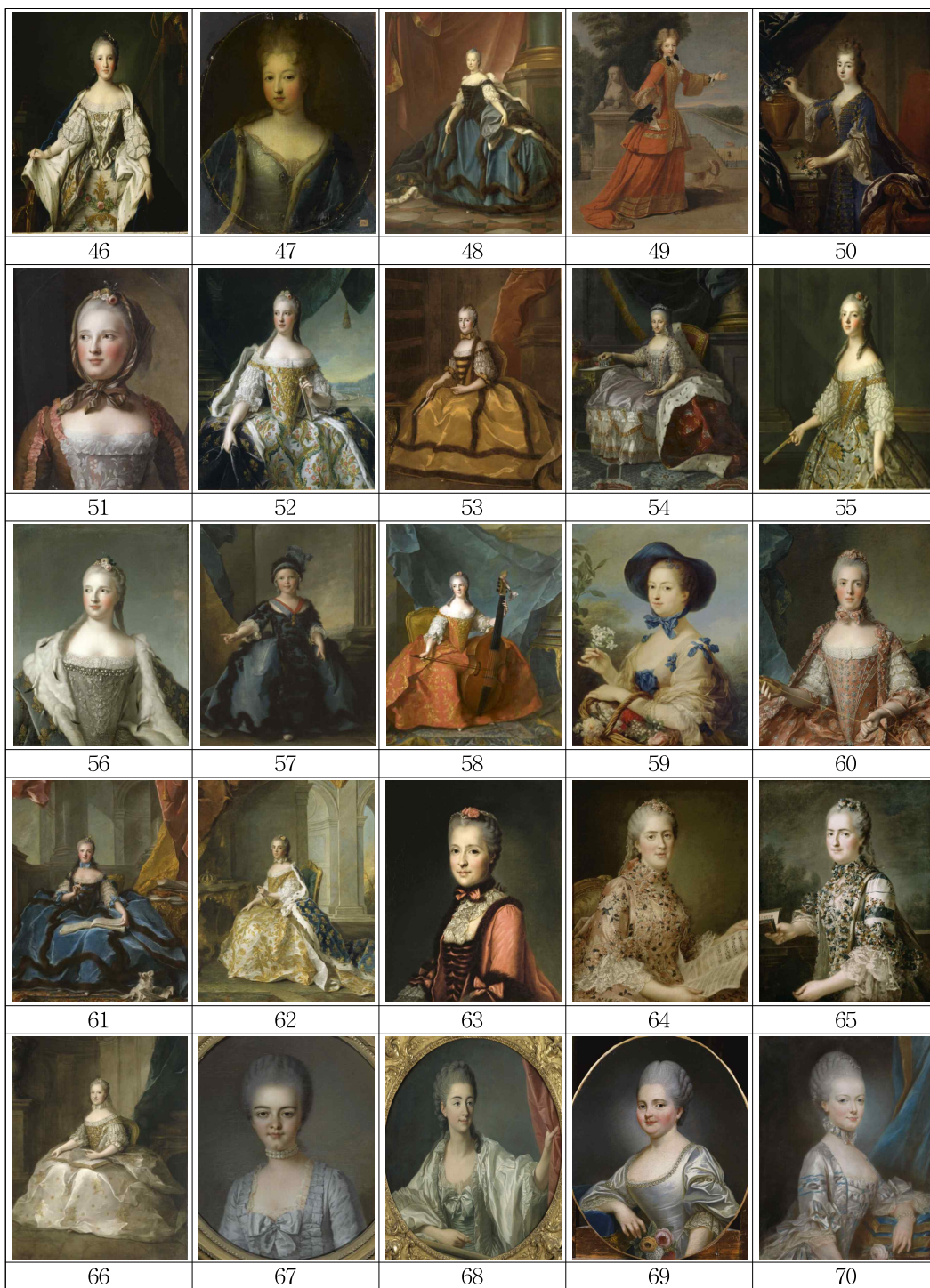
번호	이름	분야	직급	경력
1	A	의류학과	교수	20년이상
2	B	의류학과	교수	20년이상
3	C	뷰티학과	교수	20년이상
4	D	뷰티학과	겸임교수	15년이상
5	E	네일전문학원	원장	15년이상
6	F	네일제품회사	대표	20년이상
7	G	네일살롱	원장	10년이상
8	H	네일브랜드	네일 브랜드 에듀케이터	10년이상





















본 연구에 분석 자료로 사용된 베르사이유 궁에 소장된 18세기 프랑스 여성초상화 총 110점의 목록은 다음 <표 7>과 같다.





















<표 7> 18세기 프랑스 여성초상화의 목록

18세기 초기 (1715~1723)				
				
1	2	3	4	5
				
6	7	8	9	10
18세기 중기 (1723~1774)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71	72	73	74	75
18세기 후기 (1774~1789)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베르사이유 궁에 소장된 작품 중 본 연구의 분석 시기와 일치하는 여성초상화는 총 110점으로, 18세기 초기에 제작된 초상화는 10점, 중기에 제작된 초상화는 65점, 후기에 제작된 초상화는 35점이다.




18세기 초기 초상화의 수를 살펴보면, 루이 15세의 섭정기이자 그 기간이 8년 정도로 통치 시기가 짧았으며, 섭정을 맡았던 필립 오를레앙 공(Philippe d'Orleans, 1674-1723)이 베르사이유 궁을 왕실로 두지 않았다는 점에서 초상화의 소장이 적은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후기인 루이 16세의 시대도 프랑스 혁명의 발발로 인하여 15년이라는 짧은 통치 시기를 두고 있어, 상대적으로 루이 15세의 친정기에 비해 소장품 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 1) 화가별 분류

베르사이유 궁은 실제 루이 왕족들이 거주하였던 곳으로, 앞서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본 5명의 궁정 화가 중 3명의 작품도 다수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베르사이유 궁에 소장된 18세기 여성화 초상화 작품 중 <표 8>에 보여진 바와 같이 루이 15세 시대에 활동하였던 장 마르크 나티에의 작품 29점, 루이 16세 시대에 활동하였던 비제-르 브뤼의 작품 9점, 라비유 귀아르의 작품 5점으로 총 43점의 여성초상화를 소장하고 있었다.

궁정 화가들의 초상화 작품 속에는 이론적 배경에서 다루었던 화가의 특징도 함께 찾아볼 수 있었다. 특히, 장 마르크 나티에의 작품 중 그가 즐겨 사용하던 블루 색상이 표현된 초상화는 총 8점으로 나타났으며, <표 7>의 초상화 목록에 따라 22, 26, 27, 32, 37, 48, 57, 61번에서 블루 계열의 나티에 색상 사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8> 18세기 프랑스 여성초상화 중 궁정화가의 작품

궁정 화가	작품 수	작 품
장 마크 나티에	29	
비제 르 브뤽	9	
라비유 귀아르	5	
합 계	43	

## 2) 초상화의 인원 구성

18세기 프랑스 여성초상화의 인원 구성은 단독, 2인 초상화, 3인 이상의 초상화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표 9>와 같이 초기·중기·후기 모두 단독 초상화의 형태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2인 초상화와 3인 이상 초상화의 경우에는 배경적인 요소에 하녀가 함께 등장하거나 형제 혹은 자녀들과 함께 그려진 형태로 확인할 수 있었다.

<표 9> 18세기 프랑스 여성초상화의 인원 구성

시기 \ 인원	단독	2인	3인 이상
초기	8	2	
중기	62	2	1
후기	32	1	2
합계	102	5	3

### 3) 초상화의 구도별 분류

18세기 프랑스 여성초상화의 구도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이는 전신 구도와 머리부터 무릎 가까이 보이는 상반신 구도, 허리 위까지 보이는 상반신의 구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표 10>과 같이 초기의 초상화는 앉아있는 모습에서 무릎 정도까지 보이는 구도가 많이 보여지고 있다. 중기와 후기에서는 전신 구도와 허리 위 상반신 구도가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정면보다는 측면의 형태에서 허리 위 상반신 구도로 그려진 초상화가 다소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10> 18세기 프랑스 여성초상화의 구도

시기 \ 구도	전신	무릎 위 상반신	허리 위 상반신
초기	3	6	1
중기	22	15	28
후기	14	7	14
합계	39	28	43

#### 4) 초상화에 나타난 의복의 주요 색상별 분류

18세기 프랑스 여성초상화에 나타난 의복의 주요 색상은 가장 많이 차지하는 드레스의 색상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색상의 구분은 화이트/실버 계열, 블루 계열, 레드/핑크 계열, 옐로우/골드 계열, 그린 계열, 퍼플/블랙 계열로 총 6가지의 계열로 구분하였다.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표 11>과 같이 18세기 프랑스 여성초상화에는 화이트/실버 계열과 블루 계열, 레드/핑크 계열이 가장 많이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초기의 드레스 색상은 블루 계열이 가장 많았으며, 그 외에 다양한 색상이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터 후기까지는 초기에 비해 다양한 색상의 드레스가 고르게 보여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기에는 초상화의 반절 정도가 화이트/실버 계열의 드레스로 나타났으며, 다른 색상과의 조화 혹은 덧대어지는 자수나 장식의 부각을 위해 전반적인 드레스 색상에 화이트/실버 계열을 선호한 것으로 보여진다. 후기에는 전반적인 색상들이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톤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초기와 마찬가지로 블루 계열의 드레스가 초상화에 조금 더 많이 나타난 것으로 보여진다.

<표 11> 18세기 프랑스 여성초상화의 의복 색상

색상 시기	화이트 / 실버 계열	블루 계열	레드 / 핑크 계열	옐로우 / 골드 계열	그린 계열	퍼플 / 블랙 계열
초기	3	6	1	•	•	•
중기	30	13	13	6	2	1
후기	8	12	7	1	3	4
합계	41	31	21	7	5	5

### 5) 트리밍의 유무별 분류

18세기 프랑스 여성초상화에 나타난 트리밍을 분석하기 위해 의복에 부착할 수 있는 장식 형태인 트리밍의 유무를 구분하였다. <표 12>와 같이 총 110점의 초상화 중에서 트리밍을 확인할 수 있는 초상화는 97점으로 나타났으며, 트리밍을 확인할 수 없는 초상화는 초기 초상화 5점과 중기 초상화 7점, 후기 초상화 1점으로 총 13점으로 나타났다.

트리밍을 확인할 수 없는 초상화의 경우는 주인공을 신화 속 인물로 묘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거나 장식이 없는 소재의 드레스를 입은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트리밍을 확인할 수 없는 초상화는 앞서 정리한 <표 7>의 초상화 목록을 기준으로 3, 5, 6, 7, 8, 21, 22, 26, 27, 30, 32, 37, 93번이다.

<표 12> 18세기 프랑스 여성초상화에 나타난 트리밍 유무

시기 \ 유무	트리밍 있음	트리밍 없음
초기	5	5
중기	58	7
후기	34	1
합계	97	13

위와 같은 요인들로 연구 자료인 베르사이유 궁에 소장된 총 110점의 18세기 프랑스 여성초상화를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초상화의 수는 18세기 중에서 중기에 속하는 루이 15세의 친정기에 제작된 여성초상화가 제일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많은 궁정 화가들 중에 장 마르크 나티에의 작품이 29점으로 가장 많이 소장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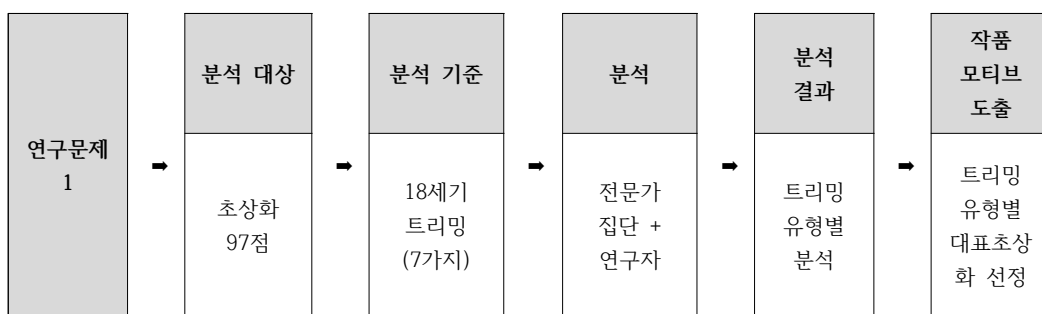
또한, 전체적인 초상화를 살펴보면 단독으로 그려진 초상화의 형태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주인공이 측면으로 있는 상태에서 허리 위의 상반신 구도나 전신 구도의 형태로 많이 그려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18세기 프랑스 여성초상화에서 주로 나타난 의복의 색상은 드레스를 기준하여 중기와 후기로 갈수록 다양한 색상들이 등장하지만, 대체적으로 화이트/실버 계열과 블루 계열, 레드/핑크 계열을 선호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불어 의복에 덧붙여 장식할 수 있는 트리밍의 사용이 18세기 여성 의복에 빈번히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총 110점의 초상화 중에 97점의 초상화에서 트리밍으로 의복을 장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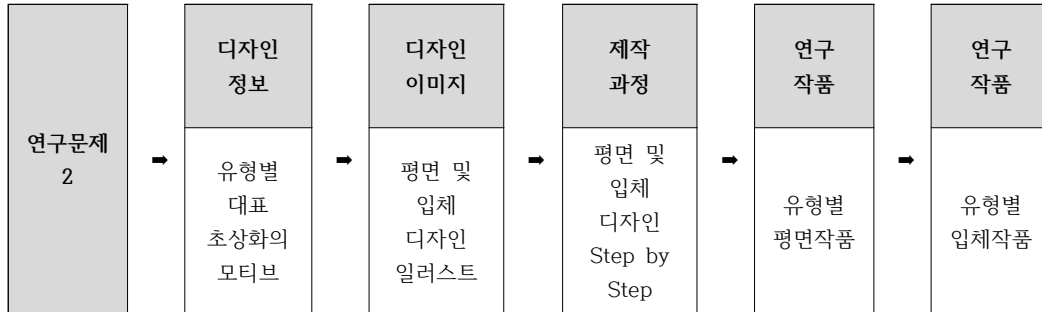
### 3. 연구 방법

18세기 프랑스 여성초상화에 나타난 의복의 장식특성 분석을 통한 네일아트 디자인 연구를 위한 연구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며, 각 연구문제에 따른 전반적인 연구 방법의 흐름은 <표 13>, <표 14>와 같다.

<표 13> 연구문제 1의 연구 절차



<표 14> 연구문제 2의 연구 절차



첫째, 앞서 진행한 연구 자료의 분석으로 선별된 트리밍을 확인할 수 있는 18세기 프랑스 여성초상화 97점을 통하여 유형별 트리밍을 분석하고, 작품의 모티브를 도출할 수 있는 각 유형별 대표초상화를 선정한다. 이론적 고찰 결과에 따라 유형화된 18세기 트리밍 7가지를 기준하여, 전문가 집단의 도움을 받아 초상화에 나타난 트리밍의 유형을 분석하였고 연구 작품의 모티브를 위한 대표 초상화 선정은 연구자 의견 50%와 전문가 집단 의견 50%를 반영하여 최종 선정하였다.

둘째, 트리밍의 유형별로 선정된 대표 초상화 7점을 모티브로 하여 각 유형별 평면 네일 디자인 작품과 입체 네일 디자인 작품을 제작한다. 먼저 대표 초상화의 디자인 정보를 살펴보고, 평면 및 입체 네일 디자인의 일러스트를 구상하였다. 구상된 평면 및 입체 네일아트 디자인은 단계별 주요 디자인 제작 과정을 거쳐 각 트리밍 유형별 평면 네일아트 작품 7점과 입체 네일아트 작품 7점으로 총 14점의 연구 작품을 제작하였다.

## IV. 연구 결과

### 1. 트리밍 유형 분석 및 선정

18세기 의복에 사용된 트리밍의 유형을 구분한 결과, 아플리케와 코드·브레이드·레이스·리본·비즈·코사지와 로제트·프린지와 태슬과 같이 총 7가지의 트리밍으로 유형화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7가지로 유형화된 18세기 트리밍을 토대로 베르사이유 궁에 소장된 18세기 프랑스 여성초상화 97점에 나타난 트리밍을 분석하였다. 앞서 연구 자료 분석에 의해 트리밍을 확인할 수 있는 여성초상화 97점을 분류하였고, 분류된 초상화에 나타난 트리밍의 분류는 의류학과 교수 및 미용학과 교수, 네일아트 실무진을 포함한 총 8명의 전문가 집단과 함께 18세기 트리밍의 7가지 유형에 기준하여 분석하였다. 97점의 초상화는 <표 7>의 초상화 목록을 활용하여 초기, 중기, 후기의 초상화를 구분하였고, 해당 트리밍별 확대 이미지 수집과 초상화 번호도 함께 정리하였다.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아플리케와 코드




아플리케와 코드는 자수 형태의 의복 트리밍으로 <표 15>와 같이 18세기 전반으로 여성 의복에 사용되었으나 초기와 중기의 여성초상화에 가장 많이 등장하였다. 각 시기별 총 분석 초상화 수에 대비하면 초기의 여성초상화 총 5점 중 4점, 중기의 여성초상화 총 58점 중 33점에서 나타나며 과반 이상의 수치로 아플리케와 코드 트리밍을 찾아볼 수 있었다. 반면에 후기의 여성초상화에서는 총 34점 중 4점에서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었다. 18세기

초기부터 후기의 여성초상화에 나타난 아플리케와 코드의 문양을 살펴보면, 주로 금사를 이용한 자수 형태가 많았으며 꽃과 꽃잎 혹은 식물의 줄기를 연상케 하는 곡선 문양의 사용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상화에 나타난 아플리케와 코드를 18세기 여성 의복 장식과 비교하였을 때, 자수 디자인이 주로 꽃과 꽃잎, 식물 등을 사용하였고 연속적인 곡선의 문양도 함께 사용하였던 점에서 시대 의복 장식과 일치하는 면을 보였다. 18세기 프랑스 여성초상화에 나타난 아플리케와 코드를 확인한 결과, 18세기 초기부터 중기인 루이 15세 시대의 여성 의복에서 성행하였던 트리밍의 하나로 보여지며, 루이 16세의 시대로 갈수록 사용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표 15> 18세기 프랑스 여성초상화에 나타난 아플리케와 코드

트리밍 시기	아플리케와 코드 수 / 전체 초상화 수	해당 초상화 이미지 및 번호		
초기	4 / 5			
		1번(코드)	1번(아플리케)	4번(아플리케+코드)
중기	33 / 58			
		11번(코드)	46번(아플리케)	52번(아플리케+코드)

후기	4 / 34			
		77번(아플리케)	102번(코드)	110번(코드)

## 2) 브레이드

브레이드는 선의 형태로 쓰이며 의복의 테두리 장식이나 단 처리 장식으로 사용되는 의복 트리밍으로, <표 16>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18세기 중기와 말기 여성초상화에 비슷한 수치로 등장하였다. 각 시기별 총 분석 초상화 수에 대비하면 초기의 여성초상화에서는 브레이드의 사용을 찾아볼 수 없었으며, 중기의 여성초상화 58점 중 23점과 후기의 초상화 34점 중 22점에서 브레이드 트리밍이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8세기 중기와 후기 여성초상화에서 보여지는 브레이드를 살펴보면, 의복에 사용하지 않은 다른 소재의 끈 형태나 금사로 놓인 자수 형태의 끈을 옷깃이나 의복 가장자리에 두르며 사용하였다. 또한, 꽃이 수놓아진 일정한 넓이의 천을 브레이드로 사용한 형태도 확인할 수 있다.

초상화에 나타난 브레이드를 18세기 여성 의복 장식과 비교하였을 때, 꽃무늬의 브레이드 자수를 사용한 점과 브레이드의 형태에서 끈 혹은 천의 형태 모두 찾아볼 수 있었던 점에서 시대 의복 장식과 일치하는 면을 보였다.

18세기 프랑스 여성초상화에 나타난 브레이드를 확인한 결과, 18세기 중기부터 후기까지 꾸준히 여성 의복에 사용된 트리밍으로 보여지며, 각각의 총 분석 초상화 수에 대비하여 해당 초상화 수를 비교하였을 때 루이 16세의 시대이자 18세기 후기에 접어들수록 브레이드 사용이 훨씬 더 빈번해지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16> 18세기 프랑스 여성초상화에 나타난 브레이드

트리밍 시기	브레이드 수 / 전체 초상화 수	해당 초상화 이미지 및 번호		
초기	0 / 5	없음		
중기	23 / 58			
		16번	46번	49번
후기	22 / 34			
		78번	83번	102번

### 3) 레이스

레이스는 18세기의 여성 의복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였던 소재이며, 의복 장식으로써 가는 폭의 레이스 역시 빈번하게 사용되었다. 본 장에서도 역시 레이스가 분석 유형으로 쓰이는 7가지의 트리밍 중 압도적으로 18세기 프랑스 여성초상화에 등장하였으며, 18세기 초기부터 후기까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표 17>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18세기 프랑스 여성초상화의 총 97점 중 89점에서 레이스 트리밍이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각 시기별 총 분석 초상화 수와 대비하면 초기의 여성초상화 총 5점 모두에서 레이스 트리밍이 나타났으며, 중기의 여성초상화 총 58점 중 53점, 후기의 여성초상화 총 34점 중 31점에서 레이스 트리밍이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초기부터 후기까지 여성 초상화에 보여지는 레이스 트리밍을 살펴보면, 금사로 수놓아진 레이스나 꽃무늬, 곡선무늬, 눈꽃무늬, 물결무늬 등 다양한 패턴들의 레이스가 일정한 폭의 형태로 네크라인, 가슴 앞쪽, 의복 가장자리에 부착되어 사용되었다. 또한, 꼬임 방식을 이용하여 레이스 끈 장식으로 만들어 브레이드와 같은 형태로 사용한 점도 찾아볼 수 있었다.

초상화에 나타난 레이스를 18세기 여성 의복 장식과 비교하였을 때, 가슴 앞쪽 장식이나 네크라인을 따라 폭이 좁은 레이스를 사용한 점이나 스커트의 밑단 혹은 의복의 가장자리를 장식하기 위하여 끈 형태의 레이스 트리밍을 사용한 점에서 시대 의복 장식과 일치하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18세기 프랑스 여성 초상화에 나타난 레이스를 확인한 결과, 레이스는 시기와 상관없이 18세기 초기부터 후기까지 꾸준히 의복 장식으로 사용되었으며, 여성 의복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트리밍으로 보여진다.

<표 17> 18세기 프랑스 여성초상화에 나타난 레이스

트림 시기	레이스 수 / 전체 초상화 수	해당 초상화 이미지 및 번호		
초기	5 / 5			
		2번	9번	10번
중기	53 / 58			
		11번	24번	71번
후기	31 / 34			
		99번	101번	108번

#### 4) 리본

리본은 옷감 등의 소재로 만든 긴 띠를 이용하여 좌우 대칭이 되도록 매듭지어 장식하는 트림으로, 레이스와 더불어 여성성이 부각되는 대표적인 의복 장식이다. 리본 트림의 사용은 <표 18>과 같이 18세기 초기 여성초

상화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으며, 중기와 후기 여성초상화에서는 비슷한 수치로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기의 여성초상화는 총 58점 중 15점에서 나타났으며, 후기의 여성초상화에서는 총 34점 중 23점에서 리본 사용이 나타났다. 그러나 각 시기별 총 분석 초상화 수에 수치를 대비하면, 중기보다 후기에 리본 사용이 더 빈번히 등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18세기 중기부터 후기까지 사용된 리본을 살펴보면, 하나의 리본을 가슴 중앙 부분에 가장 많이 사용하였고 그 크기가 대체적으로 큰 형태의 리본으로 부착하였다. 그 외에 어깨나 소매, 치마 부분으로 갈수록 상대적으로 작은 리본을 대칭으로 부착하는 형태가 많이 나타났다. 리본의 색상은 전반적으로 의복에 사용된 같은 소재와 색상으로 만들어 부착하였고, 장식적인 강조를 위해서 다른 소재와 색상으로 만들어 부착하는 경우도 보였다.

초상화에 나타난 리본을 18세기 의복 장식과 비교하였을 때, 시대 의복 장식에서 보였던 큰 리본에서 작은 리본까지 크기별로 칸칸이 가슴에서 허리선까지 붙여 내려가는 형태는 찾아볼 수 없었지만, 성적 매력을 부각하기 위하여 큰 리본을 가슴에 부착한 형태나 다양한 나비 형태로 묶어서 대칭적으로 장식한 점에서는 시대 의복 장식과 일치하는 면을 보였다.

18세기 프랑스 여성초상화에서 나타난 리본을 확인한 결과, 초기 시대보다는 중기인 루이 15세의 시대부터 리본 장식 사용량이 늘어나며 후기의 루이 16세 시대로 갈수록 대부분의 여성 의복에서 리본 트리밍이 빈번히 사용된 것을 확인하였다.

<표 18> 18세기 프랑스 여성초상화에 나타난 리본

트리밍 시기	리본 수 / 전체 초상화 수	해당 초상화 이미지 및 번호		
초기	0 / 5	없음		
중기	15 / 58			
		43번	53번	67번
후기	23 / 34			
		71번	82번	92번

### 5) 비즈










비즈는 작고 다양한 재질과 색상을 가진 보석류의 의복 장식으로, <표 19>와 같이 18세기 초기부터 후기까지 전반에 걸쳐 여성 의복에 등장하였으나 초기와 중기에 더 빈번히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각 시기별 총 분

석 초상화 수에 대비하면 초기의 여성초상화 총 5점 중 4점, 중기의 여성초상화 총 58점 중 21점에서 나타났으며, 후기에는 총 34점 중 4점에서만 등장하여 상대적으로 초기와 중기에 비해 비즈 장식의 사용이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초기부터 후기까지 사용된 비즈를 살펴보면, 주로 진주의 사용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크리스탈의 사용이 많았다. 크고 작은 다양한 형태의 유색 보석도 초기부터 후기까지 등장하였고 특히, 레드·블루·그린 계열의 비즈 사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비즈의 사용 형태는 단독적으로 통일감 있게 장식하거나 비즈를 끈으로 엮어 의복의 가장자리에 둘러주는 형태로도 사용하였다. 또한, 진주와 유색 보석류를 함께 장식한 형태도 찾아볼 수 있었으며, 다양한 보석들을 혼합하여 또 다른 형태를 이루는 구도로 비즈 장식을 부착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초상화에 나타난 비즈를 18세기 여성 의복 장식과 비교하였을 때, 진주나 크리스탈, 유색 보석류, 원석 등 다양한 형태와 재질의 비즈 장식을 18세기 프랑스 여성초상화에서도 모두 찾아볼 수 있었던 점에서 시대 의복 장식과 일치하는 면을 보였다.

18세기 프랑스 여성초상화에서 나타난 비즈를 확인한 결과, 각 시기별로 모두 다양한 비즈 장식 사용의 형태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초기와 중기에 비해 후기로 갈수록 비즈 장식 사용이 급격히 감소하였지만 쓰여진 비즈의 재질이나 형태는 계속적으로 유지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표 19> 18세기 프랑스 여성초상화에 나타난 비즈

트리밍 시기	비즈 수 / 전체 초상화 수	해당 초상화 이미지 및 번호		
초기	4 / 5			
		2번	4번	9번
중기	21 / 58			
		11번	31번	54번
후기	4 / 34			
		80번	109번	110번

### 6) 코사지와 로제트

코사지와 로제트는 꽃 형태의 의복 장식으로, <표 20>와 같이 18세기 중기와 후기에서 적은 수치로 등장하였다. 각 시기별 총 분석 초상화 수에 대

비하면 초기의 여성초상화에서는 코사지와 로제트의 사용을 찾아볼 수 없었으며, 중기의 여성초상화 58점 중 5점과 후기의 초상화 34점 중 3점에서 코사지와 로제트 트리밍이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중기부터 후기까지 사용된 코사지와 로제트를 살펴보면, 다양한 구도로 여러 색상의 꽃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잎사귀와 함께 꽃봉우리를 단독적으로 사용한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중기에서는 꽃들을 줄에 엮어 어깨선부터 허리선까지 대각선의 방향으로 부착하는 장식 형태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초상화에 나타난 코사지와 로제트를 18세기 여성 의복 장식과 비교하였을 때, 꽃 줄을 만들어 부착하거나 크고 작은 형태의 꽃들을 모아 다발의 형태로 사용하였던 점에서 시대 의복 장식과 일치하는 면을 보였다.

18세기 프랑스 여성초상화에서 나타난 코사지와 로제트를 확인한 결과, 18세기 여성 의복에 빈번하게 사용되는 트리밍은 아니지만 시대 의복 장식의 특징을 가지고 중기부터 후기까지 계속적으로 사용 형태가 유지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표 20> 18세기 프랑스 여성초상화에 나타난 코사지와 로제트

트리밍 시기	코사지와 로제트 수 / 전체 초상화 수	대표 초상화 이미지 및 번호
초기	0 / 5	없음

중기	5 / 57			
		17번(코사지)	33번(코사지+로제트)	41번(코사지+로제트)
후기	3 / 34			
		79번(로제트)	95번(코사지)	99번(코사지)

## 7) 프린지와 태슬

프린지와 태슬은 의복에 부착하는 술 장식이며, 코사지와 로제트와 마찬가지로 18세기 중기와 후기에 적은 수치로 등장하였다. <표 21>과 같이 각 시기별 총 분석 초상화 수에 대비하면 초기의 여성초상화에서는 프린지와 태슬의 사용을 찾아볼 수 없었으며, 중기의 여성초상화 58점 중 4점과 후기의 초상화 34점 중 5점에서 프린지와 태슬 트리밍이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중기에서 후기까지 사용된 프린지와 태슬을 살펴보면, 둘 중에서는 태슬의 사용이 좀 더 많았으며 프린지의 형태는 중기 초상화 1점, 후기의 초상화 2점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초상화에 나타난 프린지와 태슬을 18세기 여성 의복 장식과 비교하였을 때, 의복의 가장자리에 방울 모양처럼 부착된 형태나 옷감에 직접 절개를 넣어 울을 빼는 방식의 프린지 형태를 사용하였던 점에서 시대 의복 장식과 일치하는 면을 보였다.

18세기 프랑스 여성초상화에서 나타난 프린지와 태슬을 확인한 결과, 전

반적으로 18세기 여성 의복에 빈번하게 사용된 트리밍은 아니지만 중기부터 후기까지 시대 의복 장식의 특징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사용 형태가 유지되었음을 확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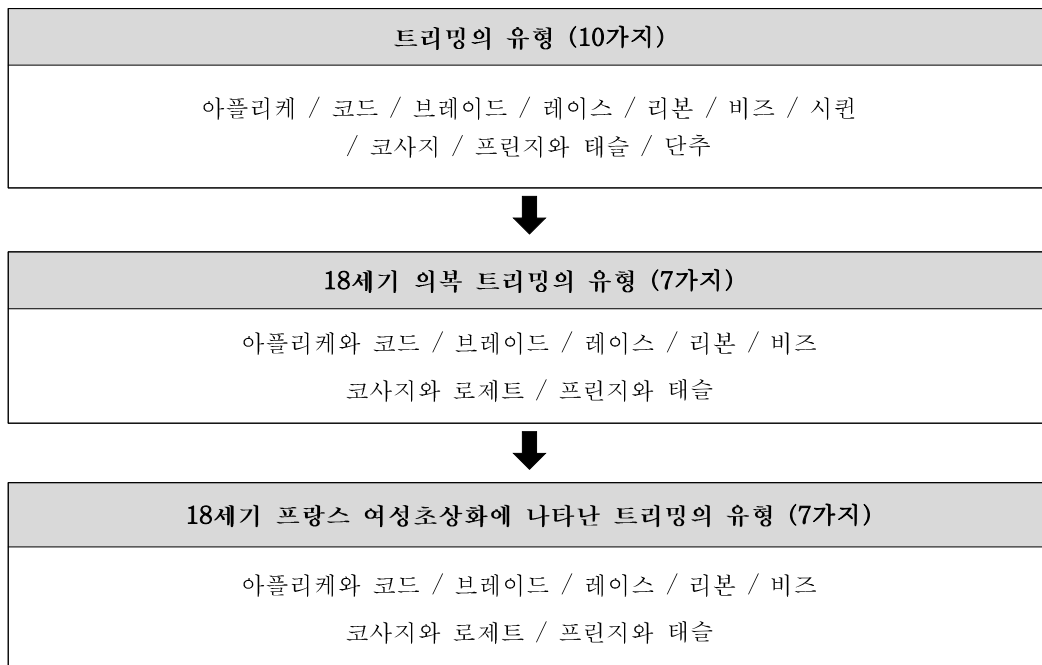
<표 21> 18세기 프랑스 여성초상화에 나타난 프린지와 태슬

트리밍 시기	프린지와 태슬 수 / 전체 초상화 수	대표 초상화 이미지 및 번호		
초기	0 / 5	없음		
중기	4 / 58			
		11번(태슬)	42번(태슬)	50번(프린지+태슬)
후기	5 / 34			
		77번(태슬)	85번(프린지+태슬)	106번(프린지)

위와 같은 7가지 트리밍의 유형에 따라 18세기 프랑스 여성초상화에 나타난 트리밍을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8세기 여성초상화에 나

타난 의복 장식 중 초기·중기·후기 모두에서 사용되었던 트리밍의 유형은 어플리케와 코드, 레이스, 비즈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중 가장 사용이 많았던 트리밍은 레이스 유형으로 수집한 초상화의 대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브레이드와 리본의 경우 초기의 초상화에서 찾아볼 수는 없었지만, 중기와 후기 초상화에서 빈번하게 사용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코사지와 로제트, 프린지와 태슬 유형도 수치상으로 많은 초상화에서 등장하지는 않았지만, 중기와 후기 초상화에서 트리밍으로써 사용된 형태를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본 연구자는 18세기 프랑스 여성초상화에서 분석 기준으로 작용한 18세기 트리밍 7가지의 사용 형태를 모두 확인할 수 있었으며, <표 22>와 같이 초상화에 나타난 트리밍 역시 7가지로 유형화하였다.

<표 22> 18세기 프랑스 여성초상화에 나타난 트리밍의 유형화



다음 <표 23>은 7가지 유형에 따라 분류하였던 18세기 프랑스 여성초상화의 해당 작품 번호이며, <표 7>의 초상화 목록에 따라 정리하였다.

<표 23> 18세기 프랑스 여성초상화에 나타난 트리밍별 해당 초상화 번호

번호	트리밍의 유형	시기	해당 초상화 번호
1	아플리케와 코드	초기	1, 2, 4, 9
		중기	12, 13, 14, 15, 16, 17, 18, 19, 23, 24, 25, 29, 33, 34, 35, 39, 40, 41, 42, 46, 49, 51, 52, 55, 58, 60, 62, 64, 65, 66, 70, 74, 75
		후기	77, 102, 108, 110
2	브레이드	중기	11, 16, 28, 29, 33, 38, 39, 40, 43, 45, 46, 47, 48, 49, 50, 51, 53, 54, 57, 60, 63, 70, 75
		후기	78, 79, 81, 82, 83, 84, 85, 86, 87, 88, 89, 92, 97, 98, 99, 101, 102, 103, 105, 108, 109, 110
3	레이스	초기	1, 2, 4, 9, 10
		중기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3, 24, 25, 28, 29, 31, 33, 34, 35,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50, 51, 52, 53, 54, 55, 56, 57, 58, 60, 61, 62, 63, 64, 66, 67, 68, 70, 71, 72, 73, 74, 75,
		후기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1, 92,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7, 108, 110
4	리본	중기	20, 33, 41, 43, 49, 59, 60, 63, 66, 67, 68, 70, 71, 72, 73,
		후기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8, 100, 101, 102, 104, 105,
5	비즈	초기	2, 4, 9, 10
		중기	11, 12, 13, 14, 17, 19, 23, 24, 25, 31, 33, 35, 39, 42, 45, 46, 54, 55, 56, 58, 69
		후기	77, 80, 109, 110
6	코사지와 로제트	중기	17, 33, 39, 41, 69
		후기	79, 95, 99
7	프린지와 테슬	중기	11, 39, 42, 50
		후기	77, 85, 98, 106, 108







위와 같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연구 작품 진행을 위한 18세기 프랑스 여성 초상화에 나타난 트리밍의 7가지 유형을 확인하였다. 각 트리밍별 특징을 표현하기 위한 시각적 이미지 모티브를 얻기 위하여 유형별 해당 초상화 중 대표 초상화를 선정하였다. <표 24>와 같이 대표 초상화의 선정은 연구자의 의견 50%와 전문가 집단의 의견 50%를 합산하여 선택하였다. 대부분 전체 초상화 수에 비례하여 가장 많은 수치에 해당하는 시기의 초상화 중에서 선별하였으며, 리본만 예외적으로 디테일한 묘사가 더 돋보이는 차선 시기 중 선별하였다.

<표 24> 대표 초상화 선별 자료

	아플리케 와 코드	브레이드	레이스	리본	비즈	코사지와 로제트	프린지와 태슬
A	52번	83번	24번	71번	4번	33번	85번
B	11번	83번	101번	43번	4번	33번	85번
C	52번	83번	24번	71번	4번	33번	85번
D	77번	83번	74번	100번	4번	41번	85번
E	11번	83번	24번	100번	4번	41번	85번
F	52번	83번	24번	71번	4번	33번	85번
G	52번	83번	24번	71번	4번	33번	85번
H	52번	83번	24번	71번	4번	33번	85번
<b>최종</b>	<b>52번</b>	<b>83번</b>	<b>24번</b>	<b>71번</b>	<b>4번</b>	<b>33번</b>	<b>85번</b>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반영하여, 연구 작품의 모티브로 사용될 7가지 트리밍의 각 대표 초상화 이미지는 <표 25>과 같다.

<표 25> 연구 작품의 시각적 모티브를 위한 대표 초상화

트림 유형	아플리케와 코드	브레이드	레이스
초상화 이미지			
트림 유형	리본	비즈	코사지와 로제트
초상화 이미지			
트림 유형	프린지와 태슬		
초상화 이미지			

## 2. 18세기 프랑스 여성초상화에 나타난 의복의 장식특성을 응용한 네일아트 디자인

### 1) 디자인 의도 및 제작방법

#### (1) 디자인 의도

오늘날의 네일 디자인은 끊임없이 개발되는 네일아트 재료의 성장과 높아진 고객들의 눈높이와 요구에 맞추어 참신한 응용력과 다양성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의복에 어울리는 네일 디자인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으며, 과거와는 다르게 아름다움과 개성 표현을 위한 부착하는 네일 장식물의 혼합 사용도 대중적으로 네일 디자인에 적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의복과 네일 디자인의 접목을 위해 여성성과 장식성이 뚜렷하였던 18세기 프랑스 여성초상화에 나타난 의복의 트리밍을 통한 네일디자인 작품으로 제작하고자 하였다. 프랑스 베르사이유 궁에 소장된 18세기 여성초상화에 나타난 트리밍 분석을 통한 네일 디자인을 위해 트리밍, 18세기 여성 의복과 함께 사용된 트리밍을 살펴보고, 7가지 유형의 18세기 의복 트리밍에 기준하여 18세기 여성초상화에 나타난 트리밍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라 18세기 여성초상화에 나타난 7가지 트리밍인 아플리케와 코드, 브레이드, 레이스, 리본, 비즈, 코사지와 로제트, 프린지와 태슬을 확인하였고, 각 유형별 대표 초상화를 선정하여 평면 네일아트 기법과 네일 장식물 부착을 혼용한 입체 네일아트 기법을 사용하여 작품을 제작하였다.

## (2) 제작 방법

18세기 프랑스 여성초상화에 나타난 트리밍 분석을 통해 유형화된 7개의 트리밍에 맞추어 각각 평면 네일 디자인과 입체 네일 디자인으로 총 14점의 네일 디자인 작품을 계획하였다.

작품 제작의 기술 방법은 평면 네일아트 기법과 입체 네일아트 기법을 사용하였고, 의복 장식의 사용 형태와 유사성을 보이는 네일 장식물의 부착을 통해 입체적 효과를 더하여 표현하였다. 평면 네일아트 기법의 사용재료는 컬러 젤을 위주로 사용하였다. 입체 네일아트 기법 역시 컬러 젤을 위주로 제작하며, 효과적인 입체 표현을 위해 엠보 젤이나 아크릴 네일 재료도 혼용하여 사용하였다. 이미 만들어져 있는 네일 장식물의 부착도 함께 사용하여 입체적 아트 효과를 더욱 높여주었다.

네일 장식물 역시 평면 장식물과 입체 장식물 모두를 혼용하여 사용한다. 사용한 평면 네일 장식물은 네일 필름, 데칼, 글리터 등을 사용하였고, 입체 네일 장식물은 인조 보석류, 네일 파츠, 네일용 데코 실 등을 사용하였다. 네일 디자인은 보통 성인 여성의 엄지부터 소지까지의 손톱 크기와 비슷한 크기의 인조 팁을 선택하여 팁 5개를 1작품으로 하여 디자인하였다.

전체적으로 작품의 마감은 탑젤을 이용한 광택 마감으로 마무리하였고, 입체적 효과를 위해 코사지와 로제티의 입체 네일 디자인 작품만 부분 광택 마감을 하였다.

## 2) 작품 제작

### (1) 작품 I

작품 I 은 아플리케와 코드 장식의 특성을 응용하여 표현한 작품이다.

모티브가 된 초상화는 18세기 중기에 제작된 단독 초상화로, 무릎 위까지 보이는 상반신 구도에 화이트 계열의 드레스 색상과 레드, 골드, 그린 색상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열매와 나뭇잎, 줄기 등이 반복적인 문양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아플리케의 장식 형태를 이루고 있다. 또한, 그린과 골드의 코드 장식이 폭이 좁은 끈의 형태로 원단에 부착되어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자는 아플리케와 코드에 주로 사용된 색상과 장식 문양을 중점으로 화이트 배경에 열매와 나뭇잎, 줄기를 표현하고, 아플리케의 특징인 모양 천을 덧대어 주는 느낌과 코드의 가닥 끈 느낌, 그리고 두 장식에서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촘촘하게 사용된 실의 형태를 활용하여 디자인하였다.

네일아트 표현방법은 평면 및 입체 모두 컬러 젤을 사용하여 배경 채색 및 세부 디자인을 그렸으며, 아플리케와 코드의 마감과 같은 실 느낌을 주기 위해 가느다란 세필 브러쉬를 이용하여 얇은 선으로 촘촘하게 그려 넣었다. 평면 디자인은 핸드페인팅 기법을 주로 활용하였고, 입체 디자인은 엠보 젤을 사용하여 디자인 자체에 볼륨감을 주거나 테두리 외곽선에 두께감 있게 둘러 주어 아플리케 장식 형태의 모양 조각을 연상케 표현하였다. 또한, 효과적인 트리밍 특성을 표현하기 위해 입체 네일 장식물인 네일아트용 실 크사를 부착하여 실의 활용을 최대한 작품에 담아내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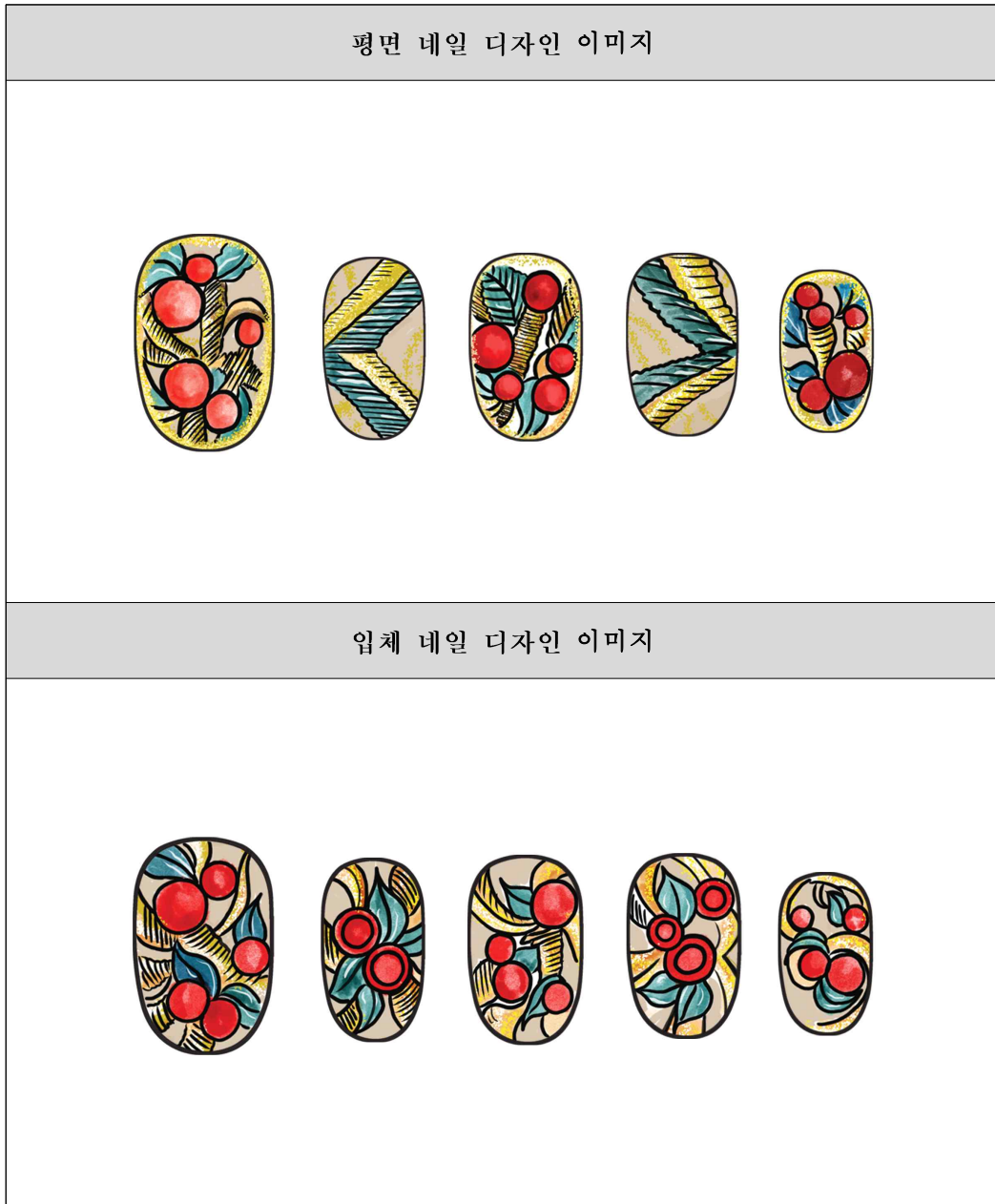
작품 I 의 평면 네일 디자인 완성작품은 <그림 75-1>, <그림 75-2>이고, 입체 네일 디자인 완성작품은 <그림 76-1>, <그림 76-2>이다.

작품 I의 디자인 정보와 디자인 이미지는 각각 <표 26>, <표 27>과 같다.

<표 26> 작품 I의 디자인 정보

작품 I	
	<b>복식 장식의 유형</b> 아플리케와 코드
	<b>제작 시기</b> 1751년 (18세기)
	<b>초상화 분류 번호 (&lt;표 7&gt; 기준)</b> 52 번
디자인 모티브	
	
<b>주요 색상</b>	화이트, 골드, 레드, 그린
<b>표현 기법</b>	통젤 폴리시 아트 / 2D 입체아트 / 입체 장식품 아트
<b>사용 재료</b>	컬러 통젤, 엠보 젤
<b>네일 장식품</b>	네일아트용 실크사

<표 27> 작품 I 의 디자인 이미지



작품 I 의 디자인 제작 과정은 다음 <표 28>과 같다.

<표 28> 작품 I 의 디자인 제작 과정





<그림 75-1> 작품 I의 평면 네일 디자인 측면



<그림 75-2> 작품 I의 평면 네일 디자인 정면



<그림 76-1> 작품 I의 입체 네일 디자인 측면



<그림 76-2> 작품 I의 입체 네일 디자인 정면

## (2) 작품 II

작품 II는 브레이드 장식의 특성을 응용하여 표현한 작품이다.

모티브가 된 초상화는 18세기 후기에 제작된 단독 초상화로, 발끝까지 보이는 전신 구도에 핑크 계열의 드레스 색상과 탁한 파스텔 톤의 색상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드레스 밑단에 동일한 폭의 브레이드를 나란히 부착하였고, 브레이드의 좁은 천 안에 퀴팅과 비슷한 볼륨감의 타원형 문양과 사이 사이에 회색빛이 감도는 그린과 탁한 핑크 색상의 작은 리본과 꽃이 장식되어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자는 브레이드에 주로 사용된 색상과 브레이드 표면에 함께 장식된 형태를 모티프로 하여 디자인하였고, 브레이드의 장식 위치를 네일 팁에 적용하여 가장 자리인 네일 위쪽 단, 네일 아래쪽 단, 중앙 대칭 단으로 구성하여 일정한 폭의 디자인을 라인에 따라 그린 형태로 의복 장식의 특성을 표현하였다.

네일아트 표현방법은 평면 및 입체 모두 브레이드의 부착 형태에 따라 위치와 폭은 동일하게 구성하였고, 평면 네일 디자인은 컬러 젤을 사용하여 디자인을 그렸다. 또한, 입체 네일 디자인은 다소 거친 느낌의 엠보 젤을 사용하여 브레이드의 볼륨감을 강조하여 표현하였다. 더불어 볼륨감 강조와 함께 브레이드 장식이 가지고 있는 깔끔한 부착 형태도 함께 표현하고자 평면 장식물인 네일 필름을 사용하여 브레이드의 특성을 부각한 네일 디자인을 연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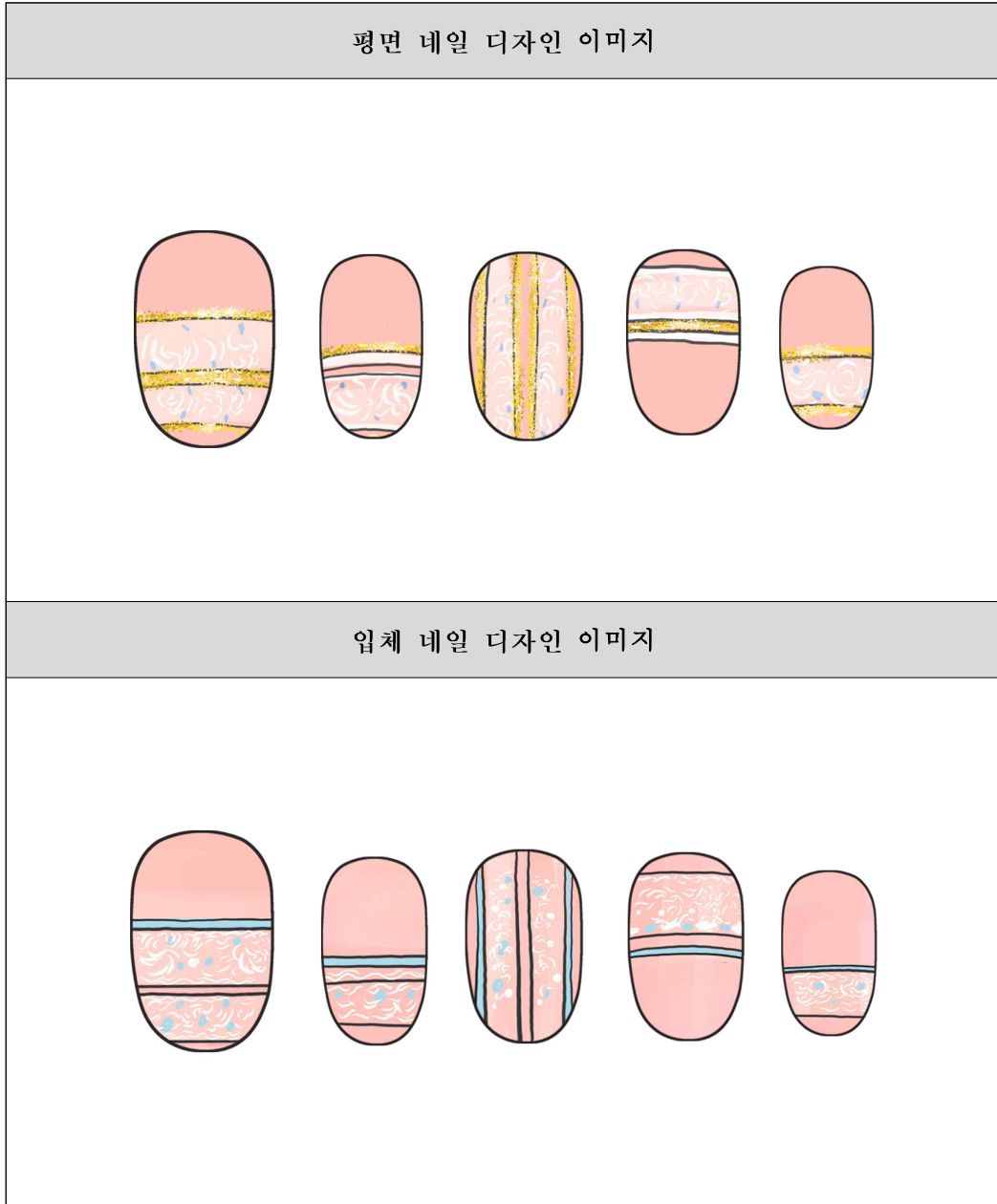
작품 II의 평면 네일 디자인 완성작품은 <그림 77-1>, <그림 77-2>이고, 입체 네일 디자인 완성작품은 <그림 78-1>, <그림 78-2>이다.

작품 II의 디자인 정보와 디자인 이미지는 각각 <표 29>, <표 30>과 같다.

<표 29> 작품 II의 디자인 정보

작품 II		
	복식 장식의 분류	브레이드
	제작 시기	1777년 (18세기)
	초상화 분류 번호 (<표 7> 기준)	83 번
디자인 모티브		
		
주요 색상	핑크, 화이트, 그린	
표현 기법	통젤 폴리시 아트/ 2D 입체 아트/ 평면 장식물 아트	
사용 재료	컬러 통젤, 엠보 젤	
네일 장식물	네일 필름	

<표 30> 작품 II의 디자인 이미지



작품 II의 디자인 제작 과정은 다음 <표 31>과 같다.

<표 31> 작품 II의 디자인 제작 과정





<그림 77-1> 작품 II의 평면 네일 디자인 측면



<그림 77-2> 작품 II의 평면 네일 디자인 정면



<그림 78-1> 작품 II의 입체 네일 디자인 측면



<그림 78-2> 작품 II의 입체 네일 디자인 정면

### (3) 작품 III

작품 III은 레이스 장식의 특성을 응용하여 표현한 작품이다.

모티브가 된 초상화는 18세기 중기에 제작된 단독 초상화로, 허리 위까지 보이는 상반신 구도에 블루 계열의 드레스 색상과 화이트 레이스가 조화를 이루고 있다. 초상화에서 보여지는 레이스의 모양은 십자 그물 형태와 레이스 라인을 따라 장식된 도트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일정한 폭의 레이스가 주름 잡혀 의복의 가장자리에 부착되어 사용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자는 레이스에 주로 사용된 화이트 색상과 주변 색상인 블루 계열을 배경으로 하여, 레이스를 덧대었을 때 아래 천의 색상과 문양이 비치는 효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십자 그물 형태와 함께 다른 초상화에서도 빈번히 등장하였던 꽃형상의 레이스 형태를 함께 응용하여 디자인하였다. 라인을 따라 둘러진 도트도 활용하였으며, 또 다른 그물 형태의 레이스 디자인도 적용하여 디자인을 완성하였다. 네일아트 표현방법은 평면 및 입체 모두 컬러 젤을 사용하여 디자인을 그렸으며, 평면 디자인에는 디자인 위에 레이스의 비치는 소재 형태를 표현하기 위해서 우유빛의 반투명한 컬러젤을 부분적으로 도포하여 레이어드 형식으로 채색하였다. 18세기 많이 사용되었던 꽃 문양을 패턴으로 활용하며, 레이스의 그물 형태, 외곽선이 도트 등을 네일 디자인으로 구성하였다. 입체 네일 디자인은 엠보 젤을 사용하여, 표면 위에 2D 입체 아트 기법으로 레이스를 표현하였다. 엠보 젤의 두께감으로 인해 같이 디자인된 평면 디자인과의 거리감이 훨씬 더 증대되고, 덧대어 부착한 느낌이 강조되도록 레이스의 장식 특성을 디자인에 표현하였다. 더불어 얇은 그물 형태의 레이스 선을 돋보이고자 글리터를 함께 사용하였다.

작품 III의 평면 네일 디자인 완성작품은 <그림 79-1>, <그림 79-2>이고, 입체 네일 디자인 완성작품은 <그림 80-1>, <그림 80-2>이다.

작품 Ⅲ의 디자인 정보와 디자인 이미지는 각각 <표 32>, <표 33>과 같다.

<표 32> 작품 Ⅲ의 디자인 정보

작품 Ⅲ		
	복식 장식의 분류	레이스
	제작 시기	1740년 (18세기)
	초상화 분류 번호 (<표 7> 기준)	24 번
디자인 모티브		
		
주요 색상	블루, 골드, 화이트	
표현 기법	네일 폴리시 아트 / 2D 아트기법	
사용 재료	컬러 통젤, 아크릴 재료	
네일 장식물	글리터	

<표 33> 작품 Ⅲ의 디자인 이미지



작품 Ⅲ의 디자인 제작 과정은 다음 <표 34>와 같다.

<표 34> 작품 Ⅲ의 디자인 제작 과정





<그림 79-1> 작품 Ⅲ의 평면 네일 디자인 측면



<그림 79-2> 작품 Ⅲ의 평면 네일 디자인 정면



<그림 80-1> 작품 Ⅲ의 입체 네일 디자인 측면



<그림 80-2> 작품 Ⅲ의 입체 네일 디자인 정면

#### (4) 작품 IV

작품 IV는 리본 장식의 특성을 응용하여 표현한 작품이다.

모티프가 된 초상화는 18세기 중기에 제작된 단독 초상화로, 허리 위까지 보이는 상반신 구도에 화이트 계열의 드레스 색상과 핑크 스트라이프, 레드 색상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리본 장식에 나타난 특별한 문양은 없으며, 바람개비 형태의 4부분으로 묶인 리본 형태와 나비 형태의 리본으로 장식되어 있다. 또한, 원단과 리본에 똑같은 소재와 컬러의 스트라이프가 들어가 있으며 약간의 광택감이 느껴지는 재질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자는 리본 장식에 주로 사용된 색상과 스트라이프 문양을 중점으로 화이트 배경에 핑크 라인이 들어간 리본 형태와 배경을 표현하고, 리본이 가지고 있는 끈의 직선 느낌과 묶었을 때 나타나는 곡선 느낌을 활용하여 디자인하였다.

네일아트 표현방법은 평면 디자인은 컬러 젤을 사용하여 디자인을 그렸으며, 리본이 가지는 끈의 특성을 살리고자 라인의 굵기와 색상 배색을 통해 디자인의 단순함을 피하고자 하였다. 입체 디자인은 리본의 형태와 유사성을 보일 수 있는 재료인 네일 필름을 통해, 여러 가지 필름지를 폭을 다르게 재단하여 스트라이프 디자인으로 배치하였다. 또한, 필름지는 광택과 색감의 특이점은 있지만 볼륨감은 없는 장식물로, 입체감의 부각을 위해 아크릴 파우더를 이용하여 리본 형태의 3D 장식물을 제작하여, 네일 파츠처럼 부착하여 디자인의 입체감을 높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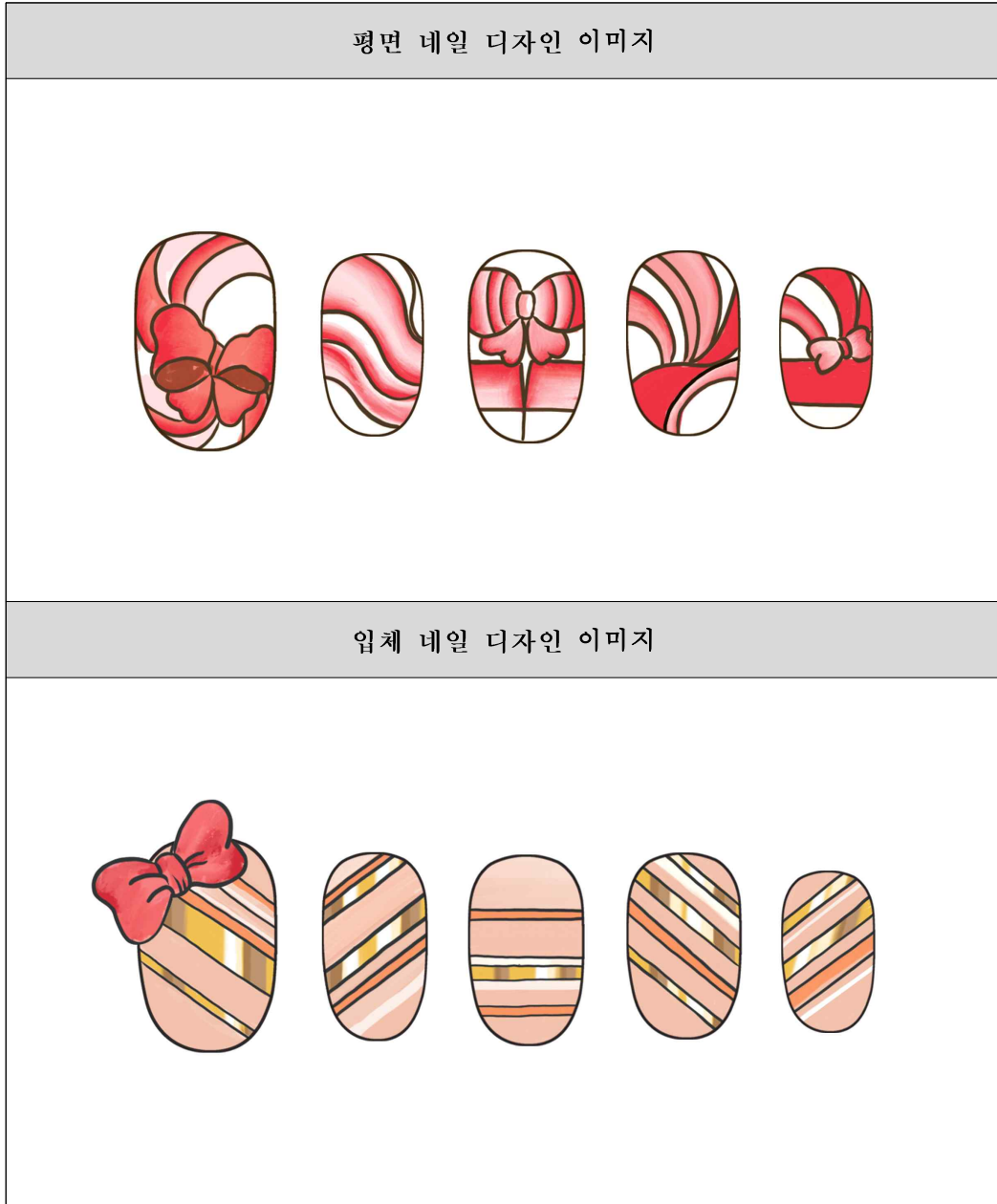
작품 IV의 평면 네일 디자인 완성작품은 <그림 81-1>, <그림 81-2>이고, 입체 네일 디자인 완성작품은 <그림 82-1>, <그림 82-2>이다.

작품 IV의 디자인 정보와 디자인 이미지는 각각 <표 35>, <표 36>과 같다.

<표 35> 작품 IV의 디자인 정보

작품 IV		
	복식 장식의 분류	리본
	제작 시기	1769년 (18세기)
	초상화 분류 번호 (<표 7> 기준)	71 번
디자인 모티브		
		
주요 색상	핑크, 골드, 화이트	
표현 기법	네일 폴리시 아트, 평면 장식물 아트, 입체 장식물 아트	
사용 재료	컬러 통젤	
네일 장식물	네일 필름, 네일 파츠	

<표 36> 작품 IV의 디자인 이미지



작품 IV의 디자인 제작 과정은 다음 <표 37>과 같다.

<표 37> 작품 IV의 디자인 제작 과정





<그림 81-1> 작품 IV의 평면 네일 디자인 측면



<그림 81-2> 작품 IV의 평면 네일 디자인 정면



<그림 82-1> 작품 IV의 입체 네일 디자인 측면



<그림 82-2> 작품 IV의 입체 네일 디자인 정면

## (5) 작품 V

작품 V은 비즈 장식의 특성을 응용하여 표현한 작품이다.




모티브가 된 초상화는 18세기 초기에 제작된 단독 초상화로, 무릎 위까지 보이는 상반신 구도에 레드와 골드 계열의 드레스 색상과 화이트, 블랙, 블루 등 다양한 색상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드레스의 가슴 중앙에 집중적으로 사용된 비즈 장식을 살펴보면, 유색의 원석 보석류의 사용이 돋보인다. 원석류 비즈는 원형부터 타원형, 사각형, 삼각형 등 다양한 모양과 색상이 있으며 본 초상화에서는 여러 비즈가 함께 원단에 부착되어 하나의 모양을 만드는 형태로 장식되어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자는 입체 형태의 비즈를 평면 디자인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유색의 원석 보석류가 지니고 있는 오묘한 느낌의 색감 표현과 마블링 형태를 모티브로 네일아트 디자인을 구상하였다. 또한 입체 디자인은 비즈 본연의 다양한 형태와 색상을 조합하여 또 다른 느낌의 장식 모양을 형성하는 형태로 디자인을 구상하였다. 네일아트 표현방법은 평면 디자인에서는 컬러 젤을 사용하여 디자인을 그렸으며, 원석의 느낌을 표현하기 위하여 네일 폴리시 아트 기법의 하나인 마블 기법을 활용하여 비즈의 장식 특성을 응용한 평면 디자인 작품으로 표현하였다. 또한, 다양한 비즈 색상들이 함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주조색과 보조색의 차이를 두며 한 팁에 다양한 색상이 마블링 될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다. 비즈 장식의 입체 디자인은 다양한 비즈의 색상이 모두 잘 보일 수 있도록 배경을 블랙으로 채색하였고, 크기와 모양에 따른 공간 배치로 마치 팁 하나가 브로치와 같은 형태로 보일 수 있도록 비즈 장식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작품에 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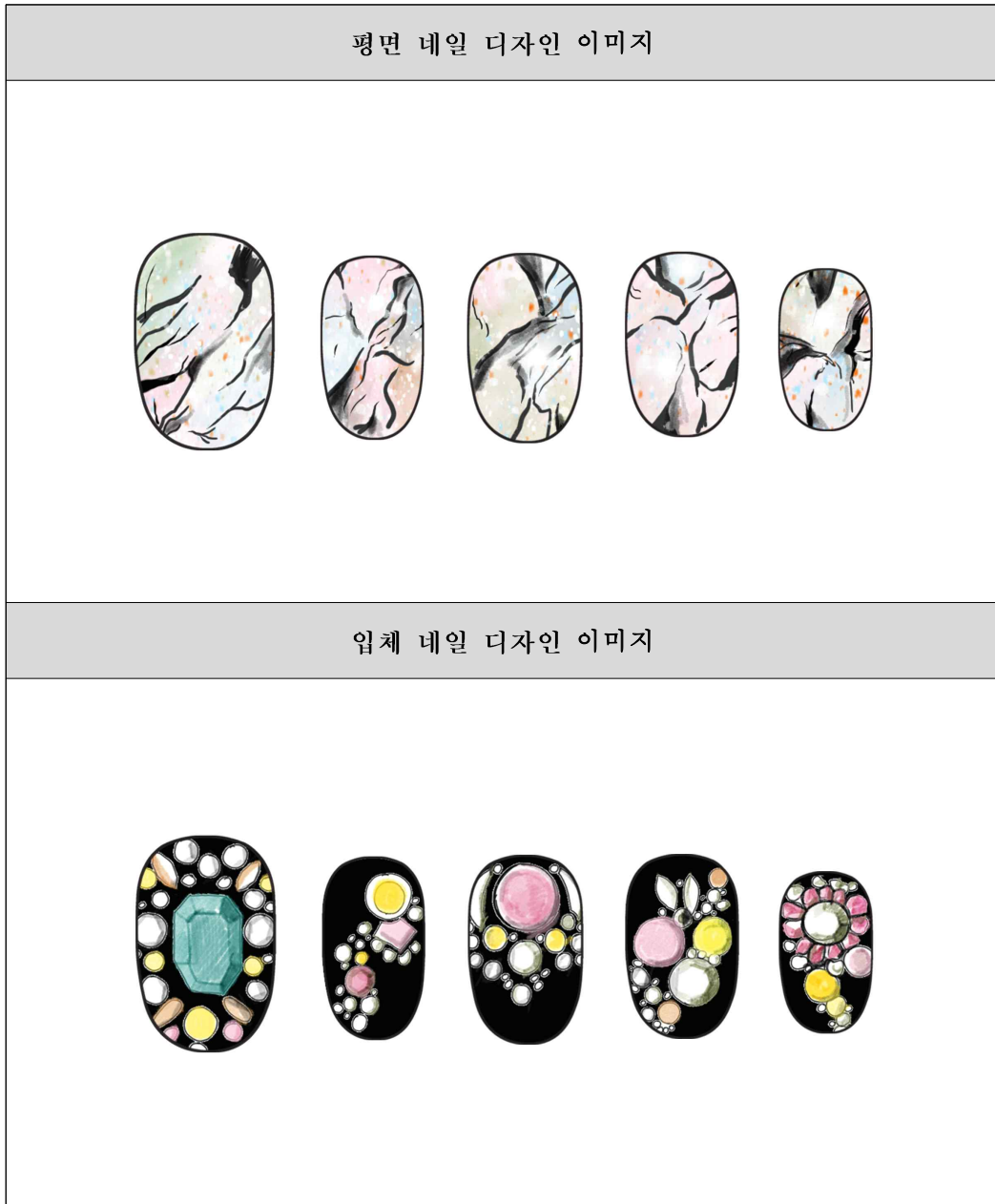
작품 V의 평면 네일 디자인 완성작품은 <그림 83-1>, <그림 83-2>이고, 입체 네일 디자인 완성작품은 <그림 84-1>, <그림 84-2>이다.

작품 V의 디자인 정보와 디자인 이미지는 각각 <표 38>, <표 39>와 같다.

<표 38> 작품 V의 디자인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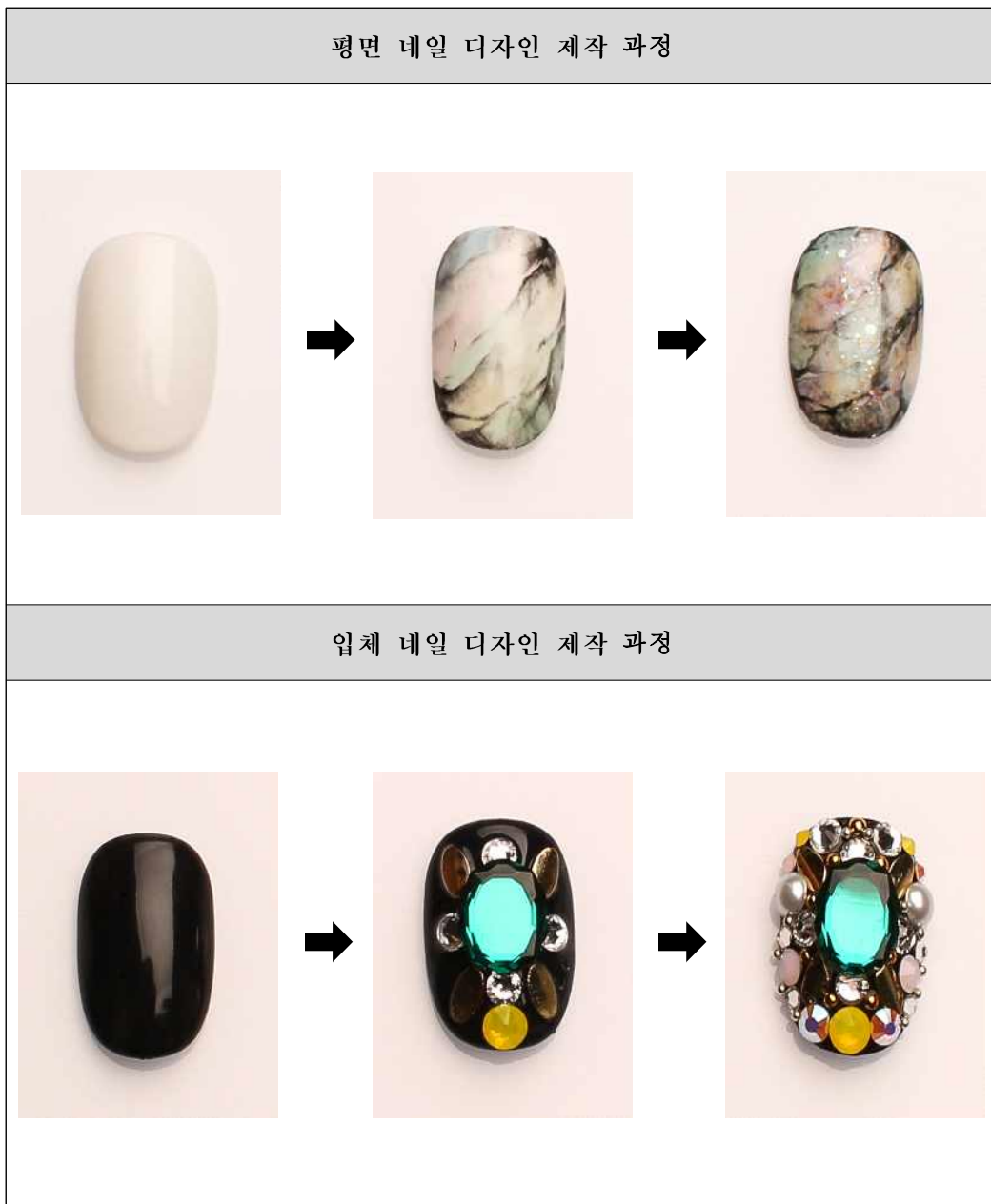
작품 V		
	복식 장식의 분류	비즈
	제작 시기	1717년 (18세기)
	초상화 분류 번호 (<표 7> 기준)	4 번
디자인 모티브		
		
주요 색상	레드, 블랙, 화이트	
표현 기법	네일 폴리시 아트(마블 기법), 입체 장식품 아트	
사용 재료	컬러 젤, 컬러 통젤	
네일 장식품	네일아트용 인조보석류	

<표 39> 작품 V의 디자인 이미지



작품 V의 디자인 제작 과정은 다음 <표 40>과 같다.

<표 40> 작품 V의 디자인 제작 과정





<그림 83-1> 작품 V의 평면 네일 디자인 측면



<그림 83-2> 작품 V의 평면 네일 디자인 정면



<그림 84-1> 작품 V의 입체 네일 디자인 측면



<그림 84-2> 작품 V의 입체 네일 디자인 정면

## (6) 작품 VI

작품 VI은 코사지와 로제트 장식의 특성을 응용하여 표현한 작품이다.

모티브가 된 초상화는 18세기 중기에 제작된 단독 초상화로, 허리 위까지 보이는 상반신 구도에 화이트와 탁한 골드 계열의 드레스 색상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의복에 문양은 없었으며, 줄에 꽃들을 연결하여 꽃줄처럼 만들어 상반신을 대각선으로 가로질러 부착되어 있다. 사용된 코사지와 로제트를 살펴보면, 장미를 비롯하여 여러 종류와 크기의 꽃들이 보여지며 다발 형태로 뭉쳐서 부착되어 있는 코사지와 로제트의 형태도 찾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자는 코사지와 로제트 장식에 사용된 꽃의 형태와 색상을 활용하여 평면 및 입체 네일 디자인을 구성하였다.

네일아트 표현방법은 평면 디자인의 경우 컬러 젤을 사용하여 전반적으로 그려주었고, 장미꽃을 중점적으로 디자인하였다. 입체 디자인의 경우는 아크릴 컬러 파우더를 이용하여 2D 입체아트 기법으로 장미꽃의 형태를 입체감 있게 표현하였고, 제작되어 있는 꽃 형태의 네일 파츠 및 비즈 장식과 함께 사용하여 화려하게 표현하였다. 2D 입체아트의 입체감과 볼륨감을 더욱 부각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광택 마무리를 하였다.

작품 VI의 평면 네일 디자인 완성작품은 <그림 85-1>, <그림 85-2>이고, 입체 네일 디자인 완성작품은 <그림 86-1>, <그림 86-2>이다.

작품 VI의 디자인 정보와 디자인 이미지는 각각 <표 41>, <표 42>와 같다.

<표 41> 작품 VI의 디자인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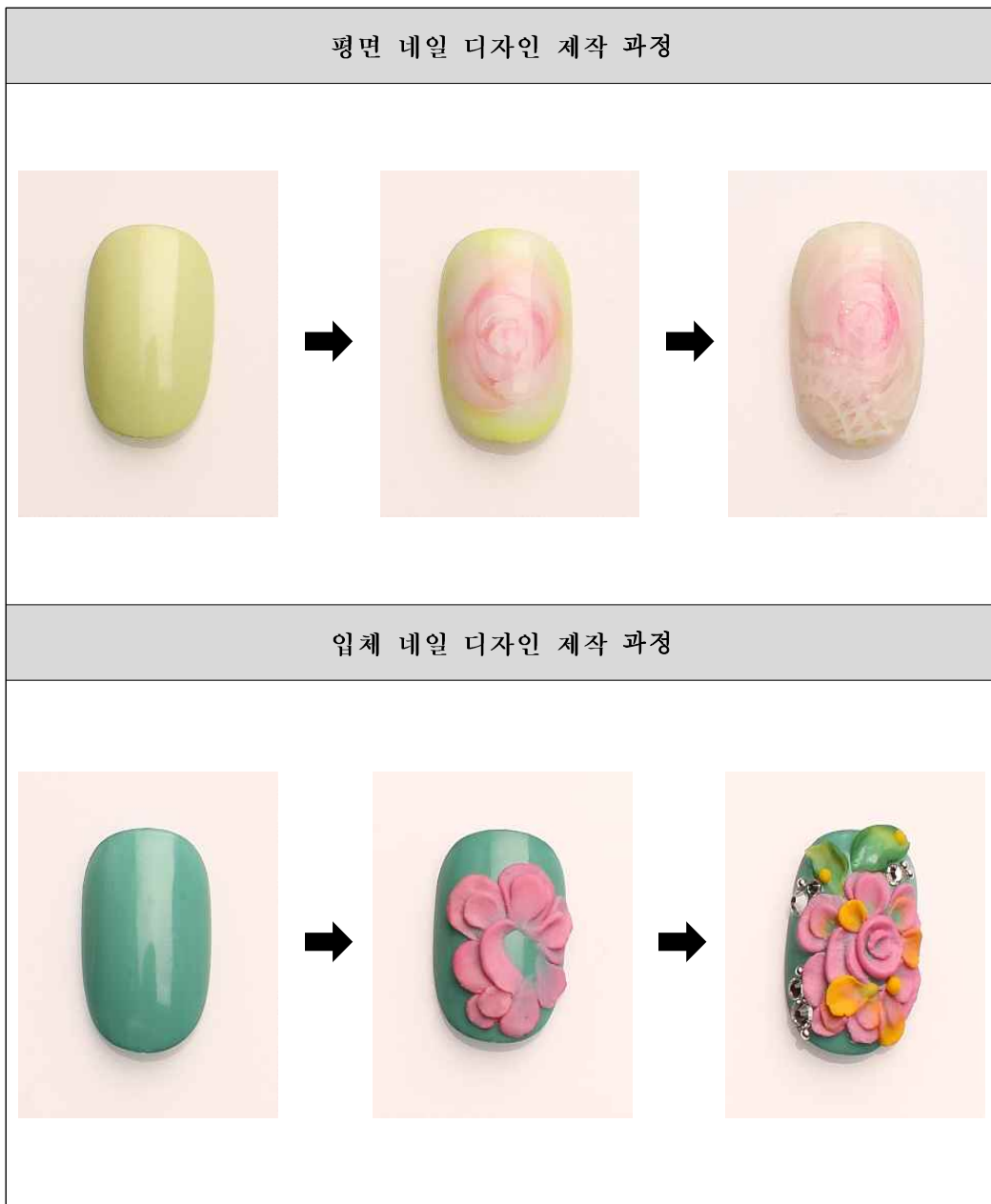
작품 VI		
	복식 장식의 분류	코사지와 로제트
	제작 시기	1746년 (18세기)
	초상화 분류 번호 (<표 7> 기준)	33 번
디자인 모티브		
		
주요 색상	화이트, 핑크, 그린, 옐로우	
표현 기법	네일 팔리시 아트, 2D 입체아트, 입체 장식물 아트	
사용 재료	컬러 젤, 아크릴 재료	
네일 장식물	네일 파츠, 인조 보석	

<표 42> 작품 VI의 디자인 이미지



작품 VI의 디자인 제작 과정은 다음 <표 43>과 같다.

<표 43> 작품 VI의 디자인 제작 과정





<그림 85-1> 작품 VI의 평면 네일 디자인 측면



<그림 85-2> 작품 VI의 평면 네일 디자인 정면



<그림 86-1> 작품 VI의 입체 네일 디자인 측면



<그림 86-2> 작품 VI의 입체 네일 디자인 정면

## (7) 작품 VII

작품 VII은 프린지와 태슬 장식의 특성을 응용하여 표현한 작품이다.

모티브가 된 초상화는 18세기 후기에 제작된 단독 초상화로, 발끝까지 보이는 전신 구도에 화이트 계열의 드레스 색상과 골드의 장식 색상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드레스의 굴곡에 따라 가장 자리의 술 장식의 프린지와 술 장식 사이마다 달려있는 태슬 장식이 형태를 이루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자는 프린지와 태슬에 주로 사용된 색상과 장식의 형태를 중심으로, 화이트와 골드의 조화를 이를 옐로우 바탕에 가다가락 술 장식을 기반으로 디자인하였다.

네일아트 표현 방법은 평면 네일 디자인에서는 컬러 젤을 사용하여 프린지와 태슬 장식을 디자인으로 그렸으며, 세필 브러시를 활용하여 프린지와 태슬을 한 가닥씩 섬세하게 그려 표현하였다. 또한, 선 마블 기법을 이용하여 프린지의 술 장식 느낌이 돋보이도록 표현하였다. 입체 네일 디자인은 아크릴 파우더를 이용하여 볼륨감 있게 잡혀있는 드레스의 주름 형태를 형상화하였고, 주름과 주름 사이의 굴곡에 태슬 장식품이 놓일 수 있도록 최대한 의복의 전반적인 굴곡 느낌을 살려 표현하였다. 또한, 같은 크기와 모양의 비즈를 라인에 따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프린지와 태슬이 가지는 촘촘하고 반복적인 형태를 표현하였다. 더불어 3D 입체 장식품의 활용으로 술 형태의 프린지와 태슬 특성을 접목한 네일아트 디자인을 더욱 효과적으로 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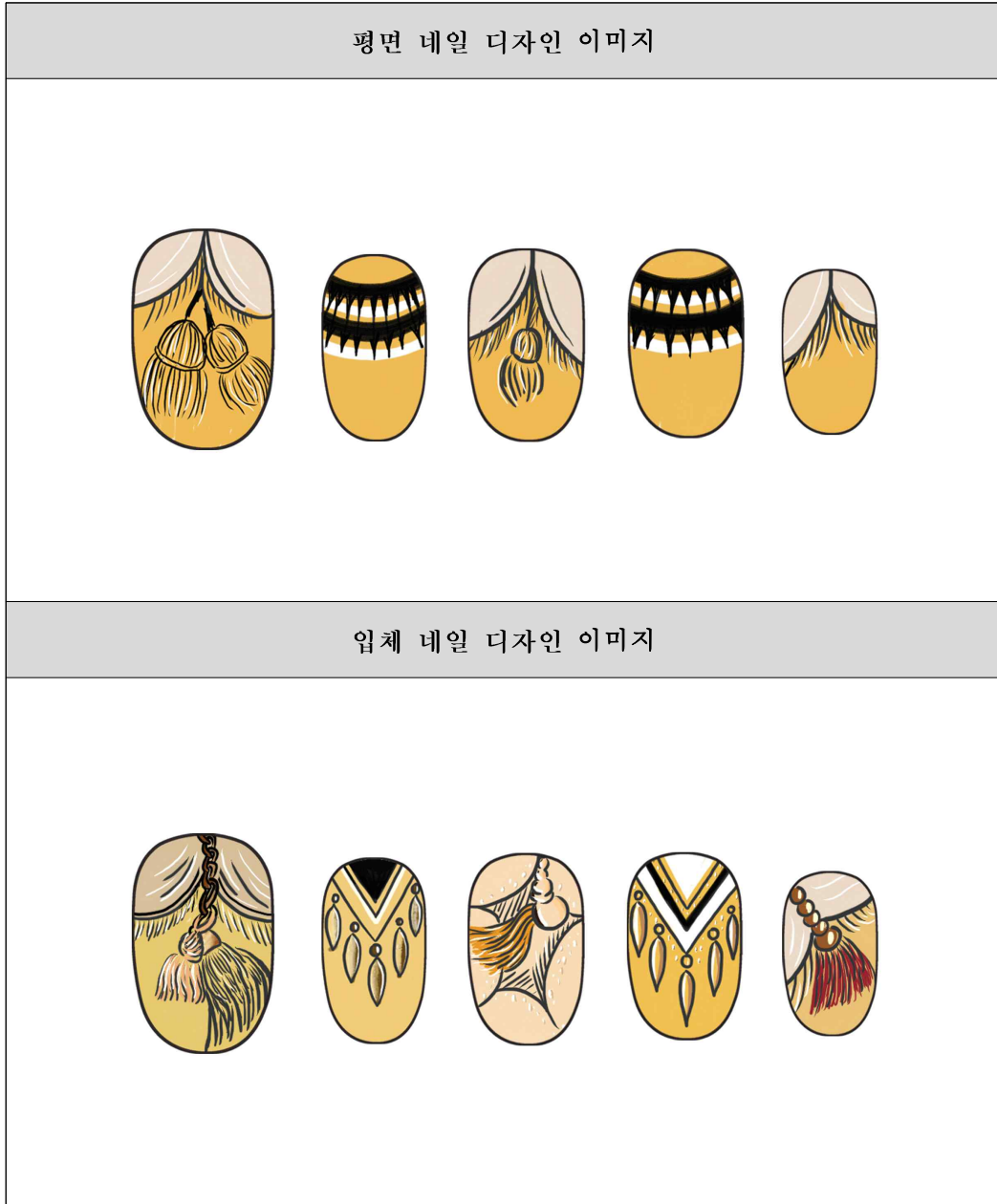
작품 VII의 평면 네일 디자인 완성작품은 <그림 87-1>, <그림 87-2>이고, 입체 네일 디자인 완성작품은 <그림 88-1>, <그림 88-2>이다.

작품 VII의 디자인 정보와 디자인 이미지는 각각 <표 44>, <표 45>와 같다.

<표 44> 작품 VII의 디자인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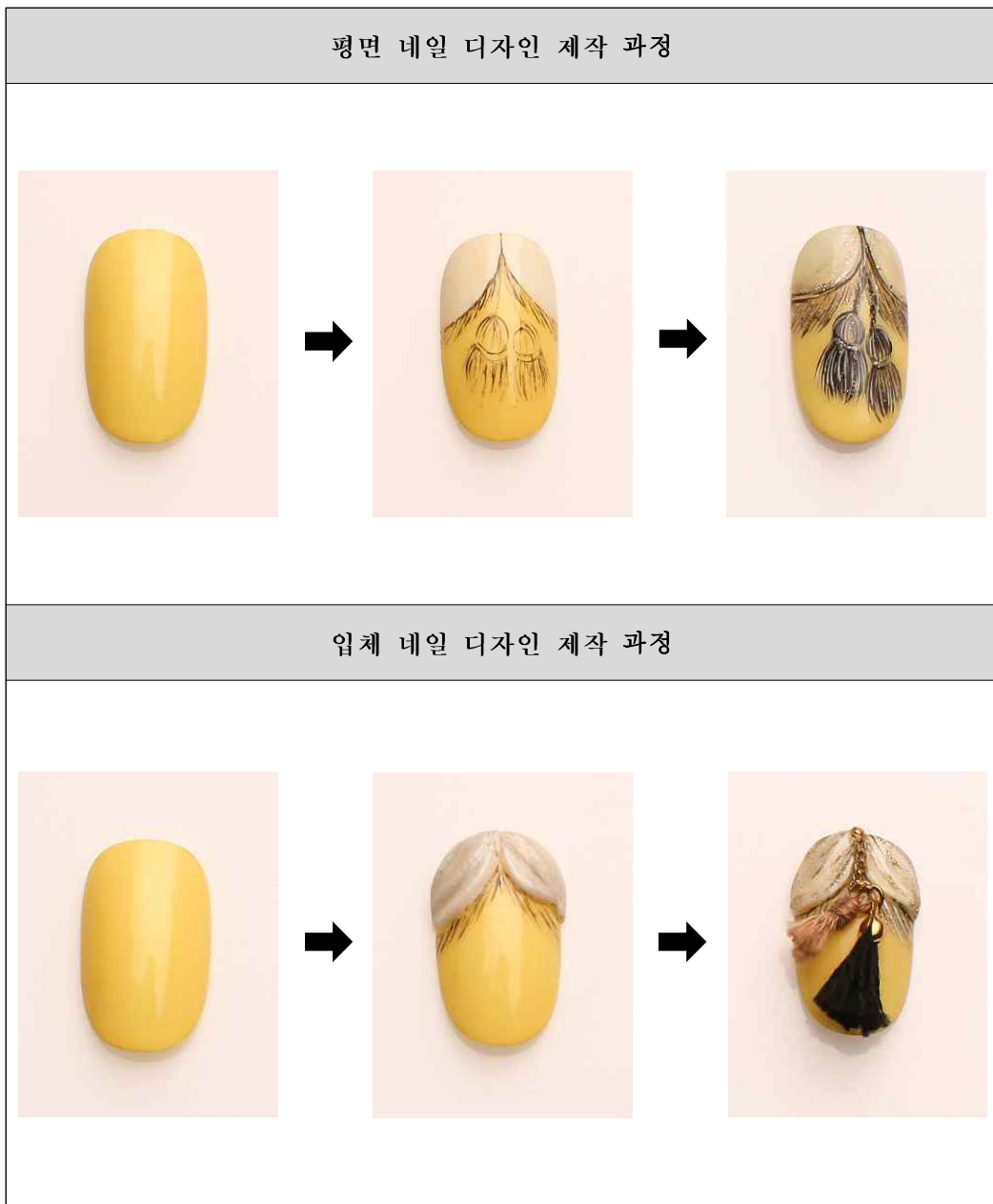
작품 VII		
	복식 장식의 분류	프린지와 태슬
	제작 시기	1779년 (18세기)
	초상화 분류 번호 (<표 7> 기준)	85 번
디자인 모티브		
		
주요 색상	화이트, 골드, 브라운, 펄화이트, 블랙	
표현 기법	네일 폴리시 아트, 2D 입체 아트, 입체 장식물 아트	
사용 재료	컬러 통젤, 아크릴 재료	
네일 장식물	태슬 장식	

<표 45> 작품 VII의 디자인 이미지



작품 VII의 디자인 제작 과정은 다음 <표 46>과 같다.

<표 46> 작품 VII의 디자인 제작 과정





<그림 87-1> 작품 VII의 평면 네일 디자인 측면



<그림 87-2> 작품 VII의 평면 네일 디자인 정면



<그림 88-1> 작품 VII의 입체 네일 디자인 측면



<그림 88-2> 작품 VII의 입체 네일 디자인 정면

## V. 결 론

### 1. 연구의 요약 및 결론

뷰티 산업의 트렌드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의복 스타일링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는 소비자들은 원하는 이미지에 어울리는 네일아트 디자인을 함으로써 통일감 있는 외모 연출을<sup>225)</sup> 추구하고 있다. 네일 분야에서도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하고 창의적 디자인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다양한 네일디자인 연구가 시행되어왔다. 그러나 의복과 뷰티의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반영하여 의복과 네일아트를 접목한 연구는 극히 드물었다. 앞서 이론적 배경의 선행 연구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이제까지 의복과 네일아트를 접목한 네일 디자인 연구가 우리나라의 전통 문양이나 동양 의복으로 제한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현대의 기성복을 입는 소비자들에게 다소 적용하기 어려운 점도 보였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부착형 장식물 사용이 많은 네일아트와 다양한 모티브를 이끌 수 있는 서양 의복을 접목한 네일아트 디자인 연구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서양 의복 중 장식 사용이 빈번하며 섬세함과 화려함의 절정을 보이던 18세기 프랑스 여성 의복에 사용된 의복 트리밍을 그 시대에 제작된 여성초상화로 분석하여 네일아트와 의복을 접목한 평면 및 입체 네일아트 디자인을 전개하는데 있다. 둘째, 과거의 의복과 의복 장식이 주는 다양한 모티브의 활용과 초상화를 분석 자료로 연구함으로써 뷰티디자인의 접근 범위를 확장하고 네일아트 디자인의 발상과 네일 산업계 및 교육계에 도움이 되는 네일디자인 표현 및 제작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225) 김태희(2015). “외모관심도에 따른 네일 소비자행동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1.

이를 위해, 이론적 연구에서는 네일아트의 개념 및 표현기법에 대한 이해와 의복을 접목한 네일아트 디자인의 선행 연구를 통하여, 18세기 프랑스 여성초상화에 나타난 의복의 트리밍을 네일아트 디자인 연구의 모티브로 설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트리밍에 대한 선행 연구를 통하여 트리밍의 유형을 알아보고 18세기 프랑스 여성 의복 및 트리밍, 초상화까지 고찰하였다.

본 네일아트 디자인 연구에 실질적 모티브로 작용하는 트리밍의 분석 자료인 초상화 수집은 프랑스 베르사이유 궁 공식 홈페이지 소장품 검색을 통하여 18세기에 제작된 여성초상화 110점을 수집하였다. 수집된 초상화의 화가, 인원, 구도, 의복 색상을 파악하고 트리밍의 유무로 재분류하여 총 97점의 초상화를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트리밍 사용이 확인된 97점의 초상화는 전문가 집단의 도움을 받아 이론적 연구에서 유형화된 18세기 의복 트리밍의 7가지 유형으로 초상화를 분석하였고, 초상화에 나타난 트리밍 역시 7가지 유형으로 파악하였다. 또한, 7가지 트리밍의 유형별 네일아트 디자인 제작에 시각적 모티브가 되는 대표 초상화의 선정은 97점의 초상화 중 연구자 의견 50%와 전문가 8인의 의견 50%를 반영하여 트리밍 유형별로 각 1점의 대표 초상화를 선정하여 연구 작품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 연구를 통한 트리밍의 유형은 총 10가지로 아플리케·코드·브레이드·레이스·리본·비즈·시퀀·코사지·프린지와 태슬·단추로 분류할 수 있고, 18세기 의복에 사용된 트리밍의 유형은 총 7가지로 아플리케와 코드, 브레이드, 레이스, 리본, 비즈, 코사지와 로제트, 프린지와 태슬로 분류되었다. 분류한 18세기 의복 트리밍 7가지 유형에 따라 18세기 프랑스 여성 초상화에 나타난 트리밍을 분석한 결과, 7가지 유형 모두에서 사용 형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18세기 프랑스 여성초상화에 나타난 아플리케와 코드는 18세기 의복 트리밍과 일치하는 면을 보였고, 초기부터 중기까지 사용이 활발하였으나 후기로 갈수록 사용이 감소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브레이드와 리본은 18세기 초기의 초상화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고, 중기와 후기 초상화에서 사용 형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중기보다는 후기로 갈수록 더 빈번히 초상화에 등장하며 사용이 증가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레이스와 비즈는 18세기 전반에 걸쳐 초기 초상화부터 후기 초상화까지 꾸준하게 나타났으며, 이 중 레이스는 분석 자료로 활용된 총 97점의 초상화 중 89점의 초상화에 등장하여 트리밍의 유형 중 가장 빈번히 18세기 여성 의복에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비즈는 진주나 크리스탈 또는 유색의 원석류 사용이 빈번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초기나 중기에 비해 후기로 갈수록 초상화에 등장이 다소 감소하지만, 사용된 재질이나 형태는 시기와 상관없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코사지와 로제트, 프린지와 태슬은 18세기 초기 초상화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으며, 중기와 후기 초상화에서는 사용 형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코사지와 로제트는 중기와 후기 초상화에서 꽃다발 모양으로 의복에 장식된 형태가 많았고, 특히 중기에서는 줄에 꽃송이들을 엮어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린지와 태슬은 서로 함께 사용되거나 단독적으로 사용된 형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18세기 프랑스 여성초상화에 나타난 7가지 트리밍 유형을 통해, 각 유형별로 평면 네일디자인 1작품과 입체 네일디자인 1작품씩을 제작하여 총 14작품의 네일디자인 연구 작품을 제작하였다.

작품 I 은 아플리케와 코드를 모티브로 하여 트리밍의 문양과 색상을 토대로 평면 네일디자인을 제작하였고, 의복 색상으로 표현된 팁 배경에 덧대어진 아플리케와 코드 느낌을 강조하기 위해 엠보 젤과 네일아트용 실크사

를 이용하여 2D아트 기법 위주의 볼륨감이 있는 입체 네일 디자인 작품을 제작하였다.

작품 II는 브레이드를 모티브로 하여 의복에 가장자리를 두르며 일정한 폭으로 사용된 위치적 표현을 다양한 프렌치 컬러링과 슬림라인을 접목하여 네일 디자인에 활용하였다. 평면 네일 디자인에는 브레이드 표현 위에 꽃 문양을 그려 섬세함과 장식성을 강조하였고, 입체 네일 디자인에는 브레이드 표현 위에 다른 질감의 엠보 젤을 사용하여 재질의 대비를 이루며 덧대어진 느낌을 표현하였다.

작품 III은 레이스를 모티브로 하여 레이스의 많이 사용되었던 꽃 문양과 십자 형태의 짜임을 통하여 디자인하였고, 반투명한 컬러 젤을 부분적으로 사용하여 레이스의 얇고 비치는 특성을 부각하여 평면 네일 디자인을 제작하였다. 입체 네일 디자인은 패턴 선에 입체감을 주어 핸드페인팅으로 그려진 디자인과 높이감 차이를 보이게 연출하였고, 배경과의 거리감을 통한 덧대어진 효과를 강조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다.

작품 IV는 리본을 모티브로 하여 묶임이 있는 나비 형태의 리본과 리본 끈을 형상화하여 평면 네일 디자인 작품으로 제작하였고, 입체 네일 디자인 작품은 3D 기법을 활용하여 리본 모양을 만들어 부착하였다. 기성 네일 파츠를 사용해도 무방하지만, 리본의 부드러움을 최대한 이끌어내고자 3D 장식물을 직접 만들어 네일 파츠와 같은 효과를 내고자 하였다. 또한, 여러 색상의 평면 네일 장식물인 네일 필름을 이용하여 다양한 폭의 리본 끈처럼 잘라 팁에 부착하여 디자인하였다.

작품 V는 비즈를 모티브로 하여 초상화에 나타난 유색 비즈류의 사용을 표현하고자 하였으며, 평면 네일 디자인은 원석류 비즈에서 보이는 물결 모양의 효과를 네일 폴리시 기법 중 마블 기법을 활용하여 제작하였다. 입체 네일 디자인 작품은 다양한 네일아트용 인조보석들을 활용하여 부착한 형태

로 제작하였다.

작품 VI은 코스지와 로제트를 모티브로 하여 꽃을 주요 디자인으로 표현하였고, 평면 네일 디자인 작품은 특히 로제트와 연결하여 장미를 형상화하여 디자인하였다. 입체 네일 디자인 작품은 아크릴 재료와 꽃 형태의 기성 네일 파츠를 사용하여 2D 기법이 접목된 입체 네일 디자인 작품으로 제작하였다. 입체 디자인의 굴곡과 볼륨감이 더 잘 보일 수 있도록 부분적 광택 마감으로 마무리하였다.

작품 VII은 프린지와 태슬을 모티브로 하여 갈라져 있는 술 형태를 네일 디자인으로 활용하고자 하였으며, 평면 네일 디자인 작품은 마블 기법을 혼용하여 제작하였다. 입체 네일 디자인 작품은 2D 기법 사용 및 태슬 형태의 네일 장식물을 부착하여 작품을 제작하였다.

위와 같은 결과를 통해, 초상화를 분석 자료로 활용하여 의복과 연관된 트리밍의 유형을 모티브로 평면 및 입체 네일아트 디자인 제작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작된 연구 작품에 대한 전문가 집단 8인의 인터뷰에 의하면, 의복 트리밍의 모티브가 전반적으로 네일아트 디자인으로 잘 표현이 되었으며 과거에 사용된 트리밍이 현대에서도 여전히 의복에 사용되고 있어 네일아트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네일아트 디자인의 실무 가이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시사하였다. 14작품 모두 네일 산업계에서 활용 가능성이 높다는 전체적인 의견과 더불어 특히, 비즈 트리밍을 모티브로 한 입체 네일디자인은 현재 유행하고 있는 ‘폴스톤’ 혹은 ‘폴스톤네일아트’에 바로 적용 가능한 디자인으로 평가하며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을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또한, 레이스를 모티브로 한 평면 및 입체 네일 디자인과 코스지와 로제트를 모티브로 한 평면 네일디자인 작품도 익숙한 네일아트 모티브로 작용하여 역시 네일 산업계와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더불어 리본을 모티브로 한 입체 네일디자인 작품은

빠른 시술 시간을 원하는 현대 소비자들의 요구 조건을 만족하며 시술자와 소비자 모두의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가 의복에 관련된 네일아트 디자인 연구로써 소비자들의 공감과 선호도를 이끌기에 매우 긍정적이며, 네일 산업계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토털 코디네이션을 원하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네일아트 디자인의 한계성을 극복하고자 의복과 연관된 모티브를 초상화로 분석하는 방식을 적용하였다는 점에서 네일아트 디자인 연구에 접근 범위를 확장하고 네일 디자인 발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핸드페인팅과 2D 아트 기법, 3D 아트 기법 등 다양한 네일아트 표현기법과 평면 및 입체 네일 장식물의 사용을 통해 다양한 네일 디자인 방법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네일 교육계에서도 이를 활용한 교육과정 구성에 긍정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취업과 창업을 위한 살롱 네일아트 디자인 교육에도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네일 산업계와 교육계의 연계를 높일 수 있는 네일아트 디자인 연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였다.

## 2. 연구의 제한점과 제언

본 연구는 베르사이유 궁에 소장된 18세기 프랑스 여성초상화에 나타난 의복의 트리밍을 분석하여 네일아트 디자인 작품으로 제작하였다. 의복을 접목한 네일아트 디자인 분야에서 서양 의복을 접목한 연구는 아직 미비하다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제한점과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의복과 관련한 연구에서 초상화는 주요 연구 대상으로 작용하나 초상화에 보여지는 의복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의식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

그림과 평상복의 구별이 필요하다는 점<sup>226)</sup>에서, 왕과 왕비를 중심으로 한 왕실 인물들의 한정된 계층과 궁정복 위주의 연구 제한점을 가진다. 또한, 18세기 프랑스 여성 의복이라는 특정 시대 및 국가, 성별로 제한하였다는 점에서 더 다양한 시대 및 국가적 접근으로 다각적인 측면의 의복과 네일아트를 융합시킨 종합적인 후속 네일아트 디자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더불어 연구 작품의 실용 가능성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인터뷰를 반영하여, 실질적으로 산업계에 연구 작품을 적용하고자 하였을 때 효율적인 시술 시간을 위한 부분적 디자인 채택이나 간소화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의복을 접목한 네일아트 디자인에 대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선호도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미비하지만 본 연구가 국내 네일아트 산업계와 교육계에 트렌드 네일 디자인 및 관련 상품 개발, 표현기법 접목에 따른 네일아트 전문교육과정 구성에 도움이 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

226) 홍미정(2014). 전계서, p.3.

## 참 고 문 헌

### < 국내 문헌 >

#### < 단 행 본 >

- 고애란(2017). 「서양의 복식문화와 역사」, 서울: 교문사.
- 고종희(2004). 「르네상스의 초상화 또는 인간의 빛과 그늘」, 파주: 한길아트.
- 김광우(2006). 「프랑스 미술 500년: 모방에서 창조로」, 서울: 미술문화.
- 김영숙(2007). 「루브르와 오르세 미술의 명화 산책」, 서울: 마로니에북스.
- 김영옥, 김신희, 정연자(2013). 「The Nail Art」, 서울: 예림.
- 김영옥, 안수경, 조신현(2010). 「서양복식문화의 현대적 이해」, 서울: 경춘사.
- 박성은(2008). 「플랑드르 사실주의 회화」,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 박은주(2014). 「네일 디자인」, 서울: 청담미디어.
- 박영신(2007). 「고딕 회화」, 서울: 재원.
- 배수정, 백정현, 오현아(2016). 「현대 패션과 서양복식문화사」, 서울: 수학사.
- 브리짓 퀸 저. 박찬원 역(2017).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라: 미술사가 농친 위대한 여성 예술가 15인」, 파주: 아트북스.
- 신혜순(2016). 「서양 패션의 변천사」, 경기: 교문사.
- 유송옥, 김경실, 간호섭(2006). 「패션 디자인」, 서울: 수학사.
- 이경희(2002). 「패션 디자인 발상」, 서울: 교문사.
- 이은기, 김미정(2006). 「서양미술사」, 서울: 미진사.
- 이은영(2003). 「복식 의장학」, 서울: 교문사.
- 정은희(2012). 「패션장식」, 경기: 교문사.
- 정홍숙(2009). 「서양복식문화사」, 경기: 교문사.

- 제르맹 바쟁 저. 김미정 역(1998). 「바로크와 로코코」, 서울: 시공아트.
- 조규화, 이희승(2004). 「패션미학」, 서울: 수학사.
- 조슬아, 김수현, 김유정, 이경미(2013). 「네일아트美학」, 서울: 구민사.
- 지앤씨미디어 학술팀. 편집부(2010). 「프랑스 국립 베르사이유 특별전」, 경기: 지앤씨미디어.
- 코아스 소잉스토리 사업부(2011). 「소잉 부자재 가이드 BOOK」, 광주: 코아스 소잉스토리 사업부.
- 토마스 R.호프만 저. 안상원 역(2008). 「어떻게 이해할까? 로코코」, 서울: 미술문화.
- 필리프 페로 저, 이재한 역(2007). 「부르주아 사회와 패션」, 서울: 현실문화연구.
- 한국네일지식서비스협회(2011). 「봉숭아손톱 작품집 8」, 서울: 한국네일지식서비스협회.
- 한국네일지식서비스협회(2011). 「KOREA NAIL SALON TREND 2」, 서울: 한국네일지식서비스협회.
- 한국네일지식서비스협회(2014). 「KOREA NAIL SALON TREND 3」, 서울: 한국네일지식서비스협회.
- 휘트니 채드윅 저. 김이순 역(2006). 「여성, 미술, 사회: 중세부터 현대까지 여성 미술의 역사」, 서울: 시공아트.

#### <학 위 논 문>

- 강해숙(2015). “근세 한·일 예복에 나타난 문양을 활용한 네일 디자인 연구”, 경성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권계희(2013). “포크아트 기법을 응용한 살롱 네일아트 디자인 연구”, 숙명

- 여자대학교 원격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하(2004). “르네상스 시대 인물화에 나타난 메이크업의 특성”, 대구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묘현(2014). “샤넬의 패션 스타일을 모티브로 한 네일 디자인 연구: 2008~2014 컬렉션을 중심으로”, 동명대학교 복지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원(2010). “네일아트 대회가 네일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네일아트 기능인의 기술성과 예술성을 중심으로”, 서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원(2016). “젤 네일의 트리트먼트 매뉴얼 개발과 적용 효과에 관한 연구”, 한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시아(2010). “로코코 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의상 연구: 「마리 앙투아네트」와 「공작부인」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연주(2009). “마리 앙투아네트 복식을 통해 본 로코코 복식의 조형성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혜(2014). “얼굴의 시대적 이상미: 르네상스부터 낭만주의까지 초상화의 얼굴비례와 메이크업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태영(2017). “젤 네일 제거 방법에 따른 손톱 주변 피부와 손톱의 손상도 비교”, 성신여자대학교 뷰티융합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태희(2015). “외모관심도에 따른 네일 소비자행동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1.
- 김학순(2013). “오리엔탈리즘을 모티브로 한 핸드페인팅과 젤 혼용 네일 테크닉 연구”,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나소연(2011). “와토의 <키테라섬의 순례>”,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궁수(2014). “패션 소재를 이용한 네일아트 디자인: 젤 네일아트를 중심으로”, 가천대학교 스포츠문화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도윤희(2016). “UV젤 네일 시술이 손톱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원격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민소정(2007). “빅토리아 시대 패션 스타일을 응용한 여아 드레스 디자인 연구: 실크리본자수기법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서림(2014). “초상화 제작기법에 대한 연구: 문희공 신개 신영정 제작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소은(2016). “18세기 프랑스 귀족과 예술 후원: 프랑수아 부세의 사랑의 신화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수연(2010). “로코코시대 복식의 트리밍을 응용한 아동 예복 디자인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설은희(2015). “네일 이상증에 대한 보정법의 효과성 연구”, 영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성광숙(2003). “복식 확대현사의 미적가치”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손효림(2017). “여성 복식 장식에 관한 연구: 18세기부터 20세기까지”, 부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부희(2007). “근세복식에 나타난 장식변천 및 의복의 음·양 이미지와 장식과의 연관성”,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화영(2006). “로코코 양식을 응용한 직물 디자인 연구: 파티 구두 제작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현주(1995). “로코코 복식을 응용한 현대의 남성예복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나경(2014). “로코코 시대 헤어스타일의 조형적 특성을 응용한 현대 업스타일 디자인 연구”,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옥(2009). “부착 장식 기법에 의한 패션 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명희(2008). “Nailpia에 게재된 Nail 작품 연구”, 용인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미소(2014). “로코코시대 여성복식과 현대 여성복식에 나타난 로코코 이미지의 색채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선화(2003). “바로크와 로코코시대 플로럴 패턴의 조형성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숙연(2005). “이탈리아 르네상스 회화에 나타난 Make-Up의 특성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승용(2012). “네일아트와 미적 특성과 입체 디자인 작품 연구”, 대구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주은(2006). “빅토리안 회화의 인물상을 통해 본 근대 영국 사회의 특성”,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지현(2006). “로코코 시대의 장식요소를 응용한 의상디자인”, 한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혜미루(2018). “네일 미용 서비스 소비자 및 선호 디자인 Q 유형화 연구”, 서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임지영(2008). “현대패션에 나타난 과시형복식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다희(2018). “벽지의 실내 공간 이미지 유형을 활용한 젤 네일아트 디자인

- 개발”, 광주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보윤(2007). “18세기를 배경으로 한 영화 「Farinelli」의 복식연구: 카스트라토(Castrato)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은경(2017). “웨딩 이미지에 따른 네일아트 표현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원격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미자(2011). “네일아트의 조형성과 오브제 확장에 관한 연구”, 광주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정문(2006). “로코코시대 여성복식을 응용한 의상디자인 연구: 디테일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37.
- 조정미(2013). “관능미를 주제로 한 도자조형 연구: 로코코 시대의 여성복식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주란(2003). “여대생의 얼굴화장과 손톱화장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원격향장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차혜인(2012). “1990년대 이후 복식에 나타난 장식 유형과 기법 분석: 벨플린의 시형식을 바탕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재경(2014). “패션에 나타난 우아미의 사회적 규범과 미적취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현애(2014). “Rococo시대의 여성복을 모티브로 한 Wearable Sculpture”,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편수명(2012). “한국 전통소재를 이용한 네일아트의 전통성과 심미성에 관한 소비자 반응”, 조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원영(2010). “로코코 시대 인물화에 나타난 메이크업 특성과 색채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지선(2012). “18세기 로코코 시대의 여성 미용문화 분석을 통한 미용작품 연구”, 성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미정(2014). “영국 초상화에 표현된 바로크·로코코 복식과 네오 바로크·로코코 패션의 미적특성 비교”,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황혜전(2005). “장 앙트완느 와토의 <키테라 섬의 순례>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학 술 지>

- 관결순, 이지현, 노윤선(2007). “로코코 양식을 응용한 패션디자인 연구”, 한국디자인학회, 한국디자인학회 국제학술대회 논문집, p.230.
- 김미경(2015). “Dries van Noten의 2014 F/W Paris collection에 나타난 지오메트릭 패턴을 적용한 네일 디자인 선호도 연구”, 한국미용예술경영학회지, 9(2), p.17.
- 김선희, 홍인선(2013). “네일아트 표현기법의 종류와 네일아트 샵 이용 실태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화장품미용학회, 3(1), p.61.
- 김시아, 최정욱(2012). “로코코 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의상 비교 분석 - 「마리 앙투아네트」와 「공작부인」을 중심으로”, 한국디자인지식학회, 디자인지식저널 24, p.192.
- 김은숙(2015). “스칸디나비안 텍스타일을 응용한 젤 네일아트 디자인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 21(3), p.187.
- 김주애(2011). “초상화에 표현된 마리 앙투아네트 여왕 복식의 상징적 의미”, 한국디자인문화학회, 17, p.145.
- 류경화, 김양희(2014). “18세기 회화에 나타난 프랑스 궁정 여성복식의 색채 연구”, 한국패션디자인학회, 14, p.87.
- 박소정(2016). “로코코 양식을 응용한 아트 메이크업 일러스트레이션 연구”,

*한국일러스트레이션학회*, 48, p.39.

박희숙(2011). “연극에 매료되었던 화가 『장 앙투안 와토』”, *고서계* 56(10), p.73.

백찬욱(2010). “로코코 성립과정과 중국에 대한 인식부족: 부세의 창조 시기 그림들의 경우”, *동아인문학회*, 17, p.412.

이순홍(2003). “서양 복식사에 나타난 의상장식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학회*, 11(1), p.23.

최선미, 박영선(2010). “에어브러쉬를 이용한 네일아트 표현기법에 관한 연구: 초현실주의 표현을 중심으로”, *한국의상디자인학회, 한국 의상디자인학회 학술대회*, p.129.

## < 국외 문헌 >

Donald, P(1996). “The ‘Duchesse de Velours’ and Her Daughter: A Masterpiece by Nattier and Its Historical Context”, *Metropolitan Museum Journal*, 31, p.131

## < 정기 간행물 >

NAIL UP KOREA Vol.5 (2009). 9월 제5권 제5호.

## < 인터넷 자료 >

네이버. [www.naver.com](http://www.naver.com) (검색일자: 2018.02.28.)

두산백과. <http://www.doopedia.co.kr> (검색일자: 2018.02.23.)

위키피디아. <https://en.wikipedia.org> (검색일자: 2018.03.18.)

Arten Company. <http://www.artencompany.com> (검색일자: 2018.03.28.)

BRUNCH MAGAGINE. <https://brunch.co.kr/@matgrim/51>  
(검색일자: 2018.03.28.)

DIAMI. <http://diamishop.com> (검색일자: 2018. 4. 12.)

INSTAGRAM. <http://www.instagram.com>

NAILPIA. [www.nailpia.com](http://www.nailpia.com)

NCS. [www.ncs.go.kr](http://www.ncs.go.kr) (검색일자: 2018. 4. 10)

PINTEREST. <http://www.pinterest.co.kr>

RISS. <http://www.riss.kr>

# ABSTRACT

## A Study on Nail Art Design through the Analysis of Clothing Ornament Characteristics in French Women's Portraits in the 18th Century

CHO, HANSOL  
Department of Clothing  
The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Nail art is an aesthetic means of expression with both functional and artistic aspects and important element to guide the overall mood of styling. Consumers have increasingly greater needs and expectations for nail designs that want. In nail art, design can lead an independent trend along with clothes and is recognized for its importance as a core strategy directly related to sales by small businesses running a nail shop. Consumers demand nail designs in harmony with their clothes with their usual fashion styles or special occasions in mind, which raises a need for diverse nail design approaches combined with clothes.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analyze clothing trimmings in French women's portraits in the 18th century and incorporate and express them in planar and three-dimensional nail design works, thus expanding the approach scope of nail design research through portrait analysis and proposing ideas and expressive methods for nail art designs with the incorporation of clothes.

As for methodology, the investigator carried out literature-based considerations and conducted empirical research, examining theories and previous studies about nail art and reviewing theoretically trimmings, clothes and trimmings of the 18th century, and portraits used as analysis objects and materials. For analysis, the study selected 110 women's portraits created in the 18th century and housed at

the Versailles Palace of France and devised methodology according to the types of clothing trimmings in the 18th century based on the theoretical analysis content of the portraits. A group of nail art experts analyzed 97 portraits in which trimmings were used, and the analysis results were used to categorize clothing trimmings in the 18th century into seven types, which include applique and cord, braid, lace, ribbon, bead, corsage and rosette, and fringe and tassel. The analysis results show that there were total seven types of trimmings in French women's portraits in the 18th century.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the investigator created total 14 nail art design works with a planar and three-dimensional nail design for each motif derived from the characteristics of the types.

The findings were as follows:

Trimmings in French women's portraits in the 18th century were categorized into applique and cord, braid, lace, ribbon, bead, corsage and rosette, and fringe and tassel. There were buttons in some of the portraits, but none of them were used as clothing ornaments with their functional elements as trimmings excluded. Buttons were not included in the study accordingly. A portrait was selected to represent each trimming type, and its visual motif was used to create a work.

Work I was based on applique and cord motifs and made with color gel, embo gel, and silk yarn for nail art mainly in hand painting and 2D techniques.

Work II was based on braid motifs and made with color gel and embo gel mainly in hand painting and 2D techniques.

Work III was based on lace motifs and made with color gel and embo gel mainly in hand painting and 2D techniques.

Work IV was based on lace motifs. The planar nail design was created mainly in hand painting. The three-dimensional nail design was created with ribbon ornaments made in the 3D technique and nail films of various colors that were cut and arranged in different width like various ribbon strings.

Work V was based on bead motifs. The marble technique of nail polish art was used in the planar nail design, and artificial jewels of various shapes for nail art were applied in the three-dimensional nail design.

Work VI was based on corsage and rosette motifs and were made with color gel, acrylic powder, and nail parts in hand painting and 2D techniques. It was finished with partial polish to highlight the curve and sense of volume of the three-dimensional design.

Finally, Work VII was based on fringe and tassel motifs and made with color

gel, acrylic powder, and three-dimensional nail ornaments in hand painting and 2D techniques.

The present study confirmed the possibilities of nail art design with clothes incorporated in it by creating nail art works based on trimmings in French women's portraits in the 18th century. It holds practical significance in that it proposed nail art designs applicable to consumers since trimmings used in the past were still used in modern clothes. In addition, it expanded the approach scope of nail design research by employing a methodology based on portraits. The findings of the study will hopefully serve as basic data for methods to express and create a variety of nail designs.